

退溪先生 門人錄

秋巒 鄭之雲

鄭之雲(1509~61)은 명종 때의 성리학자로 자는 靜而이고, 호는 秋巒이며 본관이 경주이니 通禮院 引儀 벼슬을 지낸 鄭夏의 증손으로 대대로 벼슬을 멀리 한 가문의 후손이다.

중종 3년인 1509년(正德 己巳)에 서울 근교인 高陽郡 己浦里에서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인근 지방 芒洞에 書齋를 열고 있던 思齋 金正國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젊을 때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慕齋 金安國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그후 城安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그때 마침 새로 설치된 童蒙學에 學行으로 천거되었으나 이내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중종 말기에 설치된 동몽학 직은 祿도 주어지고 벼슬자리로 통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관직을 멀리하여 과거시험까지 기피해 온 추만은 오직 啓蒙·心經 등을 읽으면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다.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天命圖說을 지어서 訂正을 청하면서부터이며 이 당시 퇴계선생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을 시기여서 동몽학 자리를 물러난 후부터는 더욱 자주 찾아와서 훈학을 받게 되었다.

퇴계는 추만의 墓碣銘에서 『君은 젊을 때부터 자질이 뛰어나 범상치 않았고 항상 옛 성현을 본받기를 원하는 고상한 뜻이 있었으며 용모가 순수하고 마음이 평탄하였고 옛것을 좋아하며 善을 즐겨하고 惡을 미워하고 義를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 그의 인간됨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벼슬자리를 멀리하고 학문 연구에만 정진해 온 추만이 명종

* 李熙大 편저, 「退溪門人錄」(太陽社, 1983)을 그대로 수록한 것임

16년인 1561년(辛酉) 서거하니 향년이 53세였다.

퇴계 門徒 중 나이 많은 제자의 한사람으로 선생보다 10년 전에 유명을 달리한 제자에게 이례적으로 묘갈명을 지어주셨으니, 그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야 학문을 하니 누가 師友가 없었으랴마는 지금에는 그러지 아니하네. 어려서는 스승이 있어도 커서는 없네. 혹 커서 스승이 있다 해도 저버린 자 많도다. 스승이 있고 저버리지 않음을 나는 君에게서 보았노라.(스승의 喪에) 부모상을 당한 것과 같이 종신토록 그렇도다.

자질이 특이한데 德 있는 이에게 훈도 받아 그 뜻을 이었고 그 들은 바를 넓혔도다. 조예가 초월하니 끼친 공이 성하도다. 내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미워서 헐뜯도다. 크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니 마음이 아팠도다.

만년에 서로 만나니 나의 느낌과 같도다. 도서로 강론하고 성리학으로 연구하여 서로 학업을 마치길 기대했더니 문득 서로 갈라졌도다. 어찌 한 번 이별이 황천으로 영별될 줄이야 기대가 허사되니 벗들이 애통하고 아까워하도다.

高陽의 선영이 그대의 무덤이다. 銘하며 후일에 고하노니 이 무덤에 나무하거나 소먹이지 말지어다.

靜存齋 李湛

중종 4년 庚午(1510년)에 서울에서 출생한 李湛의 자는 仲久이고 호는 靜存齋이며, 본관은 龍仁이다.

일찍이 寒暄堂 김굉필 선생의 高弟子인 柳藕學에게 수학하여 20대에 司馬試를 거쳐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재질이 뛰어났던 정존재는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주자학에 능통한 학자가 되었다.

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과 홍문관, 사간원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종2품 벼슬인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홍문관 관직에 재임 중에는 퇴계선생 아래 자리에서 함께 봉직하기도 했으며 인종 원년 乙巳(1545년)에

는 書狀官에 재임 중 李芑 일파의 모략을 받아 관직에서 밀려나고 명종 2년(丁未)에는 먼 지방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선조 즉위 후 복권되어 다시 관직을 맡게 된 정존재는 監司까지 역임하면서도 관직보다는 학문에 더 큰 뜻을 두어 啓蒙翼傳, 朱子書節要 등을 비롯한 많은 서적을 탐독하면서 선생의 지도를 받았으며 선조 3년 퇴계선생이 서거하자 선생을 추모하는 많은 글을 지어 남겼다.

龜巖 李禎

명종 때의 학자인 李禎(1512~71)은 중종 6년인 1512년(壬申) 경남 사천에서 출생했다. 자는 剛而, 호는 龜巖이요 본관이 사천인 그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 귀양 중인 圭菴 宋麟壽에게서 수학하여 25세 때인 중종 31년(1536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이후 도산으로 찾아와 퇴계선생 문하에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게 된 귀암은 몇 년 동안 홍문관과 성균관의 하위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이내 사임하고 성리학 연구에만 정진했다.

도산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후 龜巖精舍를 신축하여 후진 양성에 정성을 쏟은 그는 선조 즉위 초 홍문관 副提學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경주(東京)에 西岳書院을 창건하여 설총과 최치원 등 前朝의 儒賢을 추존하고 학문에 힘썼다.

만년에는 향리의 萬竹山中에 들어가 학문 연구로 여생을 보낸 귀암은 저술에도 힘을 기울여 性理遺論, 寒暄譜錄, 景賢錄, 論喪禮 등 저서를 지어 龜巖集과 함께 남겼다.

선조 4년(1517년) 60세를 일기로 서거한 후 사천 龜溪書院에 제향되었다. 그리고 바로 전해(庚午)에 서거한 퇴계선생 영전에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스승을 추모했다.

아아! 우리 선생이여! 타고난 총명은 빼어나고 상서로운 복이 모이어서 뛰어난 재주를 길렀도다. 순수한 성품을 간직하여 맑은 한 기운을 모았고, 마음속은 시원하게 트이어 옥과 같이 깨끗하고 얼음같이 맑으며,

기운과 도량을 갖추어 봄날같이 온화하고 가을날같이 엄숙하다. 행실은 효제를 근본으로 하였고 학문은 精一한 것을 구하니 사물은 연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책은 읽지 않는 것이 없으며, 글귀마다 끝까지 연구하고 글자마다 속까지 생각하여 진실된 노력이 오래 쌓이고 精義는 신통하였다. 해와 달의 차고 이지러짐과 음양의 굽히고 펴고 물 뿌리고 쏘고 하는 잔잔한 일에도 三綱과 五常은 지극하였고, 아래로는 쉬운 공부로부터 위로는 心法에 통달하였다. 禮와 用의 드러나고 그윽함과 精과 粗의 근원이 되고 끝맺음이 됨을 얼음 풀리듯 확실히 깨치고 통하고 꿰어 환히 알았다.

龍巖 朴雲

명종 때의 학자인 朴雲의 자는 澤之요, 호는 龍巖이며 본관이 밀양이니 진사 朴宗元의 아들이다.

성종 23년인 1493년(弘治 癸丑) 善山府 海平 고을에서 출생한 용암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즐겨하여 뒷날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청년시절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선비인 松堂(朴英)의 지도를 받았고 27세(중종 13년)때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다.

효행이 뛰어나 官으로부터 旌閭(오늘날의 표창)되기도 한 용암은 학문 연구에만 정진하였으며 만년에 이르러 퇴계선생의 학덕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나이를 초월하여 사제의 인연을 맺고 往復書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용암이 저술한 擊蒙篇과 紫陽心法至論을 비롯하여 景行錄, 三候傳, 衛生方 등 편찬한 여러 가지 저서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받아 가기도 했다.

명종 17년(1562년) 향리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70이며 사후 선산 洛峯書院에 제향되었다.

용암이 서거한 후 자제들의 간청에 따라 퇴계선생은 묘갈명을 지어주

면서 제자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니 그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힘썼도다 용암이여! 스스로 세속에 빠어났도다. 뜻을 떨쳐 배움에 향하니 성현을 본받으려 하였도다. 동향에 선진 있어 妙訣을 열었도다. 벼슬길에서 물러와 몸을 닦아 거듭 經籍에 징험하도다. 孝悌와 忠信이 쌓여서 숨은 덕이 되었다. 아름다운 동산숲에서 한가로이 스스로 즐기었네.

세월이 늦어지니 동지를 생각하도다. 나를 좋아라 하니 외람되이 부끄럽다. 안면은 못 보으나 마음은 상통하였도다. 微言이 밝고 성인되는 길은 손바닥 보듯 하되, 혹시나 의심이 있으면 고충의 말로 나에게 왕복하였다.

굽혀 듣고 허심하여 고치기 좋아하네. 그대에게 힘입어 나 역시 얻은 바 있도다. 난초(蘭)같은 정분이 영원할 줄 믿었더니 하늘이 어이 무심할까, 나의 근심 은은하네.

아름답다, 그 고을 師友가 빛나네. 가상하다 용암이여, 학문이 원인 있도다. 용암은 갔으나 유품은 완전하네.

바라노라. 오는 사람 길이 이어 흥기할지어다.

訥齋 金生溟

金生溟(1504~77)은 연산군 9년(1504년) 예안에서 출생하였고 자는 士浩이고 호는 訥齋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학을 받은 놀재는 30세가 지나도록 주자학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31세 때인 중종 28년인 1534년(甲子)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로 뽑혔으며 뒤이어 泮宮(성균관)에 유학하여 朱子書を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나 관직에 나갈 뜻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성균관에 유학한 후 고향 예안에 돌아와 精舍를 지어 학문을 닦는 한편 수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학행으로 추천되어 慶山訓導와 參奉을 역임하였다.

선대부터 이어져 온 청백리의 가성을 지켜온 눌재의 학행에 대해 퇴계선생은 「그의 篤志 力學함을 稱導하였고 겸손하고 簡約하여 自守하며 지조를 가짐이 확고하고 사상이 견실하여 처세함에 있어서 심히 유익하였다.」고 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만년까지 향리 정사에 기거하면서 시문을 즐기다가 선조 10년(1577년) 丁丑에 서거하니 향년이 74세였다. 사후 예안 磨谷祠에 제향되었다.

默齋 朴士燾

朴士燾(1508~88)의 자는 德明이고 호는 默齋이며 본관은 함양이다.

중종 2년 戊辰(1508년) 예안 佳野村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는 부친에게서 글을 배우다가 성인이 된 후 퇴계선생 문하에 찾아 들어 성리학에 관한 훈학을 받아 뒷날 학행으로 천거되어 義城訓導를 지냈다.

성품이 醇厚하고 덕성이 깊었고 8세 때에 소학을 배우면서 너무도 공부에 열중하여 그의 부친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너는 年少好學하니 반드시 早년에 성취할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山南 金富仁

영남지방 선비로서는 드물게 문무를 겸비하였던 金富仁의 자는 佰榮이고 호는 山南이며 본관은 光山이다.

중종 6년(正德 壬申·1512) 예안 烏川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예에 뛰어났던 산남은 학문에 힘써 두 차례나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문인들과는 달리 학문을 닦는 여가에 익힌 무예에 힘입어 무과에 급제하였다.

무과에 오른 후 宣傳官에 임용되어 賓講廳에 나아가서 좌씨춘추를 능통하게 읽고 해석하니 무관들 사이에 명예와 인기가 높아졌으며 무반의 여러 관직을 거친 후 昌城府使를 역임하였다.

이때 兵馬使 金文秀를 도와 西海坪을 정벌하여 通政에 승진되었고 뒤 이어 慶尙左兵馬使에 승진되어 軍務를 주관하면서도 학문에 정진하여 喪禮問目十一條를 지어 남겼다.

무관이면서도 학문에 힘쓴 산남의 학행에 대하여 墓碣을 지은 金應祖 선생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공이 글읽기를 좋아했고 더욱 自警編에 著力하여 늙기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았다. 임금이 일찍이 옛 장수로서 가히 후세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물으니 공이 趙充國을 들어 대답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술을 내리고 총애하였다.

공이 서적을 탐독하고 科業은 餘事로 알더니 문학을 버려두고 병서를 배워 무인의 복장을 입으니 화려함이 신선과 같았다. 태평시대를 당하여 변방에 풍진이 없으니 무기를 시험할 곳이 없고 匣에 든 장검만이 돌연히 울으니 軍中에 나가면 대장이오 物外에는 서생이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오천에서 은거하다가 선조 17년(1584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73세였다.

企庵 李完

공의 자는 子固이고 호는 企庵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松安君의 7세손이자 贊成公(李埴)의 손자이다.

중종 6년 壬申(1512년) 예안 溫溪里에서 출생한 기암은 일찍부터 季父인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학을 받아 문장과 필법이 뛰어났으며 이때 퇴계선생은 늘 『가업을 계승할 가망이 있는 자는 完이라』고 칭하면서 性理書 한 질을 친히 주시면서 학업에 힘써 나가도록 권장했다고 한다.

타고난 천성이 순박하고 재질이 뛰어나 중종 34년(1540년)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科業에 뜻을 두지 않은 채 학문 연구와 宗祀에 전념하였으며 중년에는 榮川 敎官을 역임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만년에는 온혜 石橋에 자리를 잡아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 樂山亭이란 편액을 걸고 여기서 학문과 靜養에 힘쓰는 한편 때때로 영천 伊山書院

을 왕래하면서 趙月川 金雲月堂과 더불어 시문을 즐기면서 여생을 보냈다.

樂山亭을 지은 후 스스로 自號를 樂山이라고 했던 기암은 만년에 優老(옛날 壽職제도의 일종)의 은전으로 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며 왜란 중인 선조 29년(1596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85세였다.

사후 예안 馬谷祠에 제향되었으며 뒷날에 이르러 松安君 廟宇인 안동 鵲山祠에 종향되었다.

眉巖 柳希春

중종 7년(1513년) 潭陽에서 출생한 그의 자는 仁仲이고 호는 眉巖이며 본관은 善山이다.

초년에는 慕齋 金安國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성인이 된 후 퇴계선생의 훈학을 받은 미암은 司馬試를 거쳐 26세 때인 중종 32년(1538년) 문과에 급제하여 翰林과 三司의 여러 관직을 거친 다음 司諫院 正言에 올랐으나 인종 원년(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에 관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이후 20년 동안 孤島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때 미암은 성리학에 관한 經史와 중국의 稗林小說을 섭렵하였으며 특히 퇴계선생과 왕복 서신을 통하여 주자학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여 朱子全書와 朱子集覽 등을 편찬하기도 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선조 즉위 초기 다시 관직에 소환되어 直提學과 副提學 등을 역임하였으며 퇴계선생 서거 후 다른 문인들과 함께 시호를 내리도록 다방면으로 활약한 미암은 선조 6년(1573년) 11월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임금에게 건의한 명문을 후세에 남기기도 했다.

즉 萬曆 癸酉 11월 24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贈 領議政 이황은 믿음에 독실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과 어렵게 나아가고 쉽게 물러나는 절개는 옛사람에게 구해 보아도 그 짝이 드물 것이옵니다. 또 의리를 떨치어 나타내고 斯文을 도와 도를 일으킨 공은 실로 우리 동방에 일찍 없었던 일이옵니다. 그 行狀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호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공론은 진실로 우연이 아니옵니다. 청하옵건대, 빨리 명을 내리시어 世道를 격려함이 되게 하소서.』하였다.

또 11월 26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贈 영의정 이황은 믿음에 독실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理에는 밝고 義에는 精하여 그것이 (안으로) 쌓이면 덕행이 되고 (밖으로) 나타나면 事業이 되어 斯文을 붙들어 세우고 우리의 道를 유지한 공은 실로 우리 동방에 일찍 없었던 것이옵니다. 그를 표창해 높이는 행사는 마땅히 聖上의 뜻으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운데, 公論이 일어나 도리에 뚜렷한 법에 어김이 있다고 지금까지 논란을 끌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시호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그 行狀을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의 처신과 행사의 자취를 참고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이황의 도덕의 盛한 바는 밝기가 해와 별과 같거늘, 그것까지 꼭 행장을 기다려서 하시옵니까.』 하였다. 그리고 그 날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황은 百代 뒤에 났더라도 자질의 빼어남은 세상에 드물 것이며, 끊어진 학문을 인도하여 밝혀 斯文을 붙들어 세웠으니 우리 동방에 뛰어난 분으로서 근대의 여러 선비들의 미칠 바가 아니옵니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선조 원년부터 10년 동안 써서 남긴 眉巖日記에도 실려 있으며 이것은 儒先錄과 함께 역사적인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1577년(선조10년) 서거한 미암에게 사후 左贊成의 증직과 文節公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선조 14년(1607년) 전남 담양에 세워진 義巖書院에 제향되었다.

文谷李文奎

공의 자는 景昭이고 호는 文谷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고려 말기의 공신 松安君(李子脩)의 7세손이자 善山都護府使를 지낸 李禎의 현손이다.

중종 7년(1513년) 안동 豊山縣 麻厓村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재숙이 되는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중년에 司馬試에 합격

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만년에 學行으로 추천되어 참봉 벼슬을 제수받았던 문곡은 다섯가지 폐습을 시정할 것을 진정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永嘉誌 참조)

효성이 지극하여 親喪을 당하였을 때는 3년 동안 廬墓에서 素食으로 일관하였고 퇴계선생 서거 때에도 3년 동안 素食으로 喪禮를 받들었다. 충절이 뛰어나 國忌時에는 素食으로 북향 拜禮를 잊지 않고 계속하였다.

松亭 崔應龍

명종 때의 문신인 崔應龍의 자는 具叔이고 호는 松亭이며 본관은 完山이나 善山에서 살았다.

중종 8년(1514년) 선산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에는 인근 마을의 松堂 朴雲에게서 가르침을 받다가 청년시절부터 당시 대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퇴계선생 문하에서 심오한 학문을 닦게 되었으며 그 후 司馬試를 거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이조참판에까지 이르렀다.

재질이 뛰어나고 천품이 후덕했던 송정은 陶山書堂에서 소학과 중용 등을 힘써 배우고 성리학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닦았으며 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과 홍문관, 사간원, 성균관 등 중앙의 여러 관직과 여러 고을의 府使, 牧使를 역임하면서 내외의 찬양을 받는 치적을 쌓았으나 관직에 있으면서도 학문 연구에 대한 본뜻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조참판의 벼슬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 선산에 은거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이러한 학행에 대하여 퇴계선생도 송정의 居官不忘向學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문인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 편의 저술을 남기고 선조 13년(1580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67세였으며 사후 善山 松山祠에 제향되었다.

蘇齋 盧守愼

중종 9년인 1515년 尙州 火嶺에서 출생하여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선조 때 문신으로 대성한 盧守愼의 자는 寡悔요, 호는 暗室, 伊齋 또는 蘇齋이며 본관은 光州이니 우의정을 지낸 盧嵩의 후손이다.

29세 때인 중종 37년(1543년) 式年試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典籍과 司書, 홍문관 修撰, 사간원 正言, 이조좌랑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정 대신들의 촉망을 받았으나 명종 원년(1545년) 왕실의 외척으로 小尹의 대표자가 된 尹元衡 등이 일으킨 을사사화 때 앞서 正言 재임 중 李芑를 부정한 小人이라고 탄핵한 것이 화근이 되어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라도 順天으로 유배되었으며 그후 良才驛 壁書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남해 고도 珍島로 옮겨져 19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과거시험 때 시험관 慕齋 김안국이 문재에 감탄할 정도로 총명 박학하고 明經術行에 조예가 깊었다는 소재는 19년 동안 외딴섬에서 귀양살이 하는 동안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특히 人心道心說에 관하여 퇴계선생과 서면으로 문답하여 人心道心辨과 熱中說, 夙興夜寐箴解 등을 저술하였다.

뒷날 퇴계선생이 이 저술을 보고 「斯道가 동방에 없어지지 않았다」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53세가 되던 해인 선조 원년(1567년) 혐의가 풀리고 홍문관 校理로 다시 소환되어 당년에 應敎, 直提學, 副提學으로 승진되었다가 사간원 大司諫의 요직을 맡았으며 그후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외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때 소재는 정치의 근본 數千言을 올리고 實學과 至治의 道에 힘쓰지 않는 것 등 여섯가지 「君德之戒」 六事를 올려 善政을 뒷받침하였으며 뒤이어 사헌부 대사헌, 이조참판, 대제학을 거쳐서 선조 7년에는 우의정에 올랐다.

그가 우의정에 취임할 때까지 퇴계선생에게 시호가 내려지지 않자 조

정 대신들의 중론을 모아 다시 임금에게 진언하여 丙子年 12월에 시호가 내려질 수 있도록 힘썼다.

이때 소재가 右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고 崇終獻議에 기록되었다.

聖上의 마음은 매양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시지마는,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상의 생각은 옛날 법을 가버이 고치고자 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진실로 어려워하고 삼가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 줄 압니다. 그러하오나 성상께서 행하시는 일을 꼭 낱낱이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사방이 응해서 아름다운 움직임은 오늘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을 추모하여 제자의 도리를 다한 그는 좌의정을 거쳐 선조 17년인 1584년 드디어 영의정에 발탁되어 정사를 주관하게 되었으나 6년 후에 일어난 己丑獄事에 연루되어 다시 파직을 당하는 등 대성을 하고서도 파란을 겪은 불운의 생애를 보냈다.

양명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서산대사 휴정 등과의 교제를 통하여 불교에 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던 소재는 문장과 서예에도 능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선조 23년인 庚寅年(1590년) 76세로 파란 많은 생애를 마쳤다.

사후 文簡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文衡錄에 올랐으며 상주 道南書院과 충주의 八峯書院, 진도의 鳳巖祠에 제향되었다.

恥齋 洪仁祐

洪仁祐의 자는 應吉이요, 호는 恥齋이며 본관이 南陽이니 莊襄公 洪師錫의 5세손이다.

중종 10년(1515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 화담 서경덕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학업에 열중하는 태도에 감탄한 서화담은 일찍이 주위사람들에게 「근래에 학문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장래성이 있는 사람

은 흥응길 한 사람뿐일 것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듯이 20세 약관으로 성리학에 관해 깊이 연구하였던 치재는 23세 때인 중종 23년(1537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서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으며 서울에서 퇴계선생 문하를 찾아 제자의 예를 갖춘 후 선생께서 도산으로 귀향하자 안동에 임시로 移居하여 거주하면서 훈학을 받았다.

이때 羅整庵의 困知錄에 실린 人心道心 중의 그릇된 학설을 옳게 배웠고 趙靜菴의 덕행과 遺錄에 대한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행장을 찬하는데 기여했다. 蘇齋 盧守愼과 가깝게 친교를 맺어 소재가 조정에 있을 때나 乙巳事獄에 몰려 진도로 유배되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우정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만은 조금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성리학에 전념하다가 명종 10년(1554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40세였다,

사후 그 아들 唐興君 進이 귀하게 되어 영의정의 증직을 받고 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驢州 沂川書院에 배향되었다.

小菴 盧遂

명종 때의 문인인 盧遂의 자는 沙洞이고 호는 小菴이며 본관은 光州이나 永川에서 성장하여 여생을 마쳤다.

중종 10년(1516년)에 출생하여 어릴 때는 三足堂 金晩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당대의 대학자인 퇴계선생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동향의 선비 魯村 鄭允良, 明山 金應生 등과 함께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학을 받았다.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채 학문에 정진하여 학자로 대성하였으며 小菴文集과 敬身箴 등의 저서를 남겼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시문에도 능했던 소암은 동향의 선비 정윤량 김응생 등과 힘을 합하여 文忠公 정포은 선생을 향사하기 위한 臨臯書

院을 영천에 창건하고 여말의 충신이요 대성리학자인 포은 선생이 출생한 그곳을 海東 白鹿洞이라고 치칭하였다.

그후 學行으로 천거되어 참봉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줄곧 임고서원에서 학문 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後澗堂 金富弼

벼슬을 멀리하고 林阜에 묻혀 학문에 정진하다가 생애를 마친 金富弼의 자는 彦遇이고 호는 後澗堂이며 본관이 光山이니 중종 때 관찰사를 지낸 金綠의 아들이다.

중종 10년인 1516년 禮安縣 烏川에서 출생한 후조당은 어릴 적부터 家庭之訓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깊이 있는 학문을 닦았으며 22세 때인 중종 31년(1537년)에는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채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천성이 嚴正慎重하고 절제와 실행이 출중했던 후조당은 학행으로 천거되어 세 번이나 참봉 벼슬이 주어졌으나 명성과 벼슬을 멀리하여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 머물면서 시문을 즐기게 되니 퇴계선생이 시를 지어 보내면서 칭찬하였다고 嶺南人物考에 기록되어 있다.

인근 강변에 山齋亭을 지어 아우 把淸亭(富儀)과 종제인 養正堂(富信), 雪月堂(富倫) 등과 함께 시문을 즐기면서 학문에 정진하니 일찍이 도산을 드나들던 鄭寒岡이 『烏川 한 마을은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또한 朴愷은 그의 墓碣에서 『아우 把淸公과 여러 昆季들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아 우애가 돈독하고 매양 좋은 때나 좋은 경치를 만나면 문득 서로 왕래하고 모여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환락함을 다하고契를 모아 恩信을 강론하며 혼사나 喪故 같은 길흉사 때는 周旋하고 救援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모두 공이 창시한 일이었다. 이로써 사람들이 仁者의 마을이라 하였다.』고 찬양하였다.

선조 3년(庚午年) 퇴계선생의 喪事가 났을 때 趙月川, 琴日休堂, 金雪月堂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從事로 선발되어 상사를 받들고 小祥 때 까지 흰띠와 素食으로 상례를 치루었던 후조당은 선생 서거 후인 1574년 도산서원을 건립할 때 큰 힘을 쏟기도 했다.

선조 10년(1577년) 서거하니 향년이 62세였으며 사후 학행이 높게 평가되어 文純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果齋 張壽禧

중종 10년 丙子(1516년)에 榮州에서 출생한 張壽禧의 자는 祐翁이요, 호는 果齋이며 본관은 仁同이니 安襄公 張末孫의 증손이다.

어릴 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에만 열중하였을 뿐 관직을 멀리한 학자였다.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한 과재가 가문의 전통에 따라 爲善의 행실이 있음을 알고 漢나라 東平王의 말을 취하여 그 집을 最樂堂이라 명명하고 친히 편액을 써주면서 격려했다고 한다.

관직에 전혀 뜻을 두지 않았던 과재는 항상 「군자의 道는 爲善함에 힘써 행할 뿐이요 명성이 외인에게 들리는 것은 수치스러우니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最樂堂에 은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멀리하는 학자였다.

학행과 조상의 유덕에 의하여 주어지는 蔭職마저 물리친 과재는 퇴계선생의 학덕을 추모하여 선생 易箒한 3년 후인 선조 6년(1573년) 유림의 중론을 모아 榮州에 伊山書院을 건립하였으며 서거할 때까지 이 서원 일을 주관하였다.

운명하기 직전 여러 자손들에게 贈職은 물론 자신의 墓碣銘을 하지 못하도록 유훈까지 남기고 선조 19년(1568년) 향리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71세였다.

유언에 상관없이 사후 형조참의의 증직이 내려졌으며 영주 寒泉祠에 제향되었다.

明山 金應生

金應生은 중종 10년인 1516년(正德 丙子) 永川에서 출생하였으며 자는 德秀, 호는 明山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명종 4년(1549년)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로 뽑혔으나 문과에 응하지 않고 향리 明山 남쪽에 精舍를 신축하고 서적을 모아 인근 마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서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한편 陶山書堂에서 함께 수학한 동문인 小菴 노수와 魯村 鄭允良 등 향리의 동료들과 힘을 모아 명종 7년(1552년) 臨臯書院을 건립하여 여말의 충신 정몽주 선생의 위패를 모셨다.

이에 앞서 陽村塾도 건립하여 동료 文人들과 강론을 즐겨한 명산은 항상 「우리 鄉中은 정포은 선생이 출생한 곳이라, 실지로 海東 白鹿洞이라.」 자부하면서 임고서원을 세워 太學의 제도를 본받으려 했으며 廟宇의 縣額을 퇴계선생에게 청하고 스스로 학규를 지어 서원을 관리했다.

그러나 명종 10년(1555년) 40세를 일기로 요절함에 따라 그 이상의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사후 학행으로 호조참의의 증직을 받았다.

東湖 邊永清

邊永清(1516~78)의 자는 開伯이고 호는 東湖이며 본관이 原州이니 정종 때 府使를 지낸 原川府院君 邊尙服의 후손이다.

중종 10년 (1516년·正德 丙子) 안동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학을 받은 동호는 천품이 총명하고 도의가 뛰어나 동료 문인들의 선망을 받았으며 司馬試를 거쳐서 34세 때인 명종 4년(1549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급제 후 홍문관 正字와 修撰, 사간원 正言 등을 거쳐서 사헌부 持平에 올랐으며 이때 조정의 간신과 권신들을 배척하도록 여러 차례 상소

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후 홍문관 校理로 관직을 옮겼다가 다시 사헌부 掌書에 등용되었으며 이 무렵 영남 지방에 흉년이 들어 기근 사태가 일어나자 大邱府使로 발탁되어 민생고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사헌부 執義로 다시 내직에 들어갔다.

三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는 동안 동문인 柏潭 具鳳齡과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도움을 주었으며 執義 재임 중 親喪을 당하여 居喪 중인 선조 11년(1578년) 서거하니 향년 63세였다.

晦堂 申元祿

중종 10년(丙子 1516년) 義城에서 태어난 공의 자는 季綏이며 호는 晦堂이고 본관은 鵝州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愼齋 주세붕 선생 문하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의 훈학을 받았으며 특히 퇴계가 풍기군수를 역임할 시기에는 백운동서원에 머물면서 조월천, 구백담, 김지산 등 선생을 찾아온 문도들과 어울려 강론하면서 친교를 가깝게 했다.

효도가 지극하여 10여세 소년시절에 이미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 신병 중인 부친에게 필요한 약을 몇 차례나 구해왔으며 부모상을 당하여 居喪할 때에는 魚肉을 전폐한 素食으로 삼년상을 치르는 등 효행이 널리 알려져 관청으로부터 旋閭(표창)되기도 했다.

퇴계선생 서거 후에도 삼년동안 素食으로 心喪함으로써 제자의 도리를 다하였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관학의 教授에 임용되었던 회당은 평소에 사숙하여 오던 慕齋 김안국 선생을 추모하여 여러 동료들과 힘을 합해 長川에 氷溪書院을 창건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선조 때에는 사액이 내려졌다.

선조 9년(1576년) 향년 61세로 서거한 후 이조참의의 증직이 내리

고 의성 藏待書院에 배향되었으며 학문에 힘써 여러 유작을 남겨 뒷날 문집이 발간되었다.

錦溪 黃俊良

명종 때 학행이 뛰어나 사림의 존경을 받았으나 일찍이 서거함에 따라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黃俊良(1517~63)의 자는 仲擧요 호는 錦溪이며 본관은 平海이니 고려 때 시중 벼슬을 지낸 黃裕中의 후손이다.

중종 11년(1517년 正德 丁丑) 풍기에서 출생한 금계는 재질이 뛰어나 일찍이 스스로 글을 익혔고 언변이 유창하여 말을 하면 곧 사람을 놀라게 하여 신동이라 일컬어졌으며 18세 때에 南省(예조)에 나아가 시험을 볼 때 考試官이 놀랄 정도로 문명이 자자하여 과거시험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孝節公 龔巖 선생의 孫婿로 도산 汾川에 장가든 후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심경, 근사록 등 性理書를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은 금계는 21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24세 때인 중종 34년(1540년) 문과 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權知 성균관 學諭에 임명되면서 宦路에 나서게 되었다.

그 후 星州訓導를 거쳐 성균관 學錄, 學正, 典籍 및 양현고 奉事, 승문원 殿考, 공조좌랑으로 승진되었고 부친상례를 마친 뒤인 명종 5년(1550년) 다시 호조좌랑 겸 춘추관 記事官으로 등용되어 중종과 인종 두 임금의 실록을 편찬하는데 참여하였다가 병조좌랑으로 전임되어서는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명종 6년(1551년)에는 경상도 監軍御史와 推旌御史에 임명되어 지방 민정을 살핀 다음 그해 9월 사헌부 持平에 오르자 평소 사이가 나쁜 한 언관의 모략 중상으로 파직됨에 따라 이후 외직을 자청하여 新寧縣監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뒤이어 丹陽郡守와 예조·병조정랑을 거쳐서 명종 15년(1560년) 星州牧使에 임용되었다.

신령현감 재임시에는 문묘를 보수하고 옛 고을 터에 白鶴書院을 창건

하여 학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단양군수에 부임하여서는 흉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10여가지의 세금(공납물)을 면제해 주도록 상소문을 올려 실현케 하였던 금계는 성주목사에 부임한 후에도 문묘를 옛 규모로 넓혀 중수하고 孔谷書堂과 鹿峯精舍를 새로 세워 학문을 진흥시켰다.

이때 敎官으로 임용된 德溪 吳健과 함께 학생들을 분담하여 직접 가르치면서 학문을 닦게 하고 碧珍 고을의 迎鳳書院을 확장하였으며 고향 풍기에 錦陽精舍를 세워 고향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게 했다.

이처럼 외직에 나가 있으면서 학문 진흥에 정진해오던 중 명종 18년 癸亥(1563년)에 신병으로 서거하니 향년이 47세였다.

퇴계선생이 이례적으로 제자의 행장을 써서 공적을 높이 평가해 준 그는 저작에도 힘써 문집 2권과 시집 2권을 남겼다.

서거 후에는 금계 자신이 터를 잡고 창건한 풍기 郁陽書院과 新寧 白鶴書院에 제향되었다.

嘯臯 朴承任

중종 11년인 1517년(丁丑) 榮州에서 출생한 朴承任의 자는 重甫요, 호는 嘯臯이며 본관은 潘南이니 좌의정을 역임한 平度公 朴崑의 5세손이다.

어릴 적부터 책읽기를 즐겨 문장과 학행이 뛰어났던 그는 24세 때인 중종 34년(1540년) 司馬試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뒤이어 예문관 檢閱과 홍문관 正字 등을 역임하였고 규장각의 直閣을 거쳐 인종 원년(1545년) 사간원 正言으로 승진되었다.

이때 十漸疏를 올려 평소 그의 명망을 시기해 오던 대사헌 陳復昌과 李芑 등을 탄핵하려 하다가 그들의 세력에 밀려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영주로 내려가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어릴 때에 史略을 배우다가 선생에게 문기를 「무왕이 천하를 위하여 폭악한 사람을 토벌하고서 어찌하여 은나라의 종실 중에 착한 사람 微

자를 내세워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느냐」고 할 정도로 정의감이 뛰어나고 사리 판단이 빨랐던 소고는 논어와 주자서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의심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퇴계선생께 문의하여 가르침을 받았다고 愚伏 鄭經世가 지은 墓碣銘에 쓰여 있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의례와 강목, 주자대전 등 많은 서적을 입수하여 섭렵하고 孔門心法類聚, 綱目心法 등을 저술한 바도 있는 소고는 53세 때인 선조 2년에 다시 조정에 소환되어 명나라에 사신(賀使)으로 다녀왔으며 이때 명나라 예부에 논변하여 우리나라 사신의 相見 대우를 옹계 받도록 시정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명나라에 賀使로 다녀온 후 사간원 司諫을 거쳐 大司諫에 올라 왕실의 과실을 간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선조 16년(1583년)에는 66세의 노령으로 慶州府尹에 부임하여 集慶殿에 이태조의 화상을 봉안하기도 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榮州에 은거하다가 선조 19년(1586년) 서거하니 향년이 70세였으며 사후 영주 龜江祠에 제향되었다.

공의 아우 桐原 朴承倫도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니 형제가 모두 도산서당의 문인이다.

草堂 許曄

중종 11년인 1517년(正德 丁丑) 서울에서 출생한 許曄의 자는 太輝, 호는 草堂이며 본관은 陽川이다.

어릴 때에는 화담 서경덕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盧守愼, 朴淳 등과 친교를 두텁게 맺어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30세 때인 명종 원년(1546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후 경상도 관찰사와 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으며 이때 도산서원 건립을 지원하고 선생을 추모하는 挽詩를 지어 남기기도 했다.

동서분당이 확연히 드러난 후 동인의 거두로 지목되어 卯地란 별칭을 받기도 한 초당은 선조 13년(1580년) 64세로 서거하였으며 사후 文簡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개성 花谷書院에 배향되었다.

그의 아들인 許箴(1548~1612)도 소년시절에는 眉巖 柳希春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성인이 된 후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부자가 함께 퇴계 문인이 되었다.

자를 功彦, 호를 巖麓이라고 하는 箴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 판서에 이르고 동인의 맹장으로 활약하면서도 학문이 뛰어나 선조 때의 遺敎七臣의 한 사람으로 뽑힌 이름난 성리학자였다.

土亭 李之菡

李之菡의 자는 馨仲이고 호는 土亭이며 본관이 韓山이니 목은 이색 선생의 6세손이자 內資寺正 벼슬을 지낸 省菴 李之蕃의 아우이다.

이조 때의 易學者 또는 奇人으로 널리 알려진 토정은 중종 11년(1517년)에 출생하여 어릴 때에는 형 省菴과 함께 인근의 毛山守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장년 이후부터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이 뛰어났다.

특히 經史子傳과 수학에 능통하고 의약, 천문, 지리, 음향, 술서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괴이한 거동, 기지, 예언, 술수에 관한 일화를 남겼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져오고 있는 「土亭秘訣」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한가지를 배우면 열가지를 알 정도로 재질이 뛰어났던 토정은 57세 때인 선조 6년(1573년) 卓行으로 추천을 받아 종6품 벼슬에 오르고 抱川縣監에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그후 선조 11년(1575년) 고향 인근의 牙山縣監에 전임되어 관내 결인과 노약자, 飢民들의 구호사업에 힘쓰다가 재임 중에 서거하니 향년이 62세였다.

물욕이 없어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았으나 학문이 뛰어나 「土亭秘訣」

외에도 시문, 辭說 등 많은 유고를 남겼다.

오늘날까지 매년 신년초마다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의 저서 「土亭秘訣」은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언하게 하는 서적이며 그의 사후에 간행된 土亭遺稿集도 당대 朝野諸名士의 제문과 墓碣銘, 諡狀 등을 담고 있는 명저이다.

말년에 이르러 현감 벼슬을 역임하였던 토정은 평소의 卓行이 높이 평가되어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文康公의 시호가 내렸으며 아산의 仁山書院과 保寧의 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靑巖 權東輔

중종 12년 戊寅(1518년) 安東郡 北後面 道村里에서 출생한 公의 자는 震卿이고 호는 靑巖이며 본관이 안동이니 중종 때의 문신인 忠定公 冲齋 權撥 선생의 아들이다.

어릴 때에는 충정공의 훈학을 받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청암은 문장이 뛰어나 20대 초기에 이미 생원과 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채 초야에서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기량과 문필이 뛰어나 주위의 칭찬을 받았던 청암이 관직을 멀리한 것은 중종 초기부터 여러 관직을 거쳐서 도승지, 관찰사, 이조판서, 우찬성 등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던 부친 충재 선생이 인종 때에 일어난 사화에 몰려 관직을 삭탈당하고 변방 지역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는 데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그의 나이 27세 무렵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司馬兩試에 합격한 후 대과 응시를 포기한 채 학문에만 열중하였으며 31세 때인 명종3년(1548년) 부친 충재선생이 서거하자 퇴계선생께 행장을 짓도록 간청하여 뜻을 이룸시다.

과직이라고는 사마시에 합격한 후 잠시 知郡事를 지낸 일이 있는 청암의 인품에 대해 朴思菴은 그 기량과 風裁가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松潤 黃應奎

중종 12년(1518년) 경상도 豊基에서 출생한 黃應奎의 자는 仲文이며 호는 松潤이고 본관은 昌原이다.

어릴 때에는 향리에서 수학하다가 청년시절부터 도산을 찾아가 퇴계 선생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아 학문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도산에서 수학할 때 孝節公(李龔巖)의 아들인 梅巖 李叔樛와 특히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독서를 즐겼으며 司馬試에 합격한 후에는 太學(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넓혔다.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52세 때인 선조 2년 己巳(156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丹陽郡守에 임용되면서 宦路에 나서게 되었으며, 단양 고을을 살 때에는 이 지방의 七弊를 시정해 주도록 상소문을 올려 실현시키기도 했다.

그후 豊基郡守를 역임한 송윤은 이때 지난날 퇴계선생이 백운동서원을 개축한 順흥의 紹修書院을 중수하고 童蒙齋를 새로 지어 면학을 장려하였으며 同敦寧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시문을 즐기면서 만년을 보냈다.

임진왜란이 평정되던 해인 선조 31년(1598년) 서거하니 81세였으며 사후 이조판서의 증직이 내려졌다.

梅巖 李叔樛

중종 13년인 1519년(己卯)에 陶山面 汾川에서 관찰사와 知中樞府使를 지낸 孝節公 龔巖 이현보 선생의 둘째 아들로 출생한 李叔樛의 자는 大用이요, 호는 梅巖이며 본관은 永川이다.

어릴 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25세 때인 중종 37년(癸卯) 司馬試를 거쳐 진사로 뽑히고 王子師傅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도산에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의 여러 관직과 직제학, 관찰사 등을 역임한 伯

兄(李仲樑·호 賀淵)과는 대조적으로 관직을 멀리했다.

학문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퇴계선생의 총애를 받았던 매암을 가리켜 선생은 같은 禮安 사람인 琴輔, 吳守盈 등과 함께 宣城三筆이라고 칭찬하였으며 일찍이 글을 보내어 『근래 日用行事に 스스로 깨달음이 어떠한가. 세속의 험란한 논의에 정신을 팔지 말고 斯道의 대업을 연구하여 卒修함이 나의 간절한 冀願이다. 君은 본래의 天分에 따라 학문에 조예가 깊으니 더욱 면학에 힘쓰라』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퇴계선생이 주자저필요를 편찬할 때에 매암이 自手로 謄寫하여 깊이 체득하고 전심전력으로 연구하니 선생이 文峯 鄭惟一에게 보낸 글에서 『李大用은 오직 주자서에 깊이 用力한다』라고 칭찬했다고 영남 인물고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직을 멀리하고 주자학 연구에 몰두하였던 매암은 硯經里 畫巖에 書堂을 창건하여 六經을 講誦하고 道學을 밝히는 곳으로 삼았으며 서당의 記를 지어 선생에게 물으니 선생은 그 書堂記 끝에 쓰기를 『그 문장이 맑고 넉넉하며 贍婉하고 바르며 사실을 서술함이 자세하며 記함이 실지에 지냈다.』고 하였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이 되어 73세의 노령을 무릅쓰고 의병을 모집하여 敵寇를 방어하려는 계책을 정하고 실행 중도에 서거하니 月川 趙穆이 제문을 지어 곡하기를 『재질도 있고 행실도 뛰어난 유림의 秀範이 되었으며 의병을 피하다가 중도에 홀연히 長逝하였도다.』라고 공의 遺事에 기록하였다.

사후 예안 硯經書院에 제향되었다.

靜齋 金德龍

명종 때의 문신인 金德龍의 자는 雲甫이고 호는 靜齋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중종 13년(1519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청년시절부터 아우 德鵬과 함께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학을 받아 학문이 뛰어났다.

司馬試를 거쳐 문과에 급제한 후 삼사와 성균관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다음 관직이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다.

특히 사간원과 사헌부 兩司에 재임 중일 때에는 조야의 선망을 받았던 정재는 당대의 문신 중 영의정을 역임한 李浚慶과 함께 청렴하고 덕망이 있는 인물로 손꼽혔다.

한편 정재의 아우로 퇴계 문하에서 훈학을 받은 金德鵬은 자를 成甫라고 하며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간원과 사헌부의 諫官을 역임한 다음 평안도 御史로 발탁되는 등 重望을 받았으나 40대 초에 요절함에 따라 빛을 보지 못하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했던 그는 평안도 어사로 활약할 당시 중국을 다녀오는 사신들의 비행을 엄히 문책하여 조정의 신임과 찬양을 받기도 했다.

惟一齋 金彦璣

중종 14년(1520년) 안동에서 출생한 金彦璣의 자는 仲昌이요, 호는 惟一齋이며 본관은 光州이다.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20세 될 무렵 동문인 栢潭 具鳳齡과 함께 淸涼山에 들어가 수년 동안 경서를 읽었으며 28세 때인 명종 2년인 1547년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寧海府學 敎官이 되었으나 문과에 응시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관직도 멀리한 채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도산에서 수학할 때 뒷날 문과에 급제하여 고위 관직을 역임한 명신이 된 西厓 柳成龍, 藥圃 鄭琢, 具栢潭 등과 친교가 두터웠던 유일재는 늦게야 도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수가 좋은 佳野에 書舍를 짓고 惟一이란 편액을 달아놓고 많은 후진들을 가르쳤다.

특히 이곳에서 동문 중 관직을 멀리한 後凋堂 金富弼 여러 형제와 晦谷 權春蘭, 松巖 權好文, 芝山 金八元 등과 자연을 즐기면서 講學하여 뒷날 이곳을 九仙臺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자주 모였던 문

인들이 9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의 학행은 이 지방 문인들에게 교화를 주었으며 이것은 또한 花山文學을 번성하게 한 창도자로 존경을 받게 했던 것이다.

퇴계선생 서거 후 廬江書院 설립을 처음으로 추진한 유일재는 이 지역에 있던 사찰 白蓮寺를 헐어 버리고 불상을 강물에 던져 버리자 승려들이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 위풍당당한 학자였다.

선조 21년(1588년) 69세를 일기로 서거한 후 향리의 龍溪祠에 제향되었다.

晚翠軒 李憑

공의 자는 輔卿이고 호는 晚翠軒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호조참판을 지낸 松齋 李堉 선생의 장손이다.

중종 14년 庚辰(1520) 陶山 溫溪里에서 출생한 후 16세때부터 아우 冲과 함께 從叔인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학을 받았으며 이때 선생은 만취헌에게 「四美亭」이란 軒額을 친히 써 주면서 면학을 지도하였고 만년에 溫溪 상류에 四美亭을 지어 여기서 거처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선생 易箒한 다음 해인 辛未年(1571년)에는 여러 문인들과 함께 易東書院에 모여 선생 문집 발간사업에 참여했던 만취헌은 學行으로 천거되어 副卒과 僉正 벼슬을 역임하였다.

선조 24년(1591년) 향리에서 향년 72세로 壽를 마쳤다.

梅軒 琴輔

중종 15년 辛巳(1521년)에 禮安에서 출생한 후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宣城三筆 중 제일인자로 필명을 떨친 琴輔의 자는 士任이요, 호는 梅軒이며 본관은 鳳城이다.

인종 원년인 1545년(丙午)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학문과 문예에 전념하여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특히 서예에 뛰어나 梅巖 李叔樑, 春塘 吳守盈과 더불어 宣城三筆이

라 칭찬을 받은 바 있지만 그 중에서도 首位의 평을 받은 일세의 절묘한 명필이었다고 영남인물고에 기록되어 있다.

사마시에 합격한 후 한때 太學에 유학하여 경서를 공부한 적도 있으나 관직을 멀리하여 문과에 응시하지 않고 문예와 서도에 정진하였다.

梅軒의 서예가 뛰어난 데 대하여는 龔巖 선생 喪事 때에 그집 상제들이 神道碑銘 글씨를 퇴계선생에게 간청한 바 있으나 선생은 제자인 매현이 쓰는 것이 좋겠다고 사양하였고 퇴계선생의 부친 贊成公의 墓碣文도 그에게 부탁하여 쓰게 할 정도였다.

그리고 퇴계선생의 墓碑는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세우게 됨에 따라 여러 문인들이 말하기를 선생의 碑文은 奇高峯이 아니면 가히 짓지 못할 것이요, 琴梅軒이 아니면 가히 쓰지 못할 것이라 공론하였던 바 드디어 공이 쓰게 되었다고 영남인물고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필재를 지녔던 그는 옛 성현의 名言善行을 座右에 써 놓고 항상 말하기를 「治心함은 한 敬字를 得할 뿐이요, 接人함에는 한 誠字뿐이요, 理家함에는 한 和字를 得할 뿐이라.」하고 이것을 써서 三字符를 만들었으니 공의 그 본원에 함양한 功은 여기에서 가히 엿볼 수 있겠다고 遺事에 적혀 있다.

선조 18년(1585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64세였으며 많은 필적을 남겼다.

春塘 吳守盈

선조 때의 문필가인 吳守盈의 자는 謙仲이요, 호는 春塘이며 본관은 高敞이다.

중종 15년인 1521년(辛巳) 禮安에서 출생한 그는 松齋 선생의 외손이라 어릴적부터 외가에 드나들면서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성리학의 연원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서예에도 뛰어났다.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同樞 이상의 관직에는 부임하지 않았으며 필력이 뛰어나 梅軒 琴輔 등과 함께 宣城三筆로 칭찬을 받았

다.

용모와 거동이 정숙하고 의리가 남달리 깊고 두터웠던 춘당은 詩律과 서예에 정성을 기울여 시가 절묘하고 필법에 特長이 있어 遁勁書에 필력이 있었다고 한다.

저술한 시문이 많았으나 병화에 모두 없어지고 시집 4권이 저서로 남았으며 선조 39년(1606년) 86세로 서거한 후 예안 南溪祠에 제향되었다.

鄒川 孫英濟

중종 15년인 正德 辛巳(1521년)에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孫英濟의 자는 德裕이고 호는 鄒川이며 본관이 밀양이니 고려 때의 문신 孫克讓의 후손이다.

어릴적부터 스스로 학문에 뜻을 두고 도산을 찾아들어 퇴계선생의 薰炙를 받아 학문이 뛰어났던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홍문관 사간원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사헌부 持平에까지 올랐으나 그 이상의 관직은 사양한 채 향리 밀양에서 학문에만 정진했다.

추천의 학문에 대하여 後凋堂 金富弼은 孫城主(孫鄒川을 가리킴)와 더불어 巖棲軒에서 토론할 때 九經에 精微하였고 퇴계선생도 그의 博學에 크게 감탄하였다고 뒷날 술회했다.

선조 7년 甲戌(1574년)에 도산서원을 건립할 때 禮安 烏川의 金後凋堂, 雪月堂 金富倫 등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 學規十條를 정하는 데에도 참여한 추천은 師門의 존경을 받았으며 선조 21년(1588년) 68세로 서거한 후 밀양 慕禮祠에 제향되었다.

藥峯 金克一

선조 때의 문신인 그의 자는 伯純이요, 호는 藥峯이며 본관이 義城이니 靑溪公 金璉의 아들이다.

중종 16년인 1522년(嘉靖 壬午) 安東府 臨河縣 川前에서 출생한 藥

峯은 어릴때부터 천성이 호매하고 영명하여 신동이라 칭찬을 받았으며 소년시절에는 家學으로 글공부를 하다가 약관 20세 무렵 도산으로 들어가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 재질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풍채와 언변이 남달이 빼어나 도산에서 수학할 때 器局이 중후하고 학문에 대한 열성이 돋보여 주위의 칭찬을 받았던 그는 司馬試를 거쳐서 27세 때인 명종 3년(1548년) 문과에 급제하여 校書館 正字에 임용되었으나 그후 자당상을 당하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3년 동안 喪禮를 받들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시문이 능하여 당시 詩家의 宗匠으로 추앙을 받았던 약봉은 명종 6년 辛亥(1551년) 承文院 正字로 복관된 후 著作과 博士를 거쳐서 명종 8년에는 승문원 注書로서 春秋館 書記官을 겸임하고 형조좌랑과 사헌부 監察을 역임한 뒤 명종 9년에는 洪原縣監으로 외직에 나가게 되었다.

명종 11년 丙辰(1556년) 충청도 都事로 전임되었다가 4년 뒤에는 예조정랑으로 다시 내직에 들어가 軍器寺 僉正을 역임한 다음 平海郡守에 임용되었으며 명종 21년 丙寅에 司宰 僉正으로 옮겼다가 곧 禮泉郡守에 부임하였다.

이 무렵 그의 뒤를 이어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한 네 아우 龜峯, 雲巖, 鶴峯, 南嶽 등 모두가 진사시와 생원시에 합격하고 셋째 아우 학봉은 문과에 급제하여 宦路에 나서게 되어 향중의 선망을 받게 되었다.

선조 즉위 후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했으나 선조 2년 己巳(1569년)에 성균관 司成에 올랐다가 司導寺正을 거쳐 星州牧使에 부임하게 된 약봉은 도산에 들러 易東書院에 보관 중이던 啓蒙翼傳書를 성주로 가져다가 판각하여 여러 곳에 배포함으로써 교학에 크게 공헌했으며 선조 8년(1575년)에 密陽府使로 전임된 후에는그 고을의 유학자인 松溪 申季誠이 살던 곳을 찾아서 遺墟碑를 세워 주는 한편 인근에 살았던 龍巖 朴雲의 효행을 찬양하여 銘을 지어 포상한 바 있다고 義城金氏靑溪公派世蹟인 景泗流芳에 기록되어 있다.

선조 13년 庚辰(1580년)에 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후 향리

에서 삼년상을 치루었던 약봉은 선조 15년 壬午에 다시 內資寺正으로 관직에 복귀하였다가 다음해 癸未(1583년)에 사헌부 掌劄에 올랐으나 이 무렵 東西分黨이 격렬해짐에 따라 이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친성이 명리에 담담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여러 관직과 다섯 고을을 살았으면서도 가난을 면치 못하였던 藥峯이 귀향 후 선조 18년(1585년) 서거하니 향년이 64세였다.

시문 등 遺稿는 聯芳世稿에 실려 후세에 전해지고 있으며 사후 靑溪公을 주벽으로 봉안한 안동 泗濱書院에 제향되었다.

思麓 朴淳

중종 16년(1522년) 서울에서 右尹 벼슬을 지낸 忠州人 朴祐의 아들로 출생한 그의 자는 和淑이고 호는 思麓이다.

어릴 때에는 花潭 徐敬德에게 훈학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31세 때인 명종 8년(1552년) 庭試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서 선조 때에는 대제학과 우의정 영의정 등 고위관직을 역임한 정치가이며 경세가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大任을 맡았던 사암은 사간원과 사헌부에 재임 중일 당시 후일 그와 같이 영의정에 올랐던 藥峯 李鐸 등과 함께 왕실의 척신으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히던 윤원형의 실정을 공박하고 퇴임을 진정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정의파이기도 했다.

그리고 선조 3년(1570년) 12월 선생 서거시 홍문관 대제학에 재임 중이던 사암은 의정부와 동료 문인들의 권고로 퇴계선생의 誌文과 行略을 지어 보냈으며 양조 판서를 거쳐 52세 때인 선조 5년(1572년) 우의정으로 승진되었다가 2년 후 영의정에 올라 14년 동안 국정을 주도하면서 사림정치의 기틀을 다졌다.

그러나 이율곡, 成午溪 등과 막역한 친교를 가졌던 그는 영의정 재임

중 東西分黨이 싹트기 시작하여 후일 서인의 대표적인 영수로 지목되었으며 동서분당이 확연히 드러난 후 관직에서 물러나 永平 白雲山 아래에서 시문을 즐기면서 은거하였다.

특히 시를 잘 하고 漢唐體 문장에 뛰어났던 그는 사암집 6권을 저서로 남겼으며 1589년 67세를 일기로 서거한 후에는 文忠公의 시호가 내리고 개성 花谷書院과 영평 玉屏書院에 제향되었다.

퇴계선생 사후 조정의 중신들이 시호를 내리도록 선조 임금께 상소할 때 행장이 문제가 되었으나 사암이 지은 誌文(墓誌)을 참작하여 시호를 내리도록 조정 중신들이 간청하였으며 그후 誌文과 行略이 참작되어 1576년 文純公의 시호가 내려졌던 것이다.

忍齋 權大器

權大器의 자는 景受이고 호는 忍齋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중종 17년(1523년) 안동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도산에 들어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司馬試에 합격한 忍齋는 성균관에 유학하여 경학에 통달하였으나 관직에 뜻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채 고향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천성이 순후하고 검약하여 명리를 싫어한 그는 효제 충신을 실천하는데 학문의 참뜻을 찾았으며 伊溪에 서당을 세우고 인근지방의 청장년을 가르치니 그 문하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시문에도 능하여 많은 유작품을 남겼던 忍齋는 선조 20년인 1587년(丁亥)에 서거하니 향년이 65세였다.

사후에는 宦路에 나아가 原從功勳을 세운 아들 宏의 공로로 사헌부 執義의 증직을 받았으며 안동 龍溪祠에 제향되었다.

開巖 金宇宏

선조 때의 문신인 金宇宏의 자는 敬夫요, 호는 開巖이며 본관이 의성이니 府使를 지낸 七峰 金希參의 아들이다.

중종 18년(1524년) 성주에서 출생하여 뒤에 상주로 이사한 개암은 초년에 아우 東岡과 함께 南冥 曹植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늦게야 퇴계 선생 문하로 들어와 가르침을 받았다.

성품이 관대하고 孝悌의 정이 남달리 두터웠던 그는 28세때인 명종 7년(1552년) 司馬試에 장원으로 뽑히고, 명종 21년(1566년) 문과에 급제하여 翰林에 들어가면서부터 宦路에 나섰다.

그후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삼사의 正字 修撰 正言 持平 등 여러 관직을 거쳐서 의정부 속인을 역임한 다음 사간원 大司諫과 성균관 大司成, 忠淸監司를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홍문관 副提學에 부임한 다음에는 관직에서 물러났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서기 전인 명종 20년(乙丑)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승려로 政事에 참여하고 있던 요승 普雨를 축출하도록 앞장서서 상소를 하기도 했던 개암은 경연에 나아가 講을 할 때나 사간원에 재임 중일 때 임금에 여러 차례 直諫하여 미움을 사기도 했고, 같은 해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있던 아우 東岡이 乙丑 獄事에 연루되어 함경도 會寧으로 유배된 관계로 그 영향을 받아 외직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선조 16년(1583년) 홍문관 副提學에 부임하였을 때에는 이율곡과 사이가 나빠 서인들의 미움을 사기도 한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선조 23년(1590년) 우거지 尙州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67세였으며 사후 상주 凍水書院에 제향되었다.

개암의 행장에 「일찍이 退陶와 南冥의 門에 놀았고 또 어진 아우가 있어 서로 切磋하여 문장이 일세가 師表가 되었다.」고 嶺南人物考에 기록되어 있다.

月川 趙穆

중종 18년(1524년) 禮安 月川에서 출생하여 퇴계선생의 薰炙를 받아 학자로 대성한 趙穆의 자는 士敬이요 호는 月川이며 본관이 橫城이

니 이조참관의 증직을 받은 趙大春의 아들이다.

어릴때부터 공부를 즐겨 12세 무렵에 이미 四書와 三經을 다 읽은 월천은 15세 때에 퇴계선생 문하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수학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朱子大全과 近思錄 등을 읽으면서 경학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28세 때인 명종 6년(155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해에는 生員會試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그후 선조 원년(1567년) 44세 때 성균관의 추천에 올라 集慶殿 參奉에 피임되었으며, 1570년(庚午) 퇴계선생께서 易箒함에 3년 동안 布帶를 하고 素食으로 喪禮를 받드느라고 향리 도산을 떠나지 않았다.

이 무렵 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채 선생의 言行總錄을 짓고 연보를 기초하였으며 탈상한 후 52세 때인 선조 8년(1575년) 學行으로 천거되어 宗簿寺 主簿와 공조좌랑, 奉化縣監 등에 제수되면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맡겨지는 관직 모두에 부임하지는 않았지만 뒤이어 宜寧縣監을 비롯하여 高靈·新寧縣監과 慶尙·全羅·忠淸道都事, 盈德縣令, 錦山·丹陽·陝川郡守, 工曹正郎, 襄陽府使, 尙衣院正, 禮賓寺正, 掌樂院正, 工曹參議 등을 제수받은 후 工曹參判에 올랐다.

임란이 일어나기 전 합천군수로 재임 중일 때에는 당시 조정에서 일본과 강화하려 함을 알고 宣慰使 李德馨을 통하여 「李汝受(鵝溪 李山海의 字)가 領相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고 일본과의 강화를 배척하기도 한 월천은 관직에 천거될 때 의정부와 이조가 동의하여 學行으로 저명한 선비 5인을 천거할 때 首位를 차지할 만큼 학행이 뛰어났던 것이다.

당대 京鄕 각처의 文人和 碩士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퇴계선생 門徒 중 월천이 柳西厓 奇高峯 鄭寒岡과 함께 退門의 高弟子였던 것은 뒷날 月川文集 서문을 지은 許眉叟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관직보다 학문에 큰 뜻을 두어 困知雜錄, 朱書抄, 閒中雜錄, 月川文集 등 저서를 남긴 그가 선조 39년(1606년) 서거하니 향년이 83세였

으며 사후 陶山書院과 醴泉書院, 奉化 昌海書院의 퇴계선생 廟宇에 從享되었다.

芝山 金八元

金八元의 자는 舜擧이고 호는 芝山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중종 19년인 1524년(嘉靖 甲申) 안동에서 출생한 지산은 일찍이 愼齋 주세붕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의 기본을 닦은 다음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와서 성리학에 관한 폭넓은 학문을 성취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던 학자이다.

처음 登門할 때에는 퇴계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무렵이라 趙月川, 具栢潭 등 도산에서 薰炙를 받던 문인들이 풍기로 모여들었고 이들과 함께 후일 紹修書院으로 개축된 백운동서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퇴계선생은 처음 登門한 그의 문장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주기도 했으며 그후 명종 11년(1555년) 32세 때 司馬兩試에 합격한 뒤 문과에 급제하여 湖堂에 올랐다가 몇 고을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현감 이상의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한 지산은 선조 39년(1605년) 서거한 후 안동 仁溪書院에 입향되었다.

把淸亭 金富儀

金富儀의 자는 愼仲이고 호는 把淸亭이며 본관이 光山이니 관찰사를 지낸 金綠의 아들이자 後凋堂 金富弼의 아우이다.

중종 19년인 嘉靖 乙酉(1525년) 예안 烏川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薰炙를 받은 그는 법도와 예절이 바르고 조석으로 공부에 열중하여 선생의 칭찬을 받았다.

다른 동료들처럼 과거에 응하지 않자 어느 문인이 선생에게 묻기를 「金某는 早時부터 과거에 응하지 않으니 어찌함입니까.」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독실하기 때문이다.」고 그의 학문에 열중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선생의 총애를 받으면서 과거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던 把淸亭은 30세가 넘은 명종 10년(1555년)에야 주위의 권유로 司馬試에 응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문과에는 응하지 않았다.

학행이 뛰어났던 그는 易東書院을 창건할 때 수많은 名儒碩學이 있음에도 서원 일을 주관하는 山長에 천거될 만큼 청년시절부터 사림의 선망을 받았으며 사마시에 합격한 후 학행으로 추천되어 참봉이 주어졌으나 이내 곧 사임하고 학문에만 정진했다.

천성이 검소하여 나이 50이 넘은 후에도 값진 명주옷을 입지 않고 子侄 중에 값진 옷을 입은 자가 있으면 파청정은 안색을 변하여 훈계하기를 「先考께서는 직위가 재상에 이르러서도 무명옷(綿衣)을 입으셨는데 너희들은 寒土로서 좋은 옷을 입으니 자제의 도의에 어긋나도다。」하였다고 朴惺公이 지은 墓碣에 쓰여 있다.

毅齋 金悌甲

선조 때의 문신인 金悌甲의 자는 順初요 호는 毅齋이며 본관이 안동이니 명종 즉위초에 일어난 을사사화 때 희생당한 명신 金忠甲의 아우이다.

중종 19년(1525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19세 때에 先鄉인 안동으로 내려와 퇴계선생의 薰炙를 받았으며 司馬試를 거쳐서 29세 때인 명종 8년(1553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홍문관과 世子侍講院, 성균관의 正字, 修撰, 典籍, 司書, 直講, 司成 등 여러 관직을 거쳐서 原州牧使에 올랐던 毅齋는 선조 25년(1592년) 原州城을 사수하다가 순직하니 향년이 68세였다.

선조가 세자로 있을 때, 王子師傅를 역임한 바도 있는 그가 원주성을 지키다가 순절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선조는 「一隅孤城萬古三綱」이란 글을 내려 애도하고 충절을 찬양하는 한편 영의정의 증직과 文肅公의 시호를 내렸다.

그후 현종 때에는 고려 때 무신 元冲甲 上將軍과 함께 원주 忠烈祠에 제향되었다.

南峯 鄭芝衍

鄭芝衍의 자는 衍之이고 호는 南峯이며, 본관이 동래이니 영의정을 역임한 文翼公 鄭光弼의 증손이다.

중종 19년인 1525년(嘉靖 乙酉)에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履素齋 李仲虎에게서 수학하다가 성인이 된 후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심오한 학문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명종 때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후에도 학업에 정진하다가 퇴계선생의 추천으로 선조가 세자로 책봉된 후 韓胤明과 함께 王子師傅가 되어 세자를 가르쳤다.

그후 敎官에 선발되었던 南峯은 선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해인 1569년 45세 때에야 문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역임하게 되었으며 선조 14년(1581년)에는 드디어 우의정에 발탁됨으로써 三相의 자리에 올랐으나 2년 후인 1581년 서거함으로써 그 이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 퇴계선생 易簣 후 鄭圃隱선생의 연원을 이어받은 선생의 학문은 동방의 최고봉이라는 輓詩를 지어 남기기도 한 남봉은 조정에 있을 때 선생에게 시호를 내리고 문묘에 從祀토록 진언하기도 했다.

사후 文獻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忍百堂 金樂春

중종 19년인 嘉靖 乙酉(1525년) 안동에서 출생한 金樂春의 자는 泰和, 호는 忍百堂이며 본관은 순천이다.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21세 때인 인종 원년(1545년) 생원 진사 兩試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 응하지 않은 채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재질이 뛰어나 문장과 문예에 능하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忍百堂은 중년에 相臣인 李東臯의 천거로 관직에 나갈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학문에만 정진하였으며 만년에는 문경으로 이거하여 瀟陽洞에 映流亭을 짓고 후진을 훈학하는 데 힘썼다.

효행이 뛰어나 사림을 존경을 받았던 인백당은 선조 19년(1586년) 서거한 후 瀟陽祠에 제향되었다.

栢潭 具鳳齡

본관이 綾州인 具鳳齡의 자는 景瑞이며 호는 栢潭이고 중종 21년인 1526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릴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六經에 밝았던 그는 문장과 행실이 뛰어나다고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21세 때인 명종 원년(1546년)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명종 15년(1560년) 문과에 급제하여 翰林에 들어가면서 宦路에 나섰다.

그 뒤 홍문관 正字에 부임하였다가 文科庭試에 장원으로 뽑혀 修撰에 오르고 湖堂, 의정부 舍人을 거쳐 홍문관 直提學에 올랐으며 이때 권신으로 세도가 당당하던 우의정 尹元衡의 죄과를 앞장서서 거론하여 다른 동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정의파였다고 한다.

뒤이어 승정원 承旨에 임용되었다가 성균관 大司成, 사간원 大司諫, 홍문관 副提學을 차례로 역임한 후 이조참의에 제수되었다.

大司成에 재직 중일 때에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풍을 진작시키고 선비들의 風度를 새롭게하여 조야의 격찬을 받기도 한 백담은 그 후 외직에 나가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사헌부 大司憲, 예문관 提學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냈다.

그러나 이때 이미 동서분당에 대한 논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초연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온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經籍을 토론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이에 당시 고관직에 있던 동료 문인 柳西厓는 「其如 江河之潤 山岳之重」이라고 찬양하였다.

문장에도 뛰어났던 백담은 선조 19년(1586년) 향년 61세로 안동에

서 서거하였으며 사후 文端公의 시호가 내리고 안동 周溪書院에 제향되었다.

藥圃 鄭琢

임진왜란 때의 공신인 鄭琢의 字는 子精이요, 호는 藥圃 또는 栢谷이며 縣監을 지낸 鄭元老의 증손이나 본관이 청주이다.

중종 20년인 1526년(嘉靖 丙戌) 안동에서 출생하여 17세때부터 숙부인 竹舍(鄭以淸)와 함께 陶山으로 들어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薰炙를 받은 후 27세 때인 명종 7년(壬子年) 司馬試에 합격한 약포는 33세 때인 1558년(戊午年) 3년마다 실시되는 式年試 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서서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한 정치가이다.

급제 후 翰林과 三司의 하위직 여러 관직을 거쳐서 명종 21년인 1566년 정6품인 司諫院 正言에 올랐다가 뒤이어 獻納, 持平, 修撰, 校理, 都承旨, 大司成, 江原監司, 漢城判尹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조 14년(1581)에는 司憲府 大司憲에 올라 正論을 폈다.

그러나 이때 뒷날 四色黨爭의 주동인물이 된 掌令 鄭仁弘 및 持平 朴光玉 등 수하의 관리들과 의견이 맞지않아 吏曹參判으로 전임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進賀使로 선발되어 명나라를 다녀 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선조 3년 퇴계선생 서거시 弘文館 應教에 재임중이던 약포는 선생에게 익호를 내리도록 임금에게 간곡히 진언했다고 退溪集 崇終 獻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隆慶(선조 3년) 庚午 12월 16일 夕講에 정탁이 아뢰기를 “우리 동방에 학문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였지마는 그 조예의 精하고 깊음과 그 실천하는데 순수하고 굳음에 있어서 오직 이 한사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 나아가고 물러남이나, 사양하고 받음은 다 뒷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였사웁니다. 다만 밝은 임금을 만났으나 병으로 물러간 뒤로는 여러번 불러도 오지 않았사웁니다. 그러하오나 성상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일찍이 잠깐도 잊은 적이 없었사웁니다.”하였더니, 임금은 “그가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특히

의원을 보냈으나, 미처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그 슬픔과 한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탁은 다시 “성상께서 대신을 우대하심이 극진하시어 모자람이 없다 하겠사오나 반드시 그 도를 실행한 뒤에야 비로소 어진 이를 대우하는 도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늦게 登門하였으면서도 박학다식하여 경서는 물론 천문, 지리, 상수, 병법 등에 정통하였던 약포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 25년(1592) 의정부 左贊成에 있으면서 李舜臣, 郭再祐, 金德齡 등 명장을 발탁하여 전란에 대처하게 하는 한편 義州까지 임금을 扈從하였으며 이듬해에는 迎慰使로 발탁되어 宋應昌이 이끈 명나라 援軍들을 영접하기도 했다.

1594년 同鄉 同門인 領議政 柳西厓의 천거로 右議政에 올라 전란에 공헌하다가 선조 30년(1597)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몸소 전장에 나가 관민들의 사기를 돋우고자 했으나, 임금이 그의 연로함을 들어 만류함에 따라 관직에서 물러났다.

전란이 끝난 후인 선조 33년(1600) 다시 左議政에 등용되었다가 判中樞府事를 거쳐 1603년 領中樞府事가 되고, 이듬해인 선조 37년 扈從功臣 3等으로 西原府院君에 책봉되었으며 奉朝賀에 이르렀다.

宦路에 나선 이후 外家가 있는 곳인 醴泉으로 移居한 약포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예천에 은거하다가 1605년(선조 38년) 80세를 일기로 서거하니 사후 貞簡公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예천 道正書院에 제향되었다.

日休堂 琴應夾

중종 21년(1526. 嘉靖 丙戌) 禮安 烏川에서 출생한 琴應夾의 字는 夾之이고 호는 日休堂이며 본관은 奉化이다.

어려서부터 도산에 들어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薰炙를 받으면서 晩學에 수범을 보인 그는 선생의 사랑을 받아 ‘日休扁其堂’이란 堂號를 얻기도 하였으며 여러 동문 가운데 趙月川, 金鶴峯, 柳西厓 등과 서로 공경

하고 신뢰하는 우의를 가졌다.

이에 대하여는 柳西厓가 일찍이 그 子姪들을 경계하는 훈화에서 “너희들이 小學의 實行人을 보려면 琴日休를 보아라. 그것이 곧 小學 그대로이다. 그의 一言一行이 가히 후세의 모범이 될 것이니 용모의 단정함과 자품의 순수함이며 才學의 아름다움은 본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찬양하였다고 嶺南人物考에 기록되어 있다.

30세 때인 明宗 11년(1555)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후에도 학문에만 뜻을 두어 經學에 정진해 오던 日休堂에게 선조 8년(1574) 朝臣의 천거로 집현전 參奉과 王子師傅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가 62세때인 宣祖 21년(1587) 學行으로 추천되어 河陽縣監에 피임되니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그후 翊贊을 역임한 그는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한 아우 勉進齋 應燾과 함께 향리 烏川에서 여생을 보냈다.

자가 燾之인 勉進齋도 일찍부터 도산에서 수학하여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學行으로 추천되어 縣監을 역임하였다.

烏川마을은 일휴당 형제 외에도 다섯 從班이 함께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나란히 진사가 된 後凋堂 金富弼 一門이 世居하던 곳이라 도산을 드나들던 鄭寒岡이 일찍이 ‘烏川 한마을은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예찬한 것은 이들의 문헌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1570년(庚午) 퇴계선생이 易簣한 후 일휴당 형제 모두가 喪禮의 從事로 활약하였고 다음해 小祥때까지 흰띠를 매고 어육을 금한 素食을 했다는 것은 학문을 숭상하는 眞儒의 일면일 것이다.

일생 동안 학문에 정진하여 心經質疑 등의 저서를 남긴 일휴당은 임란 중인 선조 30년(1596) 71세로 서거한 후 禮安 洛川祠에 제향되었다.

竹川 朴光前

선조 때의 문신이자 호남의 巨儒인 朴光前의 자는 顯哉요 호는 竹川

이며 본관은 珍原이다.

중종 21년(1526) 전남 寶城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여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11세때에 그곳을 지나던 관찰사에게 어른과 같은 시를 지어주어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소년시절에 이미 사서와 삼경을 읽고 특히 경학에 능했던 죽천은 30세가 지난 뒤에 퇴계선생의 명성을 듣고 도산으로 가서 퇴계선생에게 주자학에 대한 훈학을 받았으며 떠날때에는 朱子書節要를 구해 갔다.

그후 42세 때인 선조 2년(1568) 처음 司馬試에 올라 진사가 되었고 이때 修撰으로 있던 眉巖 柳希春이 學行과 德望이 뛰어난 호남지방 선비 5인을 추천할 때 죽천이 수위로 천거되어 참봉이 되고 곧 王子師傅에 등용되면서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그후 咸悅縣監과 懷德縣監을 역임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軍資正에 피임되어 의병 7백여명을 모병하여 왜적과 항전하였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의병장에 추대되어 왜적과 싸우다가 이 해(선조 31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72세였다.

사후 이조판서의 중직과 文康公의 시호가 내렸으며 寶城 龍山書院에 향사되었다.

학자로서 그의 名聲은 후일 牛山 安邦俊이 논평하였듯이 河西 金麟厚, 高峯 奇大升, 一齋 李恒一, 眉巖 柳希春, 竹川 朴光前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 五賢의 한사람이었던 것이다.

鷺渚 李陽元

선조때의 공신인 李陽元의 자는 伯春이요 호는 鷺渚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중종 20년인 1526년(嘉靖丙戌) 서울에서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履素齋 李仲虎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서 심오한 학문을 닦았다.

16세 때에 이미 사마시에 합격할 정도로 재능과 학문이 뛰어난 그는

31세 때인 明宗 10년(1556) 문과에 급제하여 藝文館 奎章閣 弘文館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다음 明宗 18년(癸亥) 書壯官으로 선발되어 명나라 서울을 다녀왔으며 이때 鷺渚는 宗系辨誣에 큰 공을 세웠다.

宣祖 즉위 후 都承旨가 되었다가 大提學을 역임한 후, 宣祖 23년(1591) 우의정에 올랐으며 이 해에 앞서 宗系辨誣의 공적으로 光國功臣 三等에 훈록되고 漢山府院君에 봉군되었다.

다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留都大將에 임명되어 都元帥 金命元과 함께 漢陽城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楊洲지방에 왜적이 침입했다는 전갈을 받고 현지에 종군하여 南兵使 李渾과 副元帥 申恪을 독려하여 해유령 고개에서 왜적을 격파하는데 무공을 세웠다.

이후 곧 영의정에 올랐으나 임금이 피난중인 평양이 함락되어 선조 임금이 요동으로 몽진하여 內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기에 처한 國運을 걱정하여 8일 동안이나 食飮을 전폐한 끝에 서거하니 향년이 67세였다.

사후 文憲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任亂功臣錄에 올랐다.

高峯 奇大升

성리학자인 奇大升의 자는 明彦이요, 호는 高峯 또는 存齋라 하였고 본관이 幸州이며 중종 21년인 1527년 光州에서 출생하였다.

어릴적부터 才質이 뛰어나 독학으로 학문을 익혀 15세 때에 이미 ‘西京賦’를 지었고 19세에 사림의 禍를 슬퍼하여 ‘自警說’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였던 고봉은 23세 때인 明宗 4년(1549) 사마시에 합격하고 23세에 式年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에 초임되면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이 해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기 위해 서울에 체류중인 퇴계선생을 찾아가서 제자의 예를 갖추고 이후부터 성리학의 심오한 뜻에 대해 薰炙를 받게 되었으며 그후 10여년에 걸쳐 저 유명한 四端七情說에 대한 사제간의 논변을 전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성리학이 이때 퇴계선생과 고봉 간의 왕복 논변으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 따라 고봉은 퇴계선생의 수 많은 문인 중에서 가장 得意한 제자라고 후세 유학자들은 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퇴계선생도 고봉이 문하에 들어온 후 일찍이 그에게 英發의 氣와 棟樑의 具로서 東方의 絶學을 창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 조정에 나갈 때 “朝臣 중에 누가 학문을 잘 하고 있느냐”는 선조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기대승이 능히 문자를 博覽하였고, 理學에 있어서도 뛰어난 造詣를 지녔는 만큼 가히 通儒라 이를 수 있겠습니까.”고 대답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고봉은 弘文館 敎理를 거쳐 司諫院 司諫에 재임 중일 때에는 신진사류의 영수로 지목되어 훈구파에 의해 관직에서 밀려나기도 했으나 명종 2년 다시 종사관으로 복관되었으며 뒤이어 右副承旨에 제수되어 侍講官을 겸직하기도 했다.

선조 2년(1569) 刑曹參議와 成均館 大司成에 전임되었고 선생 易簣 무렵에는 다시 파직되었다가 곧 홍문관 副提學으로 복관되었으며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선조 5년(1572)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 중 전라도 高阜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46세였다.

아까운 나이에 요절한 선생에게 선조 23년(1590) 생존시 宗系辨誣의 주문을 쓴 공으로 光國功臣 三等에 추록되고 德原君에 추봉되었으며 吏曹判書의 증직과 文憲公의 시호가 내리고 光州 月峯書院에 제향되었다.

서예에도 능하고 高峯集, 論思錄, 朱子文錄 등의 저서를 남긴 그는 문장에도 뛰어나 선생 역책 후 여러 문인들의 추천으로 선생의 墓碣銘을 찬하는 행운을 차지했던 것이다.

漫浪 李穡

공의 字는 魯卿이고 호는 漫浪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松安君의 후손이

요 大司憲을 지낸 貞愍公 溫溪선생의 아들이다.

중종 21년 丁亥(1527) 陶山 溫溪里에서 출생한 만량은 어릴적부터 숙부인 퇴계선생 문하에 드나들면서 薰陶를 받아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며 만년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縣監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진실하고 순박하면서도 內直外和하여 주위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특히 선생의 총애를 받게 되어 訓學을 받을 때 “장차 덕이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으며 선생 易箒하기 직전 여러 子侄 중에서 公에게 명하여 예장을 사양할것과 油密果를 쓰지 말 것, 비석을 세우지 말되 조그마한 돌에 간략하게 새길 것, 선대의 墓碣을 새겨 세울 것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遺戒를 쓰게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이처럼 집안과 주위의 기대와 신망을 받았던 公이 만년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현감을 역임한 후 선조 21년(1588) 향년 62세로 서거하니 대제학과 영의정을 역임한 당대의 名儒 白沙 李恒福이 찬한 墓碣銘에서 ‘傳德襲訓 有家庭之教’라 학덕을 찬양하였다.

東岡 南彦經

선조 때의 문신인 南彦經의 자는 時甫이고 호는 東岡 또는 靜齋이며 본관이 宜寧이니 永興府使를 지낸 南致勗의 아들이다.

중종 22년(1528)에 출생하여 일찍이 花潭 徐敬德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청년시절부터 멀리 陶山으로 내려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심오한 학문을 배워 학문이 뛰어났던 동강은 특히 經學에 능하였으며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에 응하지 않았으나 39세 때인 명종 21년(1566) 韓脩 등과 함께 學行으로 吏曹에 천거되어 참봉이 되고 뒤이어 홍문관 正字와 修撰·持平, 縣監, 吏曹佐郎을 거쳐서 사헌부 지평과 承政院 承旨에 오른 다음 만년에는 종2품인 全州府尹을 역임하였다.

楊州牧使로 재임중일 때에는 文正公 趙靜庵선생을 추앙하여 양주에 道峯書院을 창건하였던 동강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楊根 고을 靈川洞에 돌아가 학문에 열중하였다.

일찍이 아우 南彦紀와 함께 서울에서 도산의 퇴계선생 문하에 찾아들어 수학하였던 동강은 사후 조정암선생을 봉향한 楊根의 迷源書院에 배향되었다.

龜峯 金守一

중종 22년 戊子(1528) 安東郡 臨河面 川前洞에서 출생한 金守一의 자는 景純이고 호는 龜峯이며 본관이 義城이니 靑溪公 金璉의 아들이자 藥峯 金克一의 아우이다.

기품이 청수하고 용모가 단정 엄숙한 龜峯은 가훈에 따라 소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며 특히 心經을 깊이 연구하여 人心道心說에 관해 일가견을 가졌고 시와 문장에도 능하여 주위의 선망을 받았다.

28세 때인 명종 10년(1555) 生員試에 합격한 후 여러차례 鄉試에 장원으로 뽑혔으면서도 관직을 멀리하여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채 臨河 천변 傳巖에 정자를 짓고 학문을 닦으면서 향리에 남아 奉祭祀와 접빈객에 정성을 다했다.

이 무렵 명절 때마다 향리 선비들과 전암에 세운 정자에 모여 詩會를 즐긴 구봉은 子侄을 가르치고 후생을 교도하는 등 어진 일에 솔선수범하여 향중과 인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매사에 강직하고 과단성을 지녀 모든 사람들이 心復하였다고 <景泗流芳>(義城金氏靑溪公派世蹟)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가사에 전념하던 龜峯은 집안의 권유에 따라 42세 때인 선조 2년(1569) 雲巖 南嶽 등과 향시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해인 庚午年(1570) 두 아우와 함께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였으나 불행히도 운암이 병을 얻게 되자 남악만 응시케 하고 운암을 간호하면서 귀향중 龍仁郡 金亮驛에서 아우를 잃는 참변을 당했다.

이때 金亮驛에서 병사한 운암은 龜峯보다 여섯 살 아래인 季弟로 형

들을 따라 도산서당에서 수학한 후 명종 19년 甲子(1564)에 鶴峯, 남악 등 두 아우와 同榜으로 진사와 생원 兩試에 합격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향리에 머물러 있다가 경오년(선조 3년)에야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37세로 요절한 것이다.

이런 참변을 당한 후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 연구와 자질들의 훈화에 정성을 쏟아오던 龜峯은 선조 16년 癸未(1583) 學行으로 천거되어 自如道察訪이 주어지자 신병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임금에게 사은한 후 서울 여관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56세였다.

그의 文翰은 雲川(兵曹參議)과 大朴(進士)등 두 자제에게 계승되었으며 遺文은 聯芳世稿에 실려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후 安東 泗濱書院에 배향되었다.

無盡齋 朴愼

朴愼의 자는 汝欽이요 호는 無盡齋이며 본관은 密陽이다. 중종 24년인 1529년 大邱에서 출생하여 어릴때부터 家學으로 공부하여 학문이 뛰어났다.

청성이 곧고 올바르고 배우기를 즐겨하여 소년시절에 이미 경서와 백가의 典籍을 탐독하였고 20대에는 향시 등 大小科擧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으나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다.

이때 마침 퇴계선생의 명망이 널리 알려져 京鄕 각처의 선비들이 도산으로 몰려들자 그도 퇴계 문하에 들어와 심오한 학문을 수학하게 되었으며 도산을 드나들면서 趙月川 金東岡 黃錦溪 權松巖 李龜巖 등 여러 문인들과 친교를 맺고 도학을 토론하여 학덕을 쌓게 되었다.

무진재는 이때 퇴계선생으로부터 <晚悟篤志>란 친필 글을 받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선생의 권유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 무렵 퇴계는 명종의 부름을 받아 여러차례 사양해 오던 관직에 나가 성균관 大司成에 부임하게 되었고 이때 조정에서는 성균관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문학과 行儀가 뛰어난 선비를 간택하여 東西南北方에 신설

한 學堂의 교수로 임명하게 되었는데 퇴계의 추천으로 西學教授에 피임되었던 것이다.

이후 퇴계선생이 대사성에서 물러난 후에는 영의정 李浚慶의 천거로 童蒙 敎官에 피임되었으나 그 이상의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인 1593년(선조 27) 65세로 수를 마쳤다.

惺惺齋 琴蘭秀

琴蘭秀의 자는 聞遠이요 호는 惺惺齋이며 본관은 奉化이다.

중종 25년인 1530년(嘉靖 庚寅) 禮安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趙月川을 따라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월천이 “君은 나의 벗이라, 나와 함께 李 선생을 뵈우고 가르침을 받자”고 말하자 20세 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薰炙를 받았다.

성리학에 관한 여러 서책을 읽고 가르침을 받은 성성재는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그후 學行으로 추천되어 縣監과 翊衛를 역임하였다.

선조 31년(1597) 정유재란에서 명나라 원군이 영남지방에서 왜병과 항전할 때는 安東府 守城將으로 피임되어 원군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군무를 주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방은 왜적의 침략에서 보호되었고 이때의 功으로 사후 錄勳을 받고 左承旨의 증직을 받았다.

선조 33년(1599) 향년 70세로 서거한 후 禮安 東溪祠에 제향되었다.

山南 李淳

중종 24년(1530·庚寅) 경북 星州에서 출생한 李淳의 자는 子眞이고 호는 山南이며 본관은 鐵城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고 퇴계선생 문하를 찾아 들어 薰炙를 받게 되면서 심오한 학문의 경지를 넓혔으며 특히 성리학에 능하고 예학에도

밝았다.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오직 학문에만 열중하던 산남은 62세때인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 성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약하면서 큰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적으로 참봉 벼슬이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고 학문에만 일념한 그의 학행에 대하여 鄭寒岡도 항상 산남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높이 치하했다고 한다.

선조 39년(1606) 77세를 일기로 서거한 후 사림의 천으로 柏谷 鄭崑壽선생과 함께 성주 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八谷 具思孟

선조때의 문신인 具思孟의 자는 景時이고 호는 八谷이며 본관은 綾州이다.

중종 26년(1531)에 출생하여 20세무렵부터 퇴계문하에서 수학한 팔곡은 司馬試를 거쳐서 28세 때인 명종 14년(1558) 式年 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급제 후 한림과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삼사의 여러 관직과 이조정랑과 참의를 거쳐 이조참판에 올랐고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자를 扈從하여 의주까지 피난하는 한편 1594년(선조 28)에는 왕비를 시종하여 해주까지 피란케하는 扈從官으로 활약했다.

그후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 때에도 왕자와 후궁을 시종하여 成川으로 피난하였으며 전란이 평정된 후 靖難功臣에 훈록됨과 동시에 左贊成에 오르고 뒤이어 知經筵事를 역임하였다.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고결하여 권문세가들과 멀리 하였음에도 沈義謙 등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동서분당이 일어났을 때 서인편에 서게 되었다.

문장과 시문에도 뛰어나 八谷集을 저서로 남긴 팔곡은 뒤에 다섯째 딸이 仁獻王后로 간택됨에 따라 綾安府院君에 추봉되었다.

1604년(선조 38) 74세로 서거한 후에는 文懿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雪月堂 金富倫

중종 25년 辛卯(1531) 禮安 烏川에서 출생한 金富倫의 자는 惇叔이고 호는 雪月堂이며 본관이 光山이니 兵馬使를 지낸 山南 金富仁의 아우이다.

소년시절부터 형 富仁을 따라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자를 받은 그는 16세 때에 글을 읽다가 程明道선생이 16세에 周濂溪와 더불어 道를 논의하는데 이르러 慨然히 求道の 뜻이 있어 탄식하기를 “吾年이 또한 이 시기라.”하고 責沈詩를 지은 다음 책을 지고 陶山에 들어가 心經 太極圖 義理疑目 啓蒙傳疑 등에 대해 착실하게 공부하니 퇴계선생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 立志의 돈독함을 찬양하였다.

일찍이 司馬試에 급제하여 進士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大科에 응하지 않은 채 학문에만 열중하던 설월당이 50대가 지난 후 學行으로 추천되어 同福縣監에 발탁되었을 때에는 孔子廟를 건립하고 봉급을 털어 8백여권의 서책을 구입하는 한편 학칙을 제정하여 학문을 권장하니 이 지방에 유학의 풍습이 크게 일깨워졌다.

그리고 公의 나이 62세 때인 선조 25년(1592) 임란이 일어나 왜적의 침입이 눈앞에 다가오자 가산을 바쳐 의병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으로 경상감사에게 글을 올려 왜적을 방어할 계책 三條目을 제안했으며 이때 奉化縣監이 관직을 버리고 떠나버리자 노령의 몸으로 다시 봉화현감에 등용되어 난중에 시달리는 지방민들을 안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선생 서거 후 素食을 하면서 1년 동안 心喪을 치루면서 제자의 예의를 다 했던 설월당은 선생의 언행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으니 그 대표적인 언행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안동부사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안동에 사는 어떤 사람이 혼인

이 있었기 때문에 뵈옵고 치하하고는 고기 반찬을 선생에게 올렸다. 선생은 사양하다 마지못하여 두고 가라고 이르고는 그 사람이 간 뒤에 곧 사람을 시켜 돌려 보냈다.

선생이 처음으로 通政에 오르니 趙松岡(土秀)이 비단옷(堂土服)을 보내 왔다. 그러나 선생은 받지 않았다. <金富倫>

정묘년에 선생은 여러번 부르심을 받아 부득이 벼슬에 나아갔다. 6월 13일 龍壽寺에서 자면서 선생은 “벼슬을 하직하고 물러나는 것은 옛날부터 있는 일인데 우리 동방에서는 으레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신하로서 매우 난처한 일이라.”하였다. 부윤이 “임금이 일을 맡겨 오래 부리다가 갑자기 사퇴함을 들어 준다는 것은 인정에 차마 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宋나라 조정에서는 억지로 벼슬을 그만두게 했으니, 이도 또한 신하를 대접하는 두터운 길이 아닌가 합니다.”하였더니 선생은 다시 “박한 듯하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대는 생각해 보라.”하였다.<金富倫>

임란이 평정된 선조 31년(1598) 68세를 일기로 서거한 설월당의 학행에 대하여 樊巖 蔡濟恭은 墓碣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公이 나가서 학문을 수련함에는 大賢(퇴계선생)의 문하에 놀고, 들어와서 강론하고 연마함에는 伯氏 山南公과 仲氏 養正公, 從氏 後凋堂, 挹淸公이 있었음이니 만약 魯나라에 공자가 없었으면 여기에 무엇을 취하리오하는 말은 곧 이것을 이름이로다. 寒岡 鄭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烏川 한 마을은 君子 아님이 없다.” 하였다.

松巖 權好文

중종 26년(壬辰·1532) 안동에서 출생한 權好文의 자는 章仲이요 호는 송암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일찍부터 도산에 들어가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아 百家書를 두루 읽고 시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송암은 선생으로부터 “유자의 기상이 있고, 蕭灑한 산림의 풍도가 있다.”고 칭찬을 받았다.

명종 15년(1560) 司馬試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敎官 이상의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향리 淸城山 아래 無悶齋를 지어 그곳에 은거하면서 초연히 학문 연구에만 열중했다.

특히 禮經과 家禮儀節 등에 관해 깊이 연구하여 관혼상제의 예절에 수범을 보이기도 했던 그는 만년에 이르러 學行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동문들로부터 관직에 나가기를 여러차례 추천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향리를 떠나지 않았다.

당시 官界에서 크게 활약하던 柳西厓 金鶴峯 鄭藥圃 등이 그의 學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유서에는 귀향하는 길에 송암의 은거지에 들러 <平論一生事堪作百世師>란 詩를 지어 뛰어난 학행을 찬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가에 능하여 경기체가를 본 뜬 <獨樂八曲>과 <閑居十八曲>등의 시조를 남겨 국문학사상에 귀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선조 20년(1587) 56세를 일기로 서거한 후 안동 靑城書院에 제향되었으며 松巖集을 저서로 남겼다.

省庵 金孝元

선조 때의 문신이며 신진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로 동서분당이 일어났을 때 동인의 영수로 활약했던 金孝元의 자는 仁伯, 호는 省庵이고 본관이 善山이니 현감을 지낸 金弘遇의 아들이다.

중종 27년인 1532년(嘉靖 壬辰)에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曹南冥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鄭寒岡, 金東岡과 같이 퇴계 문하에 들어와 심오한 학문을 배워 신진 사류의 중심 인물이 된 성암은 32세 때인 명종 20년(1564) 司馬試를 거쳐서 문과에 장원으로 알성급제하면서 사림의 촉망을 받게 되었다.

급제 후 예문관과 홍문관의 檢閱 正字 修撰을 거쳐 사간원 正言, 병조좌랑을 역임하였고 선조 6년(1572) 賜暇讀書를 한 다음해 사헌부 持平에 올랐다.

선조 즉위 직후인 이 무렵 조정에는 柳西厓 李栗谷 金鶴峯 金東岡 鄭藥圃 沈巽庵 등 퇴계 문인들이 기라성처럼 울립하고 있었으나 연령상으로 이들보다 연상인 성암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신진 사림의 대표적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1년 동안 賜暇讀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여러 동문들의 추천으로 지평을 거친 다음 吏曹正郎(정5품)에 천거되었다.

그러나 같은 퇴계 문인이고 연하이면서도 일찍 관직에 나와 吏曹參議(정3품)에 재임하고 있던 巽庵 沈義謙이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문제가 되었다.

이때 성암이 이조정랑에 천거된 것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고 문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또 어진 사람을 추대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기쁘게 여겨 여러 젊은 선비들의 환심을 크게 얻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심의겸은 임금의 외척으로 일찍 환로에 나섰을 뿐 아니라 나이 많고 지위가 높은 중신들이 중심이 된 수구세력의 신망을 받고 있는 수구파로서 명망이 높은 성암 김효원의 등장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이에 신진 사류(선비)들이 들고 일어나 심의겸의 처사는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막고 권세를 농간하는 일이라고 공박하고 나섰으며 이것이 곧 동서분당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분당 현상을 염려한 우의정 盧守愼과 副提學 이울곡이 조정에 나서서 김효원을 富寧府使로, 심의겸을 開城府留守로 천거하여 각각 외직에 나가게 했다.

그후 三陟府使로 전임되었던 성암은 외직에 나가 있는 동안 지방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민심을 얻고 신진 사림의 존경을 받아 왔으나 끝내 조정의 내직에 등용되지 못했으며 선조 17년(1583·癸未)을 기해 당쟁이 격화되자 스스로 하위직인 安岳郡守를 자청하였다가 만년에는 학문에만 열중했다.

그의 입사문제로 발단된 당파싸움은 같은 퇴계 문인 중에서 김효원을 두둔하였던 柳西厓 鄭寒岡 金鶴峯 金好閔 洪可臣 許曄 金宇顛 禹性傳

李山海 등은 동인에 속했고 심의겸 편에 섰던 奇高峯 李栗谷 朴淳 具思孟 尹根壽 洪聖民 成渾 柳根 曹好益 등은 서인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니 그 당시 지방 관서에 나가 있던 그의 명망을 짐작할 수 있겠다.

임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선조 24년(1590) 서거하니 향년이 59세였으며 사후 이조판서의 증직이 내려지고 삼척 景行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는 省庵集 등이 있다.

桐岡 李希程

중종 26년(嘉靖 壬辰·1532) 安東郡 臥龍 周村에서 直長公 李漢의 셋째아들로 출생한 公의 자는 伊甫이며 호는 桐岡이다.

어릴적부터 西澗書院을 구축하고 訓學하던 직장공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동강은 20세가 넘은 뒤에야 長侄 鶴川과 함께 집안 촌수로 再從祖가 되는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깊이있는 학문을 닦게 되었으며 이 당시 隴雲精舍에 머물면서 공부할 때에는 경학과 문예에 관한 많은 책을 읽어 이 분야에 박학했다.

천성이 剛明하고 재질이 뛰어났던 공은 도산에서 수학할 때 같은 연배의 松巖 權好文 雲巖 金明一 臨淵齋 裒三益 晚翠堂 金士元 등과 가깝게 친교를 맺었으며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채 가사와 학문에만 열중하였으나 뒷날 학행으로 천거되어 通禮院 引儀 벼슬을 제수받아 역임했다.

효성이 극진했던 공은 선조 2년(1569) 親喪을 당하자(直長公 서거) 두 형과 함께 廬墓에서 3년 상례를 마친 후 義城(聞韶) 梧洞으로 이거하여 桐岡書堂을 짓고 인근지방의 儒家 자제들에게 훈학을 시작하였으며 만년에는 스스로 시문을 즐기고 經史學에 심취하면서 자손들을 訓悔하였다.

광해군 4년인 1612년 향리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81세였으며 동강의 학행은 뒷날 教授를 역임한 장남 發春과 承旨를 지낸 迓春 등 여러 자손들에게 계승되었다.

文峯 鄭惟一

중종 27년(癸巳年·1533) 安東에서 출생한 鄭惟一의 자는 子中이요, 호는 文峯이며 본관은 東萊이니 直提學을 지낸 鄭賜의 현손이다.

어릴 때에는 忠定公 權沖齋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성장하여서는 도산으로 들어가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문헌을 떨치게 되었으며 20세 때인 명종 7년(壬子)에 司馬試에 뽑히고 26세 때에 문과에 올라 예문관 檢閱, 홍문관 正字와 修撰, 사간원의 正言, 사헌부의 持平 등 삼사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그후 이조정랑, 의정부의 舍人, 홍문관 直提學 등을 역임한 후 모든 관리들의 非違행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사간원의 大司諫에 임용되어 조정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섰다.

문봉이 사간원에 재직중일 때 康陵의 상례가 끝나고 장차 太墓에 祔祀하려 하는데 당시 영의정 李浚慶이 “孝陵을 延恩殿에 奉安하자”고 제안하자 조정 대신 중 아무도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였으나 문봉이 홀로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서서 막아냈으며 이에 따라 조정의 典禮가 바로 잡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끈고 바른 성품을 지녔던 그는 선생 사후 시호를 내리도록 임금에게 간곡히 진언하였으며 퇴계 선생 言行通述을 문인 대표로 지었다.

40대 초에 사간원의 최고관직인 大司諫을 역임한 문봉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44세때인 선조 9년 丙子(1576년)에 서거하니 동료 문인들 모두가 안타까워했으며 관직에 있으면서도 성리학 연구와 저술에 정력을 기울여 閑中筆錄과 關東錄, 宋朝名賢錄 등을 저술하였으나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다고 呂肅公이 지은 墓碣에 써 있다.

梧陰 尹斗壽

선조 때에 영의정을 역임한 정치가로 서인의 거두였던 尹斗壽의 자는 子仰이고 호는 梧陰이며 본관이 海平이니 軍資監正을 지낸 尹忭의 아들이다.

중종 27년인 1533년(嘉靖 癸巳) 서울에서 출생하여 줄곧 서울에서 살았으며 청년시절까지는 聽松 成守琛과 履素齋 李仲虎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34세때인 명종 22년(丁卯) 관직에 재임중일 때 그때 마침 서울에 체류중인 퇴계선생을 찾아 사제의 예를 올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명종 13년(1558) 문과에 급제하여 藝文館 檢閱에 취임하면서부터 관직에 나서서 홍문관과 사헌부 등 삼사의 여러 관직과 육조의 요직을 거쳐서 정치가로 대성하게 되었다.

선조 23년(1590) 宗系辨誣의 공로로 光國二等的 功臣錄에 올랐으나 곧 벽지로 귀양갔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지에서 풀려나 곧 御營大將에 발탁되어 큰 공을 세웠으며 이때의 공적으로 임란이 평정된 후인 선조 38년(乙巳) 扈聖功臣으로 봉록되고 海原府院君에 봉군되었다.

임란 중 文憲公 李陽元에 이어 영의정에 올랐던 오음은 정치적으로 서인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저술에도 힘을 기울여 延安志, 平壤志, 箕子志 등의 저서를 남긴 오음은 선조 34년(1601) 향년 69세로 서거하였으며 사후 文靖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孤潭 李純仁

선조 때의 문신인 李純仁의 자는 伯生이요 호는 孤潭이며 본관은 全義이다. 중종 27년 癸巳(1533)에 출생한 고담은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司馬試에 합격한 후 선조 5년(1572) 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가게 되었다.

선생 서거 무렵 성균관에서 수학중이던 그는 유생 대표로 도산에 들러 조문했으며 2년후 문과에 급제하고서는 예문관과 홍문관 사간원 등

의 여러 관직에 등용되었다가 임진왜란 때에는 예조참의에 올랐다.

이때 임금이 의주로 피난하게 되자 고담은 동궁을 호위하여 평안도 成川까지 피난했다가 피난지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60세였다.

사후 선조는 전란중 동궁을 무사히 피난케 한 공적을 치하하여 이조 참판의 증직을 내렸다.

酒隱 金命元

임진왜란 때 都元帥로 무공을 세우고 우의정을 역임하는 등 문무를 겸비하였던 金命元의 자는 應順이고, 호는 酒隱이며 본관은 慶州이니 이조판서를 역임한 金萬鈞의 아들이다.

중종 28년인 1534년(嘉靖 甲午) 서울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陶山 隴雲精舍에서 易學 등을 수학한 그에 대하여 선생께서 일찍이 “이 아이는 앞으로 나라의 중요한 干城이 될 사람이라”고 평하리 만큼 자품이 빼어나고 그릇이 컸다고 한다.

24세 때인 명종 13년(155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3년 후인 1561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임진왜란이 돌발하자 도원수로 발탁되어 留都大將 李陽元과 함께 서울 방위에 힘썼으며 여러 곳에서 무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평정된 후인 선조 33년(1600) 우의정에 오르고 전란때의 공적으로 慶林府院君에 봉군되었다.

선조 36년(1602) 서거하니 향년이 69세였다. 사후 忠翼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臨淵齋 裴三益

선조 때의 문신인 裴三益의 자는 汝友요 호는 臨淵齋이며 본관은 興海이다.

중종 28년인 1534년(嘉靖 甲午) 安東에서 출생하여 어릴적부터 퇴계선생의 薰炙를 받아 명종 13년(1558) 司馬試에 합격하고 31세때인

명종 1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하기가 어려웠으나 스스로 학업에 열중하여 주경야독함에 퇴계선생이 <臨淵齋紫陽精舍>의 글을 써주면서 만학을 권장하였으며 특히 心經과 詩傳에 관한 것을 많이 배웠다.

문과에 급제한 후 홍문관의 正字, 修撰 및 사간원의 正言, 獻納과 사헌부의 持平, 掌令, 執義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거쳐서 성균관 大司成에 올랐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宗系辨誣의 사절로 명나라에 파견할 사신을 물색하던 중 대사성인 임연재가 사신으로 발탁되어 명나라를 다녀왔으며 이때 명 황제의 칙서와 蟒龍衣를 선물로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선조 임금이 그 공을 가상히 생각하여 大明會典을 새로 세우도록 조정에 어명을 내리고 馬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이때 海西지방이 해마다 흉년이 들게 되자 조정에서 임연재를 황해도 감사로 임용하였으며 신병을 무릅쓰고 道伯에 취임한 후 식량을 풀어서 絶糧民을 구제하니 여기에 힘입어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생업에 열중하였다.

문필이 뛰어나 당대의 문필가로 손꼽혔던 임연재가 황해도 관찰사를 마지막으로 선조 21년(1588) 서거하니 향년이 55세였다.

草澗 權文海

선조 때의 문신인 권문해의 자는 灝元 이요, 호는 草澗이며 본관이 醴泉이니 承旨를 지낸 權五福의 후손이다.

중종 28년(1534) 예천에서 출생한 초간은 일찍이 家學으로 공부를 하다가 20세 무렵에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서 훈자를 받았으며 사마시를 거쳐서 27세 때인 명종 15년(1560)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후 홍문관 正字에 피임되면서 관직에 나선 후 修撰과 校理, 사간원 正言과 獻納, 사헌부 持平과 掌令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다음 선조 6년 癸酉(1573)에는 외직에 나가 안동부사를 역임하였으며 이

때 그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 廬江書院을 중수하여 퇴계선생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후 동서분당이 날로 심해지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시를 지으면서 고향에 머물러 있던 공은 다시 내직에 소환되어 홍문관 直提學, 吏曹參議, 承政院 副承旨와 承旨를 역임하였다.

승지에 재임중이던 선조 24년(1591) 서울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58세였다.

사후 吏曹判書의 중직이 내려지고 예천 鳳山書院에 제향되었다.

楓菴 文緯世

선조 때의 학자인 文緯世의 자는 叔章이요 호는 楓菴이며 南平人이니 중국에서 목화를 도입해온 忠宣公 文益漸선생의 8세손이다.

중종 28년(1534·嘉靖 甲午) 전남 長興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는 眉巖 柳希春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재질이 뛰어나 신동으로 소문이 났던 공은 미암으로부터 “이 아이는 장차 반드시 사문의 대유가 될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13세부터는 도산에 와서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아 학자로 대성했다.

도산에서 수학하는 동안 특히 주자학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그는 34세때인 명종 22년(156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 楓山精舍를 짓고 후진 양성에만 정력을 쏟았다.

그후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子侄과 제자 등을 주축으로 수백인의 의병을 모집하여 적병과 향전하면서 嶺·湖南에 진을 치던 권율장군의 작전을 뒷받침하였으며 이때 南道 巡察使로 뽑혀 이 지방의 軍務를 순찰하던 柳眉巖에 의해 의병을 일으킨 다섯 사람의 선비가운데 1인으로 추천됨으로써 龍潭縣丞에 제수되었고, 정유재란 때에 큰 공을 세워 1598년(선조 31년)에는 다시 坡州牧使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파주목사직을 사양하고 고향에 思君臺를 지어 학문에 전념하

면서 만년을 보내다가 선조 33년(1600) 서거하니 향년이 67세였다.

사후 임란때 세운 공적으로 原從功臣에 훈록되고 吏曹參判의 증직이 내렸으며 長興 江城書院에 入享되었다.

문장에 뛰어나 諸葛孔明入陣圖에 대한 연구기록을 남긴 풍암은 <主客問答>을 통한 선생과의 문답을 言錄으로 남기고 있다.

巽菴 沈義謙

선조 때의 문신인 심의겸의 자는 方叔이고 호는 손암·長菴 또는 黃齋이며 본관이 靑松이니 靑陵府院君 沈綱의 맏아들로 중종 29년(1535) 서울에서 출생했다.

명종 왕비인 仁順王后의 동생인 순암은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21세 때인 명종 10년(1555)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명종 17년(1562) 別試 文科에 급제하여 병조좌랑에 임용되면서 관직에 나서서 사간원 正言, 홍문관 正字와 校理 등을 역임 하였다.

31세 때인 1565년 사간원 司諫에 올랐다가 선조 2년(1569) 35세의 젊은 나이에 大司諫이 되었고 3년 후에는 다시 이조참의에 제수되는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사림간의 촉망을 받았다.

그러나 왕실의 척신이라는 인간관계 때문에 항상 수구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히는데다 이때 金宗直선생을 받드는 신진세력으로 등장한 金孝元과 대립함으로써 동서분당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수구세력이 모여들게 되어 서인의 거두가 된 것이다.

이때 신진 사류들이 김효원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함으로써 같은 퇴계 문인인 김효원은 동인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책임을 느껴 관직을 사임하고 파산에 내려가 한때 은거하였으나 선조 13년(1580) 禮曹參判에 등용되면서 다시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후 함경도 관찰사에 전직되어 鄭仁弘의 탄핵을 받았으나 李栗谷의 변호로 화를 모면하였으며 선조 15년(1582)에는 全州府尹을 역임하는

등 외직에 나가 활약했다.

司憲府 大司憲을 역임한 후 靑陽府院君에 봉군되었던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활달하기도 했으나 날카롭고 비타협적이어서 사림간의 당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 왕조의 정치사에 치명적인 적폐를 남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大司諫에 재임중일 때에는 퇴계선생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진언한 바 있으며 선조 20년(1587) 53세의 나이로 일찍 서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퇴계선생을 추모하는 挽詩를 남겼으며 사후에는 나주 月井祠에 제향되었다.

牛溪 成渾

선조 때의 문신이며 학자인 성혼의 자는 浩原이고 호는 牛溪이며 본관이 昌寧이니 聽松 成守琛의 아들이다.

중종 29년(1535) 서울에서 출생하여 고향인 坡州에 돌아가 성장한 우계는 어릴 때부터 부친 聽松公의 훈학을 받아 15세 전후에 이미 사서삼경에 능하였으며, 17세에 司馬兩試에 뽑혔으나 覆試에 응하지 않은 채 고향에 머물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 무렵 休菴 白仁傑 문하에서 수학하여 많은 경서를 섭렵하고 이율곡 등 당대의 석학들과 친교를 두텁게 한 그는 주위 士友들로부터 환로에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신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고 학업에 더욱 정진했다.

그후 36세에 처음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퇴계선생을 찾아 성리학 등 심오한 학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율곡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대성하게 되었으며 40세때부터 퇴계의 四端七情理氣說에 감복하여 선생의 四七學說에 반대하고 나선 율곡과 6년 동안 논변을 전개하기도 했다.

30대 후반부터 주어지는 관직을 사양해오던 우계는 선조 8년(1575)

인 41세 때부터 관직에 나가 積城縣監을 비롯하여 工曹佐郎, 通禮院 引儀, 사헌부 持平, 공조정랑, 掌樂院 僉正, 이조참의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고, 50대 이후에는 이조참판, 同知中樞府事, 僉知中樞府事, 右參贊, 司憲府 大司憲, 知中樞府事, 左參贊 등 높은 벼슬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 중 時務便宜十五條, 庚寅封事 등 많은 상소문을 올려 국정에 반영시키기도 한 우계는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시에는 좌참찬에 재임하면서 柳西厓와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대왕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서 治病하다가 임란이 평정되던 해인 선조 31년(1598) 坡州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64세였다.

사후 좌의정의 증직과 文簡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문묘에 종사되었으며 파주의 坡山書院과 海州 紹賢書院에 배향되었다.

栗谷 李珣

선조때의 뛰어난 철학자요, 정치가, 교육가, 문장가로 이름난 李珣의 자는 叔獻이요, 호는 울곡이며 본관은 德水이다.

중종 30년인 1536년 坡州에 세거하던 德水人 李元秀와 여류문필가로 이름난 申師任堂 간의 4형제 중 3남으로 강릉 외가에서 출생한 울곡은 어려서부터 천재로 소문이 날 정도로 소년시절에 경서를 통독하고 佛書도 섭렵하여 명종 3년 13세때에 이미 진사 초시에 합격하였으며 16세 때에 모친 신사임당의 상을 당하자 3년상을 마친 다음 한 때에는 (19세때) 금강산에 들어가 禪공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릴적부터 道學에 뜻을 두었던 그는 다음해 금강산 절간에서 파주 栗谷 향리로 돌아와 유학에 정진하였으며 23세 때에는 당시 전국적인 儒宗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영남의 오지 陶山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당시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서당을 열고 제자 훈도에만 전념하던 퇴계선생의 학덕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獻詩를 지어 올려 사제의 예를 갖춘

율곡은 도산을 떠날 때 평생의 좌우명이 될 잠언을 얻어 가지고 갔으며 이때 그는 佛門에 들어 한때나마 禪에 종사한 것을 후회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정진할 것을 선생에게 다짐하고 떠났다고 하니 퇴계선생한테서 받은 감화는 무척 컸던 것 같다.

학문에 뜻을 두면서도 빈한한 가세와 부형의 권고에 못이겨 여러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아홉번이나 장원으로 뽑혔고 도산을 다녀가던 해 겨울에 실시된 別試에도 응시하여 <天道策>에 대한 명논문을 써냄으로써 고시관들을 놀라게함은 물론 후일 중국 명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이처럼 소년시절부터 여러차례 과거에 장원으로 뽑히리만큼 천재로 소문이 났던 율곡이 벼슬길에 나선 것은 29세때인 명종 18년 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호조좌랑에 임용되면서 부터이며 그후 30세 때에 사간원 正言과 이조좌랑, 33세때에 사헌부 持平, 성균관 直講, 홍문관 副校理, 35세때 홍문관 校理, 38세때 홍문관 直提學, 39세때 承政院 右副承旨와 사간원 大司諫, 46세때 사헌부 大司憲과 戶曹判書, 홍문관 과 예문관 大提學을 역임하는 등 환로에 나선 지 불과 16년만에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실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리고 47세때에는 이조판서와 형조판서·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48세때에는 다시 이조판서와 右參贊 등 고위 내직을 역임하였던 율곡은 33세때 사헌부 持平 재임시절 書狀官으로 뽑혀 명나라를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36세때 淸州牧使, 39세때 황해도 관찰사 등 외직을 맡아 정사를 보살폈으니 그의 천재적 자질은 내외직을 막론하고 거의 매년 승진하리 만큼 환로에서도 두드러지게 돋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의 본심은 관직생활보다도 학문연구와 저술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고향인 과주 율곡과 그의 처가가 있는 곳인 海州 石潭 등 시골에 隱居하기 위하여 42세때인 선조 9년에는 해주 석담에 精舍를 지은 바도 있다. 이러한 선생의 학문 연구에 대한 염원은 황해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가있을 무렵 동서분당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더욱 노골화되어 신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직을 사임하려했으나 대

사헌, 대제학, 호조·이조판서 등 요직이 차례로 제수되어 49세의 나이로 서거할 때까지 본뜻을 이루지 못한 채 관직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문에 뜻이 깊고 사리에 밝고 부지런한 그의 성품은 여러 관직을 역임하는 바쁜 생활 중에서도 저술에 힘을 기울여 東湖問答, 萬言封事, 聖學輯要, 擊蒙要訣, 經筵日記, 四書諺解, 小學集註, 家訓, 鄉約學規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밖에 시문을 비롯한 각종 유고들은 사후에 편찬된 율곡집과 율곡전서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108명의 문인도 배출시켰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孔·孟·程·朱子の 학을 받들면서 한국의 先學인 趙靜庵의 經世的 재능과 李退溪의 심오한 학문을 항상 찬양하여 자기 일신에 겸하려고 하였으면서도 특히 퇴계의 학설인 理氣說과 四端七情說의 이원적 견해에 관해서는 퇴계학설을 지지하는 그의 友人 成牛溪와 往復論辯을 전개하면서 날카롭게 비판을 가하였다고 사학자 李丙燾 박사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율곡의 학문적 견해는 도리어 명나라의 羅整庵과 우리나라의 徐花潭 및 奇高峯 등의 영향을 받아 理氣一元的 二元觀을 수립하여 理通氣局說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 理氣說과 四端七情說에 관해서는 그의 스승인 퇴계선생과 견해를 달리했으나 퇴계선생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이 해주 石潭精舍 북쪽에 주자를 主位로 하여 동방의 조정암과 이퇴계를 배향하는 朱子祠를 건립하려고 시도하다가 일찍 서거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퇴계선생 사후 遺事를 지었고 또 선생 서거 직후 시호가 내려지지 않자 당시 의정부 參贊이던 율곡은 廬守愼·鄭琢 등 동료 문인들과 함께 선조임금께 시호를 내리도록 다음과 같이 간곡히 진언한 바 있다.

“성상께서 이름 있는 어진 이의 행장을 경솔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마땅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옛날 주자 문하에 높은 제자가 적었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20여년 뒤에야 비로소 행장이 나온 일이 있었사옵니

다. 그러하오나, 이제 만일 공론을 들어 시호를 준다고 한들 그것이야 무엇이 잘못이겠나이까. 옛날에는 시호를 반드시 장사 때에 주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오래되었으니, 그 때문에 급해서 서두르는 것이옵니다.

이제 이미 행장을 짓는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대간의 공론에 의하여 시호를 주실 것이어늘, 성상께서 이처럼 어렵게 여기시니, 治亂과 安危에 적지않은 관계가 되는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들어 주옵소서.”

퇴계선생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율곡의 마음 가짐은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병조판서에 재임중인 선조 16년 동인의 탄핵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 栗谷으로 귀향하였던 그는 判敦寧府事를 제수 받고 다시 이조판서에 부임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584년(선조 17) 1월 16일 서울 大寺洞(지금의 仁寺洞) 사저에서 49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사후 文成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후일 肅宗때 문묘에 從享하게 되었으며 풍덕 龜岩서원을 비롯하여 해주 紹賢서원, 황주 白鹿洞서원, 배천 文會서원, 재령 景賢서원 등 10여개 서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추존을 받게 되었다.

拙翁 洪聖民

선조 때의 문신인 洪聖民의 자는 時可이고 호는 拙翁이며 본관은 南陽이니 視察使를 역임한 洪春卿의 아들이다.

중종 30년(1536)에 출생하여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자를 받아 학자로 대성한 줄옹은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과 사간원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거쳐 40세 때인 선조 8년(1575)에는 謝恩使節使로 선발되어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이때 宗系辨誣를 위해 활약한 공으로 뒷날 光國功臣 二等에 훈록되고 益城君의 봉군을 받았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성균관 大司成, 홍문관 大提學, 이조판서, 右贊成 등 높은 관직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대제학에 재임 중일때

에는 松江 鄭澈과 함께 서인으로 몰려 관직에서 추방되기도 했으나 뒷날 신원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때인 선조 27년(1594) 서거하니 향년이 59세였다.

사후 文貞公의 시호가 내렸다.

선조 초기 經筵官 侍講官 직에 있던 졸옹은 선조 3년(庚午·1570) 12월 26일 퇴계선생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講에 나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면서 선생을 추모했다고 崇終獻議에 기록되어 있다.

요사히 나라가 불행하여 큰 선비가 세상을 떠나자, 유림들이 조상함은 물론이요, 또한 못내 슬퍼하였사웁니다.

그래서 부음을 듣던 날 영의정으로 추증하시니 온나라가 모두 감격하였사웁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宗師로서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웁니다.

그의 경연에서 아뢴 바는 모두 임금을 바루는 말로서, 날날이 그것을 추념하여 힘써 행하오면, 이 사람은 비록 죽었으나 그 度는 행하여지는 것이웁니다.

<이후 여러 신하들이 퇴계선생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간청하였다.>

聚遠堂 曹光益

중종 31년 丁酉(1537) 경남 昌原에서 출생한 曹光益의 字는 可晦이고, 호는 竹窩 또는 聚遠堂이며 본관이 昌寧이니 持平을 역임한 曹孝淵의 손자이다.

일찍부터 아우 芝山(曹好益)과 함께 도산에 들어가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이 뛰어났던 崔원당은 25세때인 명종 16년(1516)에 생원과 진사시험에 동시에 합격하고 3년후(1519)에는 別試 文科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는데다가 다음해 친상을 당함에 따라 향리에서 학문에 열중했다.

재질이 뛰어나 도산에서 心經과 小學 등을 공부할 때 퇴계선생의 칭찬을 받았으며 같은 동문으로 당대의 명사인 이율곡, 鄭寒岡, 奇高峯, 金東岡 등과 친교가 두터웠고 문장이 뛰어난 학자이다.

특히 성리학에 밝았던 취원당은 관계에 나오라는 주위 동료들의 권유에 못이겨 선조 9년(1576)에 다시 重試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예문관과 홍문관의 내직을 거쳐 이듬해에는 평안도 江東에 유배중인 아우 지산을 구하기 위하여 외직을 청하여 평안도 都事에 제수되었으나 선조 11년(1578) 42세로 생애를 마침으로써 더 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학문에 뒤지지 않게 효행이 뛰어나 여러 문인들의 선망을 받았던 그의 효행이 높이 인정되어 사후 선조의 특명으로 旋閭되었으며 아우 지산도 유배지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聚遠堂集 등 여러 저서를 남겼으며 사후 향리의 五峰祠에 제향되었다.

松江 鄭澈

선조 때의 뛰어난 시인으로 좌·우의정의 높은 벼슬을 역임한 정치가이기도 한 鄭澈의 자는 季涵이고 호는 松江이며 본관은 延日이다.

중종 30년 丙申(1536) 判官을 지낸 鄭惟沈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河西 金麟厚 문하에서 수학하여 26세 때인 명종 16년(1561)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다음해 別試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환로에 나서게 된 송강은 이후 서울에서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게 되었다.

문과에 급제한 후 홍문관 正字, 사간원 正言, 사헌부 持平 등 삼사의 관직과 성균관의 典籍을 역임하고 명종 21년(1566) 성균관 直講과 사간원 獻納을 거쳐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이율곡과 함께 1년 동안 賜暇讀書를 하면서 학문의 폭을 넓혔다.

사가독서를 마친 뒤 선조 원년(1568) 홍문관 修撰으로 등용되었다가

校理를 거쳐 다시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나 관직을 스스로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특히 문예에 열중했다.

선조 11년(1578) 掌樂院正으로 다시 기용되었던 그는 사간원 司諫, 사헌부 執義, 홍문관 直提學을 거쳐 承政院 承旨에 올랐으나 이때 珍島郡守 李銖의 뇌물 수수사건에 관련되어 벼슬자리에서 물러났었다.

그후 선조 13년(1580) 오해가 풀려 강원도 관찰사로 등용되었다가 이후 3년 동안 전라도와 함경도 등 3개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때 문필가로서 천재적인 재질을 발휘하여 국문학사상 불후의 명작인 關東別曲과 訓民歌 등을 남다른 문체로 써서 후세에 남겼다.

특히 이 무렵에 쓴 작품중 최초의 歌辭인 關東別곡은 금강산을 비롯한 關東팔경의 수려한 산수를 노래하고 고사와 풍속을 삽입하였으며 훈민가 16수는 백성의 교화에 관한 포고문이나 유시문을 대신해서 시조의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선조 16년(1583) 다시 내직에 들어가 예조참판이 되고 뒤이어 형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1584년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나 이 무렵 東西分黨이 확연히 들어나면서 西人便에 서게 되었던 송강은 동인들의 배척으로 다음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4년동안 은거했다.

이 시기에 關東別곡에 이은 명작인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어 남겼으며 선조 22년(1589) 우의정에 발탁되어 鄭汝立이 일으킨 모반사건을 다스리게 되면서 서인의 영수로 추대되어 그를 배척했던 동인들을 철저히 배척하게 되었다.

다음해 좌의정에 오른 후 光國功臣 三等과 平難功臣 二等에 각각 훈록되었던 그는 선조 24년(1591) 建儲문제를 제기하여 동인인 영의정 李山海와 함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뜻을 모은 바 있으나 영상이신해가 뜻을 바꾸는 바람에 혼자서 광해군을 책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이때 信城君을 책봉하려던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과 동시에 남해안 경상도 晉州로 유배되었다가 다음해 서북지방 江界로 옮겨 귀양살이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선조의 부름을 받아 扈從官으로 발탁되어 義州까지 임금을 호종하였으며 왜군이 평양 이남쪽을 점령하고 있을 무렵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의 體察使로 활약하였다. 다음해(1593)에는 謝恩使로 뽕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러한 공헌을 세우고도 서인으로 몰려 다시 관직에서 밀려나 江華島의 松亭村에서 은거하던 중 1593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58세였다.

사후 관직을 追奪 당했으나 광해군 원년(1609) 신원되었고, 仁祖 즉위 초인 1623년 관직이 복귀되고 文淸公의 시호가 내려지며 평창의 松江서원과 延日의 烏川서원 別祠에 제향되었다.

月汀 尹根壽

중종 31년인 1537년(嘉靖 丁酉) 서울에서 출생한 尹根壽의 字는 子固이고 호는 月汀이며 본관이 海平이니 영의정을 역임한 尹斗壽의 동생이다.

어릴때부터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은 그는 재능이 뛰어나 10세 무렵에 이미 효경에 통달하고 四書를 독파하였으며 역대 사적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성리학자였다.

22세 때인 명종 13년(1558)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과 홍문관, 사간원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월정은 홍문관 副修撰에 재임중일 때에는 기묘사화때 참형을 당한 靜菴 趙光祖선생의 신원을 상신하여 뜻을 이루었다.

선조 20년(1587) 명나라 사신으로 선발되어 북경을 다녀온 후 예조 판서와 大提學을 역임하였다. 그후 左贊成에 올라 判義禁府事를 겸임하면서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워 선조 37년(1604)에는 扈聖功臣 二等에 훈록되고 海平君에 봉군되었다.

문장과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그의 글씨는 永和體라 하여 朝野로부터 격찬을 받기도 했다.

1616년(광해군 8년) 80세에 서거한 후 文貞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鶴峯 金誠一

김성일의 자는 士純이고 호는 鶴峯이며, 본관이 義城이니 靑溪公 金璣의 아들이다.

중종 32년(1538) 安東府 臨河縣 川前에서 출생하여 6세때 이미 효경을 배우면서 학문에 뜻을 두었던 학봉은 소년기에 이르면서 더욱 독서에 열중하였으며 19세 때부터 아우인 南嶽(金復一)과 함께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27세때인 명종 19년(1564) 鄉試를 거쳐서 進士試에 이등으로 합격하였으며 그후 도산에 머물면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여 29세 때에 퇴계선생으로부터 道學淵源의 정맥을 서술한 屏銘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고 31세 때인 선조 원년(1568)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에 기용되면서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천성이 영특하고 행실이 고매하여 퇴계선생의 총애를 받고 주위 동료들의 선망을 받았던 학봉은 학문에 전력하려던 뜻을 바꾸어 문과에 응시하고 관직에 나선 이후 32세에 홍문관 正字에 오르고, 33세에는 예문관 檢閱 겸 春秋館 記注官, 34세에 예문관 待敎, 36세에 성균관 典籍, 刑曹佐郎, 兵曹佐郎, 사간원 正言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정언에 재임중일 때에는 조정에 있는 여러 동료 문인들과 함께 퇴계선생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임금에게 간청하였다고 崇終獻議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국법에 반드시 행장을 기다려서 시호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씨와 행실이 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이황과 같은 이는 그 도덕과 의리를 행한 것이나, 나가고 머무름의 큰 절개는 푸른 하늘 같아서, 저 종들까지도 다 우러러볼 수 있거늘, 어찌 행장을 기다린 뒤라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하겠사옵니까. 그 시문을 꼭 보아야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됨을 아직 다 알지

못한 곳이 있다는 말씀 같사운데 미안한 일이옵니다. 뛰어나게 어진 이의 대우를 어찌 보통 범으로써만 할 수 있사옵니까”라고 正言 김성일이 아뢰었다.

이 무렵 魯山君(端宗) 墓封植과 사육신의 復爵을 청원하는 상소문을 처음으로 올려 조정 대신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 선생은 弘文館 修撰을 거쳐 吏曹正郎에 오른 40세 때에는 宗系改正奏請 書狀官으로 뽑혀 正使 尹斗壽와 함께 北京을 다녀 왔으며 뒤이어 鴻文館 校理, 사헌부 掌書, 議政府 舍人, 사간원 司諫, 함경도 및 황해도 巡撫御使, 羅州牧使 등을 차례로 역임한 바 있으나 49세 때에는 社稷壇이 失火되자 自劾하는 狀啓를 올리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때 川前에서 이사한 西後 金溪에 머물면서 退溪先生文集을 編次 고정하고 聖學十圖, 朱子書節要, 自省錄 등 先生遺書를 간행하였으며 奉先雜儀, 吉兪諸儀 등 禮書를 저술하는 한편 靑城山 중턱에 만년에 은거할 石門精舍를 신축하였다.

51세 때에 다시 宗簿寺正의 벼슬을 제수받아 조정에 들어간 후 奉常寺正, 禮賓寺正, 京畿推刷敬差官 등을 역임한 다음해인 선조 22년(1589) 日本通信副使로 뽑혀 正使 黃允吉, 書狀官 許箴과 함께 渡日하였다가 1년 2개월 후에 돌아왔다.

몇 달 앞서 귀국한 黃正使 復命 내용과 뒤에 귀국한 학봉의 복명 내용이 큰 차이가 있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지만 이때 일본사신으로서의 눈부신 활약은 海槎錄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귀국후 通政으로 승진되어 성균관 大司成을 비롯 承文院 副提調, 弘文館 副提學, 承政院 副承旨, 僉知中樞府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55세 때인 선조 25년(1592)에는 刑曹參議를 거친 다음 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발탁되었으나 불행스럽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한때나마 倭情誤報의 죄로 拿命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병마절도사로 부임한 후 적장을 무찌른 공적에 관한 狀啓가 올라가고 왕세자와 좌의정 柳西厓의 강력한 변호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

으며, 다시 慶尙道招諭使에 임명되어 一死報國의 충절을 다 바치게 되었다.

이때 상황에 대하여 <嶺南人物考>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왜적의 침입으로 서울이 크게 어지럽게 되자 임금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김성일이 일찍이 큰 소리로 왜가 반드시 침입해 오지 않는다 하여 邊情이 해이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賊變이 생겼으니 내 장차 국문 하리라’ 하고 금부에 명하여 잡아오라 하매 禁府都事가 길이 막혀 中路에 체류하게 되었다. 이때 공이 곧 사잇길로 군사를 내어 급히 진군하자 적군이 모두 흩어지니 좌의정 柳成龍과 臺諫이 힘써 공의 본의를 말했으나 임금이 듣지 않다가 그뒤에 임금이 묻기를 ‘김성일의 狀啓에 一死報國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성일이 과연 능히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유성룡과 崔滉이 대답하기를 ‘성일의 본 바가 비록 혹시 가린 바가 있사오나 그 평생 마음이 다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것 뿐이었으니 그 일사보국할 마음은 신 등도 역시 아는 바이옵니다.’ 하고 왕세자가 또한 극히 무고함을 간하니 임금이 그제야 노여움이 풀어져서 宣傳官으로 하여금 가서 용서하게 하고 또 招諭使를 제수하니 선생이 稷山에 이르자 명을 받고 남쪽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경위로 拿命에서 풀려나 초유사로 임용된 학봉은 咸陽에 도착하여 친히 招諭文을 작성하여 도내 郡邑마다 포고하는 한편 막하에 모여든 선비 중에서 의병대장과 召募使를 삼았으니 居昌의 金沔, 陝川의 鄭仁弘, 玄風의 郭再祐 등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워 큰 무공을 세운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그후 晋州를 本營으로 하고 각 고을의 의병을 규합하여 왜적에게 빼앗긴 泗川 鎭安 固城 등지를 차례로 탈환하는 등 무공을 세우자 左道觀察使에 임명되어 임지를 옮기게 되었으나 右道內 土民들의 간곡한 청원에 의하여 이내 곧 右道觀察使로 전임되어 진주 본영에 머물면서 항전을 독려하게 되었다.

金時敏 대장이 이끈 진주대첩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공으로 김시민이 右兵使로 승진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초기 진주를 중심으로 남해안 지방에서 一死報國의 큰 공을 세운 학봉이 선조 26년(1593) 4월 29일 진주 객사에서 병환으로 졸하니 향년이 56세였다.

임란이 평정되고 서거후 13년 되는 해인 선조 38년 전란때 쌓은 공적을 인정하여 宣武原從功臣 一等에 훈록하고 吏曹參判의 증직을 내렸으며 그후 숙종 때에는 다시 吏曹判書의 증직과 文忠公의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安東의 臨川서원을 비롯하여 泗濱書院과 虎溪書院, 英陽의 英山書院, 羅州의 大谷書院, 河東의 英溪書院, 靑松의 松鶴書院, 晋州의 慶林書院, 義城의 泳溪書院등에 入享되었다.

학봉의 학문을 통한 업적은 鶴峯文集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려니와 퇴계선생 문집과 遺著書 간행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言行錄 발간에 있어서 여러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헌을 한 것 등이다.

이러한 공적에 대한 평가는 뒷날 行狀을 지은 鄭寒岡이 墓碣銘에서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정직하여 흔들리지 않아서 나라의 威靈이 멀리 퍼지게 하였고, 招諭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지성으로 士民을 감동케 하여 영남 일대를 버티게 하였으니 충의는 국가에 길이 남았고, 이름은 靑史의 竹帛에 오르리라.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서 心學의 要를 배워 덕행과 勳業이 백대에 빛날 것이리라.” 한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柏谷 鄭崑壽

선조 때의 문신인 鄭崑壽의 자는 汝仁이고 호는 柏谷이며 처음 이름은 達였으나 양자간 후 양부 淸原公에 의해 崑壽로 개명하였다.

본관이 淸州로 寒岡 鄭述의 형인 백곡은 중종 23년(1538)에 星州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이 뛰어났으며 특히 경학과 예학에 밝았다.

도산에 가서 퇴계선생에게 심경을 배우면서 성현의 治心하는 大方을

얻어 듣고 기질의 변화하는 법을 물으니 선생이 가르치기를 “논어 속에 主忠信 석자를 가장 절실하게 몸에 새겨두라”고 하며 평생 동안 그 뜻을 명심하면서 처신하게 되었다는 그는 30세 때인 선조 원년(156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선조 9년(1576)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사마시에 합격한 후 이미 禁府都事에 임용된 바 있던 백곡은 문과에 뽑힌 후 홍문관 사간원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거쳐 公州牧使, 司諫院 대사간, 성균관 大司成을 역임한 다음 선조 20년(1587)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외직에 처음 나가 寧越郡守로 재임할 때에는 황폐한 단종 묘역을 정돈하고 사당을 보수하여 이 지방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에는 承政院 右承旨로 재임하면서 義州까지 선조 임금을 호종하고 명나라 원군의 파견을 교섭하는 사신으로 뽑혀 명나라에 가서 원군을 오게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임란이 일어난 다음해 癸巳(선조 26년) 李如松提督이 이끄는 원군이 들어와서 평양을 탈환하게 되자 임금이 즉시 備忘誌를 내려 말하기를 “이번에 왜적을 토벌한 것은 오로지 중국 군사 때문이요, 중국 군사가 온 것은 오직 정곤수의 陳奏에 의한 것이니 마땅히 중히 상줄 것이라 우선 崇政을 더하게 하라.” 하였다고 한다.

그후 예조판서에 올랐다가 선조 30년(1597)에는 다시 辨誣 陳奏使가 되어 다시 명나라를 다녀온 후 의정부 左贊成에 올랐으나 그 이상의 관직을 사양하고 귀향했다.

이때 백곡의 공적을 높이 찬양한 선조가 그의 자제들에게 벼슬을 주라고 명하니 조카 樟이 白頭로 초야에 묻혀 있다가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선조 34년(1601) 白沙 李恒福과 함께 扈聖元勳에 훈록되고 다음해(1602) 서거하니 향년이 65세였다.

사후 扈聖功臣 一等到에 훈록되고 西川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영의정의 증직에 이어 忠愍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그후 다시 시호가 忠翼公으로 바뀌어 주어지고 星州의 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重湖 尹卓然

선조 때의 문신인 尹卓然의 자는 尙中이요, 호는 重湖이며 본관이 漆原이니 直提學 벼슬을 지낸 尹碩輔의 증손이다.

서기 1538년(중종 32년 戊戌) 서울에서 출생하여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은 중호는 명종 13년(1558) 사마시에 합격하고 28세 때인 명종 20년(1565)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과 삼사의 관직을 역임한 후 선조 7년(1574) 千秋使 書狀官으로 선발되어 명나라 서울(연경)을 다녀오기도 했다.

어릴적부터 鵝溪 李山海와 친교가 두터웠던 그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宗系辨誣의 공을 세웠으며 귀국후 사헌부 持平과 掌書 등을 역임하면서 임금에게 직간하는 일이 많았다.

그후 형조판서와 예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나 동서분당시에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중립을 지켰으며 선조 23년(1590)에는 종계변무의 공적으로 光國功臣 三等에 훈록되고 漆溪君의 봉군을 받았다.

임란중인 선조 28년(1594) 서거하니 향년이 57세였다.

사후 憲敏公의 시호가 주어졌으며 함흥 彰義祠에 제향되었다.

謙庵 柳雲龍

중종 33년(1539년 · 己亥) 安東府 豊山縣 河回에서 출생한 공의 자는 應見이고, 호는 謙庵이며 본관이 풍산이니 일찍이 관찰사를 지낸 柳仲郢의 아들이다.

어릴 때 집안에서 공부할 때부터 재질이 뛰어나고 총명했던 겸암은 소년시절 아우 西厓와 함께 도산으로 들어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선생의 총애를 받는 한편 동문들의 선망을 받아 문헌이 뛰어났으

며 뒷날 향리에 謙庵精舍를 세웠을 때 선생의 친필 서액을 받고 축시를 얻기도 하였다.

서애와는 달리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에는 일체 응시하지 않은 채 학문과 가사에만 열중하던 겸암은 34세 때인 선조 5년(1572) 학행의 뛰어난 가문의 음덕에 의하여 仁同縣監에 발탁됨으로써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인동현감에 재임중 고려 충신 治隱 吉再선생의 묘역을 보수하고 위패를 봉안할 吳山書院 건립의 기초를 닦은 그는 관내의 土田, 民戶, 稅貢, 徭役을 비롯하여 官穀의 搬出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획서에 의하여 균등하게 시행함으로써 수년내 읍민들의 불평을 없애고 칭찬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실이 감사에게 알려지자, 도내 다른 고을에도 적용하도록 중용을 받았으나 감사가 전임됨에 따라 他邑에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후 몇 개 고을을 거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무렵에는 풍기군수를 역임하면서 도적의 무리를 물리치고 백성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는 한편 전란중임에도 공물을 마련하여 조정에 보내는 등 큰 공을 세웠으며 그 공적으로 정3품 通政으로 승진되어 原州牧使로 영전하게 되었다.

이때 겸암은 疏를 올려 말하기를 “죽령은 湖嶺의 사이에 당하여 百二重關의 험함이 있사오니 마땅히 옛날대로 順興府를 다시 두어 풍기까지 예속시키고 丹陽, 永春, 堤川, 淸風 등 네 고을을 합쳐서 한 鎭으로 다스리게 하십시오.”하였다고 柳西厓가 지은 墓誌에 적혀 있다.

그리고 李植이 지은 墓碣에 “명종과 선조 시대에 野에 있는 선비를 불러 등용하였는데 그 중에도 영남에 더욱 많았다. 公은 退陶의 高弟子로 어질고 착하여 州縣의 관직에 있으면서도 행세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분수를 다 하였으니 道는 비록 나타나지 못하였으나 이름은 티가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행실이 순수하고 쓰임에 적합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임란때 세운 공으로 光國原從勳의 훈작을 받았으며 선조 34년(1601) 서거하니 향년이 63세였다. 사후 이조판서의 증직과 文敬公의

시호를 내리도록 아우인 서애가 禮曹에 청하였으나 이조참판의 증직이 내리고 豊基 愚谷書院과 豊山 花川書院에 향사되었다.

퇴계선생의 총애를 받았던 겸암은 선생 易筮 후 많은 言行錄을 남겼으며 제문을 지어 선생의 서거를 애도하였으니 그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祭文

거룩한 계획이 크고 넓으니 왼쪽에 그림이요 오른쪽에 책이로다. 우러러 생각하고 구부려 읽으니 칼날이 던져져 虛에 놀도다. 갈수록 바르고 확실함이 나타나고, 넉넉히 평범하고 진실한 데로 들어가 차례를 따라 나아가니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도다.

학식을 넓히고 심성을 닦는 공은 잠깐동안(造次)도 쉬지 않고 급한 때(顛沛)에도 끊어지지 않아 천지신명에 엄숙히 대답하니 언제나 눈을 떠서 어둡지 않았도다. 향불 사르고 단정히 앉아 생각을 맑게 하고 정신을 모으면 마음을 채찍질하여 언제나 깨어 있어 오직 날마다 새롭고 새롭도다.

動과 靜에 비쳐 살피고 겉과 속이 환하게 통하고 知와 行이 겹하여 나아가니 마치 새에 날개가 돌힌 듯하도다. 은밀한 것은 궁리해내고 드러난 것은 연구해 바꾸며 두루 알아서 자세히 설명하니 촛불처럼 환하고 점처럼 맞았도다. 몸을 낮추어 물에 응하고 검소하여 간략히 살며, 자리를 비워 의를 행하고 군셈으로서 욕심을 막았도다. 악한 것을 보면 나쁜 냄새 맡은 듯하고, 착한 것을 들으면 얼굴빛을 고쳤도다. 인륜의 아름다움과 日用의 떳떳함은 잔 것도 없고 굵은 것도 없이 두루 그 이치가 마땅하도다.

힘쓰고 힘써 부지런하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도다. 저울눈을 쌓고 한치를 쌓으며 해를 거듭하고 달을 세면서 그 소양이 깊어짐에 이르렀으니 펴서 넓힘을 더욱 크게 이루었도다. 그것을 온 몸에 실천할 때에 얼굴빛이 말소리에 나타났으니 겸공하고 돈후하며 충담하고 간결하

며, 화락하고 평범하며 자상하고 인자하였도다.

봄날처럼 곱게 비치고 가을날처럼 맑게 쬐도다. 손길 맞잡고 천천히 걸으면 학이 춤추듯 鸞새가 나는 듯하고 의젓이 나는 것을 그치고 한가히 쉬면, 그곳은 산 언덕이요, 매화가 향기로운 곳이로다. 다가가면 따스하고 바라보면 엄숙하도다.

있어도 없는 듯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본받을 수 있으며, 높아도 낮은 듯하여 보는 사람은 지위를 잊었도다. 어리석고 현명한 구별이 없어 물음이 있으면 이내 알려 주고, 옳고 그름을 다 갖추어 친절하고 자세하였도다.

미친 사람이나 교만한 선비나 사나운 이나 한번 그 집을 바라만 봐도 스스로 기가 놀려 공손해져서 제각기 그 마음에 가득 찬 더러움이 얼음이 풀리듯 녹고 말았도다. 성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으니 악한 사람은 스스로 신척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니, 착한 사람은 본을 받았도다.

鵝溪 李山海

선조 때의 문신인 李山海의 자는 汝受이고 호는 鵝溪이며 본관은 韓山이니 고려조의 석학 牧隱 李穡선생의 후손이자 內資寺正 李之蕃의 아들이다.

중종 23년인 1539년(嘉靖 己亥)에 출생하여 20세 때인 명종 13년(1558)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과 진사가 되고 3년 후인 1561년(辛酉)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湖堂에 올랐다가 藝文館과 弘文館의 檢閱, 正字, 修撰, 奉教 등 여러 관직을 거쳐서 명종 17년(1562)부터 賜暇讀書를 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부임하면서 서울에 체류중인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자를 받기 시작한 그는 사가독서기간 중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선조 즉위 원년인 1567년 吏曹佐郎에 임용되었다가 홍문관의 應敎와 直提學, 副提學, 大提學, 吏曹判書 등을 차례로 역임한 후 선조

22년(1588) 右議政에 올랐다.

이 무렵 金孝元이 주축을 이루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추대되어 정권을 장악했다.

뒤이어 1560년(선조 24)에는 영의정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때 宗系辨誣의 공으로 光國功臣 三等에 책록되었다.

그후 임진왜란 때에 세운 공으로 靖難功臣 二等에 책록되고 鵝城府院君에 봉군된 아계는 광해군 즉위 초 院相으로 등용되어 국정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광해 원년(1609) 노령으로 서거하니 향년이 71세였다.

서화에 능하여 山水墨畫에 뛰어났고 문장에도 능하여 宣祖朝 문장 8대가의 1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에게 文忠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아계는 土亭 李之菡, 松江 鄭澈, 格菴 南師古 등과 함께 陶山門賢錄에 오르지 않은 문인의 한 사람이다.>

晦谷 權春蘭

선조 34년인 1539년 安東에서 출생한 공의 字는 彦晦이고, 호는 晦谷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어려서 柏潭 具鳳齡에게 수학하다가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심오한 학문을 배워 학자가 되었으며 장년에 이르러서는 관직에 나아가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명종 17년(1561) 23세로 사마시에 합격한 후에도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선조 7년(1573)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檢閱에 등용되면서 관직에 나가 홍문관 正字와 修撰, 사간원 正言, 사헌부 持平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후 外職에 나가 義城縣令, 永川郡守, 靑松府使 등을 역임한 회곡은 선조 26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웠으며 그 후 사간원 司諫과 世子侍講院 輔德을 역임하였다.

지방 관직에 나가 있으면서 전임할 때마다 어떤 재물도 가지고 가지 않아 청렴하기로 소문이 난 청백리로 명망이 높았으며 특히 영천군수로

부임하였을 때는 그곳 풍속이 귀신으로부터 재앙을 막기 위하여 여자를 바쳐 제사지내는 陰祀를 거행하고 있어 즉각 금지령을 내리고 “귀신이 사람을 죽인다면 나도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여 괴이한 풍속을 없애 버렸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輔德 벼슬에 재임중 양친이 별세하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간 후에는 일체 관직을 사양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晦谷進學圖, 孔門言人錄, 晦谷集 등 여러 저서를 지어 남겼다.

광해군 10년(1617) 향년 79세로 서거한 후 龍山 柏潭祠에 제향되었다.

晚翠堂 金士元

金士元의 자는 景仁이고 호는 晚翠堂이며 본관은 安東이다.

중종 33년(1539) 義城에서 출생하여 퇴계선생에게 훈도를 받은 후 덕행을 실천한 선비였다.

천성이 인자하고 어릴때부터 공부를 즐겨하였던 만취당은 20세가 지난 후에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학을 받았으며 이때 선생은 武夷 觀善齋에 관한 시를 써 주면서 면학을 장려하였다.

도산에서 훈학을 받던 중 산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병이 위중하게 되자 선생이 경계하기를 “고인들이 학문을 하는데 비록 勤苦했다고 하지만 어찌 생명을 얻어 부모의 근심을 끼치는데 이르러서야 되겠느냐”고 하여, 건강을 돌보면서 공부하게 했다는 일화도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영남의 선비들이 의병에 가담하여 왜적과 싸울 때 義城齋整將에 추대되어 의병대장 金垓를 도우면서 활약했던 그는 전란 통에 굶주리는 지방민들에게 자기집 곡식과 음식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난리가 평정된 후 도움 받은 사람들이 토지와 물건을 가져와 사례하는 것조차 거절한 덕망있는 선비였다.

학문을 닦으면서 농사일에도 힘써 가난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구제한

적도 있으며 이러한 선행에 대하여 이 지방 사람들은 <金氏義倉>이라고 불렀다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생동안 관직을 멀리하고 학문과 영농에만 힘쓴 만취당은 일찍이 “선비가 처세하는데 義 아닌 것으로 祿을 받지 말 것이요, 오직 본분에 진력하면 거의 허물이 없을 것이며 언행을 삼가는 한편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農桑에 힘쓰는 등 세가지 일을 스승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樊巖 蔡濟恭이 지은 墓碣에 적혀 있다.

還故後 고향에 月瀾精舍를 지어 학문에 정진하다가 1601년(선조 34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63세였으며 義城 后山祠에 입향되었다.

坡谷 李誠中

선조 때의 문신인 李誠中의 자는 公著이고, 호는 坡谷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중종 33년 己亥(1539)에 출생하여 어릴때부터 履素齋 李仲虎와 金楊菴 문하를 찾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이 뛰어났다. 才華가 뛰어나고 학문에 남달리 정진했던 파곡은 그의 두 아우 敬中과 養中도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여 대성하게 했다.

사마시를 거쳐서 31세 때인 선조 3년(庚午)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에 들면서 관직에 나서게 된 파곡은 그후 홍문관과 사간원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이 맡겨졌으나 처음에는 부임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다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統禦使에 제수되어 다시 관직에 발탁되어 나갔으며 평양까지 임금을 호종했다.

이때 피난지에서 호조판서가 된 그는 중국 원군이 들어오자 선조 26년에는 李如松 提督이 이끄는 원군과 함께 영남지방까지 남하하여 항전을 독려하다가 그해 경상도 咸昌縣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55세였다.

그후 영의정의 증직이 내려지고 完昌府院君으로 추봉되었으며 忠簡公의 시호가 주어졌다.

퇴계선생이 서거하던 해 문과에 급제한 파곡은 서거 후 만시를 지어 도산을 다녀갔다.

한편 자를 公直, 호를 丹厓라고 하는 아우 敬中과, 자가 公浩, 호가 西川인 막내아우 養中도 문과에 급제한 후 판서와 승지 벼슬을 각각 역임하였으나 鄭汝立과 鄭仁弘 일파의 모략에 의해 그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다.

세 형제가 모두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출중한 제자들이었다.

東岡 金字顯

선조 때의 문신이요, 학자인 金字顯의 자는 肅夫이고 호는 東岡이며 본관이 義城이니 府使 金希參의 아들이다.

중종 34년(1540) 星州에서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鄭仁弘과 함께 南冥 曹植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청년시절부터 鄭寒岡과 같이 퇴계 문하에 들어와 훈자를 받게 되었으며 18세 때인 명종 12년(155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명종 23년(1567) 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홍문관 正字에 초임한 후 성균관 典籍을 비롯하여 校理, 直提學, 大司成, 副提學, 大司諫, 監司, 大司憲 등 내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나중에는 이조참판에 올랐다.

선조 즉위 초기인 正字 재임시절에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아 聖學六箴을 지어 올리고, 直提學 시절에는 神德王后의 祔廟문제가 논란될 때 正論을 펴기도 하였고 大司諫이 되었을 때에는 동서분당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친분상으로 동인의 거두인 金孝元 柳成龍 등과 가까웠기 때문에 동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선조 22년(1589) 기축옥사 때에는 모반자인 鄭汝立과 가깝다는 이유로 연루되어 파직과 동시에 함경도 會寧으로 귀양가게 되어 유배지에서 續綱目 15권을 저술하였으며 4년 후인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나 병조참판에 복관되었다.

이때 임금이 몽진중인 의주로 가서 明將 袁黃의 接伴使를 겸하여 활약하였으며 전란이 평정된 후 大司憲을 거쳐 선조 32년(1599) 漢城副尹에 제수되었고 이때 서인들의 모함으로 곤경에 빠진 柳西厓를 위한 抗疏文을 올려 구제해 주기도 했다.

그후 提學을 거쳐 吏曹參判에 올랐으나 관직에서 물러난 후 젊은 시절 曹南冥 문하에서 함께 공부한 동향의 정인홍이 퇴계선생을 공박하고 남인을 질투하는 처사가 싫어서 星州로 돌아가지 않고 淸州 땅 鼎坐山 아래 터를 잡아 은거하다가 서거했다고 擇里志 경상도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의감이 강했던 동강은 선조 36년(1603) 우거지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64세였다. 東岡集과 經筵講義, 續綱目등의 저서를 남긴 그에게 이조판서의 증직과 文貞公의 시호가 내렸으며 星州 晴川書院과 淸州 鳳溪書院, 會寧 鄉詞宇에 제향되었다.

그가 선생 易箒할 무렵 經館의 檢討官으로 재임하면서 시호 내리는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비록 행장은 없으나 朴淳이 지은 墓誌가 있사오니, 거기에 의거하여 시호를 주옵소서”라고 선조 대왕에게 진언하였으며 시호가 내려진 후 경연 강의 중에 經筵官 김우옹이 임금에게 선생의 언행에 대해 아뢰었다고 經筵記事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상께서 명하여 이황에게 시호를 내리신 것은 참으로 훌륭한 뜻이 옳습니다.

이황이 일찍이 올린 <聖學十圖>에서 그 학문의 공을 볼 수 있사옵니다. 성상께서 한가한 틈을 타시어 특별히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힘을 쓰시 오면 그 사람은 비록 서거하였사오나 그 度는 행하여질 것이오니 얼마나 크게 다행한 일이겠사옵니까”

栢巖 金玟

선조 때의 문신인 金玟의 자는 布玉이고, 호는 栢巖이며 본관이 宣城

이니 文節公 金淡의 玄孫이다.

중종 34년(1540) 榮州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는 인근의 嘯臯 朴承任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20세 무렵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게 되었으며 25세때인 명종 19년(1564)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 후 선조 9년(丙子·1576)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 후 藝文館 檢閱에 임용되면서 환로에 나서서 홍문관 正字와 修撰, 사간원 正言과 獻納, 사헌부 持平 등 삼사의 여러 관직과 이조정랑을 역임한 후 선조 17년(1584) 寧越郡守로 외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 무렵 영월에는 새로 부임하는 수령마다 화를 당하는 괴이한 일이 일어 났으나 백암이 부임하면서 먼저 端宗墓를 참배한 후 사당을 수리하여 신위를 정성껏 봉안하고, 부인 宋씨를 배향하였더니 괴이한 사건이 없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후 安東府使로 부임하여 강변 양쪽 제방을 처음으로 쌓고 映湖樓를 증수하는 등 공적을 쌓기도 하였으며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에는 영남지방 按撫使로 발탁되어 각 군읍을 순방하면서 檄書를 전하고 군읍의 수령을 적제적소에 轉位케 하여 전란 중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 뒤 경상우도 감사와 충청도 감사를 역임하였다.

잇달아 성균관 大司成과 사헌부 大司憲을 거쳐 이조참판에 오른 그는 임란 때의 공로로 光國原從勳과 宣武勳의 훈록을 받았으며 선조 35년(1602)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선임되어 연경을 다녀왔다.

원군을 파병하여 임진왜란을 막아준 데 대한 感謝使節로 가게 되었던 이 때에 명나라 병부에서 다섯조목의 난점을 들어 반박하고 나섬에 백암이 구체적인 조목을 예시하면서 자세하고 간절하게 설명하게 되어 明 황제가 감동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도록 어명을 내렸다고 하며 돌아올 때에는 大學衍義 한 질 20책을 하사품으로 얻어 왔다.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중일 때에 무사 한 사람이 왕세자의 私親임을 빙자하면서 부정한 행동을 일삼자 왕자의 청을 뿌리치고 처벌하는 용단을 내렸던 백암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생모를 추존하여 恭聖后라 廟號를 별달리 하고 慈殿을 받들어 宗廟의 禮와 같이 하례하려 함에 부

당하다고 직간하여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었다.

이 사건으로 광해군 4년(1612)에 일어난 壬子獄事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파직되었으나 재임중의 공적과 그의 충절을 아는 좌우 조신들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大司成 재임중 일 때에는 간신 鄭仁弘의 모략을 뿌리치고 李晦齋, 李退溪 선생 등 조선 5현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청원하여 뜻을 이루었으며 광해군 8년(1616)에 서거하니 향년이 77세였다.

사후 宣武勳으로 吏曹判書의 증직과 敏節公의 시호가 내려지며 榮州 龜江書院에 제향되었다.

勉進齋 琴應燠

중종 34년(1540) 禮安에서 출생하여 어릴적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훈학하여 縣監을 역임한 琴應燠의 자는 燠之이고 호는 勉進齋이며 본관이 奉化이니 日休堂 琴應夾의 아우이다.

일찍이 형을 따라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재질이 뛰어나고 글 공부에도 열중하여 선생이 친히 勉進 두 글자를 써 주면서 齋號로 삼게 했다.

이에 따라 선생이 거처하던 寒棲菴 곁에 집을 지어 면진재 간판을 걸고 밤낮으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선조 3년(1570) 30세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문과에 응하지 않은 채 학문에만 열중했다.

이때 西厓 문인인 愚伏 鄭經世 등과 周易과 啓蒙傳疑 등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한 그는 50세가 지난후에 동문인 鄭藥圃의 추천으로 再知縣監에 발탁되었으며 선조 34년(1601)에는 다시 義興縣監을 역임하게 되었다.

학행이 높고 평가되어 만년에 현감 벼슬을 지냈으며 광해군 8년(1616)에 서거하니 향년이 77세였고 사후 예안 洛川祠에 제향되었다.

竹牖 吳澐

선조 때의 문신인 吳澐의 자는 大源이요, 호는 竹牖이며 본관이 高敞이니 고려 學士 吳學麟의 후손이다.

중종 34년(1540) 榮州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인근의 嘯臯 朴承任 문하에서 공부를 하여 22세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25세 때에 숙부인 春塘 吳守胤을 따라 퇴계선생 문하에서 심오한 학문을 배우게 되었으며 27세 때인 명종 21년(1566)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 후에도 관직을 멀리한 채 학문에만 열중하던 죽유는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郭再祐 장군 진영을 뒷받침하면서 큰 공을 세운 다음 정유재란 때에는 陝川郡守가 되어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通政으로 승진되어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

이때 施政大要에 관한 상소문을 여러차례 올려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고 선정을 베풀 것을 건의한 그는 종2품인 慶州府尹에 승진되었다.

선천적으로 정의감이 강하고 성품이 강직하여서 조정에 있을 때에는 권세있는 고관들을 멀리하면서 직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죽유는 경주 부윤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시문과 저술에 힘을 기울이면서 만년을 보냈다. 東史纂要와 栗溪亂稿 등의 저서를 남기고 광해군 9년(1617)에 서거하니 향년이 78세였다.

사후 榮州 寒泉祠에 제향되었으며 저서 외에 퇴계선생 言行錄을 남겼다.

格菴 南師古

南師古는 명종때의 易學者로 호를 格菴이라고 하며 특히 풍수와 天文 相法 등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자였다.

중종 34년(1540) 호서지방에서 출생한 후 당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퇴계선생의 薰炙를 받아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격암은 도산을 찾아오는 길에 소백산 밑을 지날 때 갑자기 말(馬)에서 내려 큰 절을 하면서 “이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라고 감탄했다는 일화도

전해져 오리 만큼(李重煥著 擇里志 참조) 풍수지리에 밝혔다.

四相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그가 전국의 명산대천을 순방한 끝에 지었다는 <十勝記>는 오늘날까지 명저로 전해져 오고 있다. 즉 기근과 병화의 염려가 없는 피난지 열곳을 지적한 격암의 <십승기>를 보면 충남 公州의 維鳩와 麻谷寺 지역을 비롯하여 전북 무주의 茂豊, 충북 보은의 속리산, 전북 부안의 변산, 경북 성주의 萬壽洞, 봉화의 春陽, 예천의 金唐谷, 영월의 正東上流, 雲峯의 頭流山, 풍기의 金鷄村 등 열 개 지역이다.

이러한 그의 풍수지리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예언은 영조 때의 문신으로 풍수에 능했던 淸潭 李重煥이 擇里志를 지을 때 여러 곳에 인용할 정도로 후세에까지 높이 평가되었다.

이처럼 당대의 이름난 역학자였던 격암이 청년 시절 이후 퇴계선생에게 사사한 문인임에도 松江 鄭澈, 鵝溪 李山海 등과 함께 陶山及門諸賢錄에서 누락된 것은 도산과 먼 거리에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松菴 金沔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으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김목의 자는 志海이고 호는 松菴이며 본관은 高靈이다.

중종 35년 辛丑(1541) 고령에서 출생하여 향리에서 글 공부를 하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성현의 학문인 성리학에 관한 깊은 지식을 익히게 되었으며 이때 鄭寒岡 金鶴峯 등 여러 문인들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기품이 우뚝하고 節意가 굳건했던 그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채 학문에 열중하여 학행이 뛰어났으며 선조 초기에는 동료들의 천거로 參奉職이 주어졌으나 부임하지 않았다가 다시 趙月川, 鄭寒岡과 함께 학행으로 천거되어 六品の 관직인 현감에 올랐다.

그후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책을 덮어두고 居昌

지방으로 달려가 의병을 일으켰으며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郭再祐 鄭仁弘 등 諸將들과 함께 軍力을 합세하여 무공을 세웠다.

이 무렵 경상도 지방에서 활약하던 招諭使 金鶴峯과 監司 金眸와는 퇴계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동문들이라 송암은 곧 경상우도 병마사에 기용되어 불사초처럼 다방면으로 활약하여 조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해 연말 신병을 얻어 진주전선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52세였으며 문무의 겸비로 크게 기대되는 송암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고 말았다.

사후 그 공적을 치하하여 이조판서의 증직이 내려졌으며 고령의 道巖祠에 제향되었다.

晩全 洪可臣

선조때의 功臣인 洪可臣의 자는 興道이고, 호는 晩全이며 본관은 南陽이다.

중종 35년인 1541년(嘉靖 辛丑) 湖西에서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고향에서 수학하다가 퇴계선생이 관직에 취임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할 때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여 近思錄과 朱子書에 통달하였다.

문장에도 뛰어나고 당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았던 만전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채 학문에 정진하다가 학행으로 洪州牧使에 천거되었으며 목사로 재임중 이 지역에서 逆臣 李夢鶴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亂軍을 무찌르고 逆亂을 평정한 공으로 漢城右尹에 제수되고 뒤이어 寧原君으로 봉군되었으며 그후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광해군 7년인 1615년에 서거하니 향년이 75세였으며 사후 文莊公의 시호가 내려지고 溫陽 靜退書院과 牙山 仁山書院에 배향되었다.

같은 퇴계 문인인 一松 沈喜壽는 만전을 가르켜 근세 사대부 보전의 으뜸이라고 평했었다고 陶山門賢錄에 기록되어 있다.

南嶽 金復一

중종 36년 辛丑(1541) 臨河縣 川前에서 靑溪公의 다섯째 아들로 출생한 공의 자는 季純이고 號는 南嶽이며 復一은 이름이다.

어릴적부터 공부에 열중하여 문장이 뛰어났고 19세 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면서 朱子書節要와 大學衍義, 心經, 近思錄 등을 탐독하여 학문의 경지를 넓혔다.

24세 때인 명종 19년 甲子(1564)에 雲巖 鶴峯 등 두형과 함께 司馬 兩試에 합격한 후 30세 때인 선조 3년(1570)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퇴계 문하에서 수학한 다섯형제 중 藥峯과 鶴峯에 이어 세 번째로 문과에 급제하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 고향에 머물러 있다가 선조 8년 성균관 學諭에 등용되면서 환로에 나가게 되었으며 學正을 거쳐 선조 12년 성균관 博士가 되었다가 곧 典籍에 올랐고 그 다음해 庚辰(1580)에 형조좌랑이 되었으나 부친 淸계공이 서거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삼년상례를 치루게 되었다.

그후 공조와 호조의 좌랑 벼슬이 주어졌으나 부임하지 않았다가 성균관 典籍에 기용되자 다시 관직을 맡게 되었으며 함경도 都事를 거쳐 선조 16년(1583) 호조정랑에 임용되어 경기도 災傷敬差官을 겸임하였다가 전라도 어사로 발탁되어 호남지방의 탐관오리를 숙청하는데 공헌했다.

선조 17년(1584) 刑曹正郎을 잠시 거쳐 강원도 都事로 전임되었으며 이때 강원도 관찰사 栢谷 鄭崑壽가 도산서당의 동문인지라 중요 정사에 관한 의논의 상대가 되었다.

그러나 선조 20년(1587) 蔚山郡守로 전임됨에 따라 경상도 지방으로 이거하게 되었고 울산에서 쌓은 치적이 높이 평가되어 昌原府使로 승진하였다.

신임지인 昌原府는 통제부와 감영이 가까운 곳이라 남악은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민폐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감사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어 부사직에서 파직되었다가 그해 가을 慶州 教授란 지체가 낮은 교직에 다시 등용되었으나 불평없이 부임하여 후진들에게 經學을 가르치고 道義를 권장하여 명성을 얻게 되었다.

3년 뒤인 선조 23년 庚寅(1590) 丹陽 郡守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가 다음해 성균관 司藝와 司成에 임용되어 부임하였다.

이때 선조 임금의 은전으로 文獻備考와 大明一統志, 宋鑑, 性理大全 등 서책을 하사 받았다고 景泗流芳에 기록되어 있다.

뒤이어 豊基郡守에 임용되었다가 선조 24년 辛卯(1591) 8월에 신병으로 귀향 중 우거지인 醴泉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51세였다.

중년에 臨河 本郷에서 예천 金谷으로 이거하여 德進洞에 서당을 지어 강학하다가 뒤에 鼎山으로 옮겨 서원을 창건하여 교학을 진흥시킨 그의 학행은 퇴계선생의 신위를 봉안하기 위해 廬江書院을 건립할 때 사림의 중론으로 사액을 청하는 明文을 남악이 쓰도록 추천하리 만큼 뛰어났던 것이다.

遺文의 대부분은 임진 병화에 소실되고 일부 시문만이 聯芳世稿에 실려 있으며 사후 안동 泗濱書院과 예천 鳳山書院에 제향되었다.

艮齋 李德弘

중종 35년(1541) 榮州 九龍洞 외가에서 출생한 李德弘의 자는 宏仲이고, 호는 艮齋이며 본관이 永川이니 孝節公 龔巖 李賢輔 선생의 從孫이자 興海教授 李忠樑의 아들이다.

어려서 惺齋 琴蘭秀 문하에서 글 공부를 하다가 15세가 넘은 뒤에 성재를 따라 퇴계선생에게 훈자를 받게 된 간재는 학문에 몰두하여 성리학은 물론 兵略, 算學, 曆法 등에도 능통하였으며 과거에는 응시하지 않았으나 뒷날 학행으로 추천되어 참봉과 현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손위 형인 坤齋 命弘, 蘆雲 福弘과 함께 도산서당에서 수학하여 여러

형제 從班 중 학문이 뛰어났던 간재는 1570년 30세에 이미 향리 伊洞에 ■溪精舍를 창건하고 여기서 渾天儀와 璿璣玉衡을 제작하여 퇴계선생에게 올렸다.

이 해 선생이 易箒하기에 앞서 子侄과 수 많은 제자 중 서적을 관리하라는 유명을 받으리 만큼 선생의 총애를 받았던 간재는 이후 3년 동안 素食으로 心喪의 예를 받들으로써 제자의 도리를 다하였다.

선조 초기 조정에서 학덕이 뛰어난 在野 名儒 9인을 천거할 때 鄭寒岡이 제1위이고 公이 4위로 뽑혔으며 이에 따라 38세 때인 선조 11년(1578) 學行으로 集慶殿 參奉에 제수되면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그후 昌陵과 顯陵의 參奉, 豊儲倉 奉事, 宗廟·司甕署의 直長, 翊衛司 右副卒을 거쳐 永春縣監에 이르렀으며 29세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王世子宮의 관원으로 평안도 成川까지 왕세자를 호종하였다.

임란 중인 선조 29년(1596) 56세로 서거하였으며 임란 초에 세운 공적으로 사후 衛聖功臣 一等에 錄勳되고 이조참판의 증직이 추증되었으며 榮州 ■溪서원에 제향되었다.

퇴계선생의 신망을 받았던 간재는 선생 역책 후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추모하였다.

祭文

공손히 생각하노니, 우리 선생은 순수한 자질에 和順한 덕이었다. 程朱의 도학에 공맹의 심법이라, 밝힘과 정성을 아울러 힘쓰고, 정과 성을 함께 기르니 겉과 속은 서로 연하고 움직임과 그침은 모두 발랐도다.

즐거울 때 나아가 행하고 걱정될 때 떠나 물러서니, 경우에 따라 다 평안해 하였도다. 구슬은 물속에 감추어졌고 옥은 산에 묻히었도다. 濂溪의 仙風霽月이요, 延平의 氷壺秋月이라 아득히 끊어진 그 실끝을 생각하지 않고도 스스로 얻었도다. 한 나라의 태산이며 북두였도다. 한

代의 宗匠이 되고 백세의 우두머리가 되었도다. 그 문하를 바라보고 달리어 오니 많은 선비들이 모였도다.

예로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공평으로 그들을 힘쓰게 하였다. 月瀾에 계시던 그 어느날 한밤에 혼자 일어났을 때 마침 德弘이 곁에 있다가 敬字의 뜻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의관을 정제하는 것” 또 “생각을 한결 같이 하는 것, 어떤 일이나 그렇게 하면 성현이 될 수 있다.” 하였도다. 사랑해 주심이 어버이 같았는데 자식같이 섬기는 禮를 다하지 못하였도다.

정성이 築場에 모자랐으니 죄가 천지에 끝이 없어라. 시내에 봄이 돌아와 모든 풀들이 때를 얻었는데, 산매화는 슬픔을 뻗었고 시내 버들은 시름을 머금었도다.

蒙齋 李安道

文純公 이퇴계선생의 장손인 공의 자는 逢原이며 호는 蒙齋이다.

중종 35년 辛丑(1541) 陶山 上溪에서 출생한 몽재는 어릴적부터 조부인 퇴계선생에게 훈도를 받아 일찍이 學禮를 성취하여 선생 문하에 찾아 드는 전국의 선비들과 친교를 갖게 되었으며 21세 때인 명종 16년(1561) 사마시를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했다.

천성이 순후하고 인자하여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산을 드나드는 많은 문인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응대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았으며 선생이 역책할 무렵에는 부친 僉正公(李寯)이 奉化縣監에 재임하고 있었던 관계로 선생 곁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여러 문인들과 가깝게 지냈다.

후일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이 되었다가 軍器寺 直長을 역임하였다.

선생 역책 후 여러 문인들과 함께 선생의 文集抄錄과 연보를 편집 발간하고 여러 子侄孫 중에서 言行錄을 남긴 바 있으나 43세 때에 親喪을 당하여 居喪하던 중 44세로 廬所에서 서거하니 이때가 선조 17년

(甲申·1584) 8월이었다.

서거 후 禮安 東溪祠에 入享되었다.

퇴계선생의 역책할 무렵의 언행에 대한 기록을 考終記에 남겼으며 몇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午年 11월 9일에 時享이 있어서 濶溪에 올라가 종가에서 목을 때에 처음으로 寒疾을 만났다. 제사를 지낼 때에 櫛을 받들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자기 손수 하셨는데, 기분은 갈수록 편치 않으셨다. 자제들이 “氣候가 불편한데 제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였더니 선생은, “내 이미 늙었으니 제사 모실 날도 많지 않은데 조상 제사에 참례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셨다.(李安道)

12일부터 家曆 日記 쓰는 붓을 놓으셨다. 15일에 이르러 병세는 더욱 위독해 갔다.

奇明彦이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글을 물으니, 선생은 누워서 답을 쓰셨는데 致知格物의 해설을 고쳐서 그 제자들을 시켜 깨끗이 쓰게 하여 명언과 정자중에게 부쳐 보냈다.

12월 3일 병세가 몹시 위독하였다. 자제들을 시켜 여러 사람들의 책을 읽어 버리지 말고 돌려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다시 그 손자 安道에게 “전일에 교정관 慶州本 <心經>을 아무 개가 빌려 갔으니 네가 받아 와서 韓參奉에게 보내어 抄本 중에 틀린 곳을 고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셨다.(李安道)

西厓 柳成龍

선조 때의 문신으로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정치가요, 학자인 선생의 자는 而見이고 호는 西厓이며 본관이 豊山이니 관찰사를 지낸 柳仲郢의 아들이다.

중종 36년 壬寅(1542) 10월 1일 義城 沙村 외가에서 출생하여 여섯 살 때에 大學을 배우고 8세에 이미 맹자와 논어를 읽고 16세 때에 향시에 합격하리 만큼 재능이 뛰어났던 서애는 21세 때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심오한 학문을 닦음으로써 뒷날 유학자로, 또 정치가로

대성하게 되었다.

소년시절에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처음으로 도산서당을 찾아 갔을 때 퇴계 선생으로부터 “이 아이는 하늘이 낳은 인재인 바 반드시 大儒를 이루리라.”고 칭찬을 받았던 서애는 이후 心經과 近思錄 등을 배워 성리학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23세에 司馬兩試에 합격하여 생원과 진사가 되고 25세 때인 명종 21년(1566)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權知 副正字에 피임되면서 환로에 나서게 되어 26세에 藝文館 檢閱 및 待敎에 올랐다가 28세에는 成均館 典籍과 工曹佐郎을 역임한 후 명나라에 파견하는 聖節使 書狀官으로 선발되어 明京을 다녀 왔다.

이때 일행이 명경에 들어가 宣治門 밖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 太學生 수백명이 몰려 오자 서애는 그들에게 “요즘 明朝의 名儒 중에서 누구를 道學의 師表로 삼느냐?”고 묻자 “王陽明과 陣白沙로 으뜸을 삼는다.”는 대답이었으며 이에 서애는 “白沙는 道學에 대한 견식이 精하지 못하고 陽明의 學은 오로지 禪學에서 얼굴을 바꾼 것인 만큼 薛文淸으로 사표를 삼는 것이 옳을 것이요.”라고 하여 明士 吳京으로 하여금 탄복하게 했다고 한다.

그 뒤 오경이 玉河關까지 찾아와 호의를 베풀게 되자 퇴계선생의 <聖學十圖>를 내어 보였으며 귀국한 후 明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선생에게 보고하자 퇴계는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내 서애의 활약을 칭찬하였다.

“陸氏의 禪學이 천하를 灑囊함이 이와 같으니, 浩歎하여 마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燕京에 들어간 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를 만나 그러한 말을 한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대가 능히 수백의 諸生을 만나 이러한 正論을 내어 그 흥미함을 깨우쳐 주었으니 이는 쉽게 얻지 못할 일이다.”

29세에 明京에서 돌아와 弘文館 副修撰·修撰을 거쳐 사간원 正言과 이조좌랑에 올랐으며 이 해 겨울 퇴계선생의 訃書가 이르자 在京 여러

문인들과 함께 鶴峯의 館所에 모여 會哭하였고 다음해 봄 도산으로 내려와 會葬하였다.

그 뒤 홍문관 校理를 비롯하여 이조정랑, 사간원 獻納, 의정부 檢詳·舍人, 홍문관 應教·典翰, 사헌부 掌令, 軍器寺正, 홍문관 直提學·副提學, 承政院 同副承旨, 이조참의, 상주목사, 사간원 大司諫, 사헌부 大司憲, 성균관 大司成, 승정원 都承旨 함경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등을 차례로 역임한 후 43세 때인 선조 17년(1584)에는 예조판서에 올랐다.

46세에 형조판서에 전임되었다가 성균관과 홍문과 大提學, 병조판서, 知中樞府事, 예조판서 등 요직을 역임한 서애는 이 기간 중 학문에도 진력하여 <大學衍義>를 抄하고 <備邊五策>을 지어 올리는 한편 <皇華集序>와 <圃隱年譜>를 撰進하고 <退溪先生文集>을 編次하였으며 軍威의 南溪書堂과 河回 北厓의 玉淵書堂을 이룩하여 후진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기도 했다.

선조 23년(1590) 49세로 議政府 右議政에 오르고 宗系改正의 공적으로 光國功臣 三等에 錄勳되고 豊原府院君에 봉군되었으며 그 다음해에는 이조판서를 겸직하는 특전을 받았다가 곧 좌의정에 오르고 뒤따라 임금의 특명으로 홍문관 대제학을 겸임하게 되니 다른 대신들은 한번 오르기도 어려운 文衡錄에 이례적으로 두 번째 오른 셈이었다.

좌의정에 오른 후 당시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 온 黃允吉을 통하여 일본이 명나라를 쳐들어 갈 것 같더라는 왜 정세를 보고받은 바 있는 선생은 영의정 李山海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나라에 통보해 주어 明帝의 환심을 얻었으며 이와 동시에 변비사에서 才將을 뽑을 때 형조정랑 權慄을 의주목사에 천거하고 井邑縣監 李舜臣을 全羅左道水使에 발탁되게 함으로써 그 다음해에 일어난 임진왜란에 대처케 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일대 英斷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세 때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쳐들어 오자 좌의정으로서 다시 병조판서를 겸직하게 된 선생은 李鎰과 申砮을 巡邊使로 삼고 成應吉, 趙徹으로 左右防禦使로 기용하여 왜적의 복침을 막

게 하였으나 패전의 소식이 전해지자 친히 都體察使가 되어 諸將을 통솔하게 되었으며 이어 서북쪽으로 몽진하는 임금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라는 명을 받아 大任에 나섰다.

이때 도승지 李恒福이 임금께 이퇴기를 “서쪽으로 가서 물 하나를 건너면 곧 중국 땅인 만큼 의당히 酬酌, 應變의 일이 있을 터인 바 이제 朝臣 중에서 명민하고 練達하여 古誼를 잘 알고 愬命에 능한 이는 오직 유성룡 한 사람 뿐인 만큼 따라가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임금의 행차에 따르게 되었으며 그해 5월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임진강을 건널 제 선조는 서애에게 “만일 뒷날 국가가 中興한다면 의당히 경의 힘을 입을 것이요.” 하였다.

그후 東坡驛에 이르렀을 때 선조는 여러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나는 장차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고 탄식할 제 도승지 이항복이 아퇴기를 “義州로 갔다가 八路가 모두 함락될 경우에는 明朝에 呼匡하셔야 합니다.” 하였으며 이에 서애는 “불가합니다. 大駕가 東土에서 한 발자국만 떠난다 해도 조선은 우리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라고 불가론을 아퇴는 한편 이항복과 여러 차례 논변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諸道가 예와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東北의 병마가 온전하고, 호남의 의병이 응당 不日內에 봉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함부로 이런 일을 논할 수 있겠는가?”고 하니 그제서야 李都承旨도 그 뜻을 깨닫고 반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서애는 戶曹判書 李誠中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항복을 만나거든 나의 뜻을 전해 주게. 그는 어찌 가볍게 棄國論을 주장한단 말인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항복이 비록 길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인, 시녀, 내시의 충성에 불과한 것이야. 국토를 버린다는 말이 한번 퍼뜨려지면 와해되는 인심을 누가 능히 수습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뜻을 명백히 알지 못하고 있던 이항복은 급기야 寧邊에 이르렀을 때 유언비어가 크게 전파되어 관서의 인심을 수습하기 어려운 것을 목격한 연후에야 비로소 서애의 선견지명에 탄복하고서 뒷날 사과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일이 있은후 大駕가 開城에 이르렀을 때 영의정 이산해가 파직되자 영의정에 승진되었으나 申礪 등의 무고에 의하여 곧 파직당하였으며 평양에 이르러 이산해에게 유배령이 내려질 때 서애에게도 문책설이 있었다. 이때 이항복 洪麟祥 등의 力諫으로 화를 입지 않고 다시 府院君에 복군되어 明將 林世祿을 접대하는 한편 평양을 고수할 것을 啓請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의주에 이르러 북방에 유배중인 曹好益을 사면케 하여 강동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뒤이어 평안도 都體察使에 발탁되어 명나라 提督 李如松이 4만 원병을 이끌고 定州에 도착했을 때 평양 지도를 전해 주면서 평양 탈환 등 남하 진로를 지시하였으며 다음해(선조 26년)에는 湖西·湖南·嶺南의 삼도 都體察使가 되어 이여송 제독과 이순신·권율 장군 등이 전개하고 있는 육해전을 독려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한편으로 군사 훈련 실시와 訓練都監 설치 등을 건의한 선생은 그해 10월 임금을 모시고 환도한 후 다시 영의정에 올라 왜적을 내몰고 전란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다.

선조 27년(1594) 초에는 글을 올려서 군사를 훈련시킴에 있어 勤慢을 조사하여 상벌을 밝히게 하고 호서지방의 寺社와 位田 등을 훈련도감에 귀속시켜 군량에 보충하게 하였으며 烏嶺에 屯田을 설치하여 전시에 대비케 하는 한편 9월에는 인재를 널리 등용케 하는 <請廣取人才啓>를 올려 시행케 하고 또 <戰守機宜十條>를 올려 시행케 했다.

54세 때인 선조 28년(1595)에는 다시 경기·황해·평안·함경도 등 4道の 도체찰사를 겸임하여 北方部の 항전을 督察하는 등 전란의 뒷수습에 진력하였으며 충무공 이순신을 극력 변호한데 대한 무고가 있자 56세 때에는 여러차례 관직을 사임하려 한 바도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해인 선조 31년(1598) 드디어 관직에서 파직되고 府院君에 批下되었고 그해 12월에는 간신 鄭仁弘의 무고에 의해 일체의 관직이 삭탈될 바 있으나 2년 후인 59세 때에 오해가 풀려 다시 職牒을 돌려받게 되었다.

57세 때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곧 바로 향리인 安東府 內河回로 귀향하여 학문에 열중하면서 퇴계선생 연보를攢하고 뒤이어 <慎終錄><永慕錄><喪禮考證> 등을 저술하였으며 63세 때인 선조 37년(1604)에는 다시 豊原府院君에 封해지고 扈從勳 二等과 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때 문하생인 愚伏 鄭經世와 학문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64세에는 <知行說>과 <知行合一說>을 써서 王守仁의 설을 논박하였으며 帝王紀年錄을 찬술하였고 또 上疏文을 올려 奉朝賀의 祿을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선조 40년 丁未(1607) 5월 6일에 서거하니 향년이 66세였다.

임진왜란시의 亂中日記인 <懲忿錄><亂後雜錄><喪禮考證> 등 많은 저서를 남긴 선생은 사후 道德博聞과 危身奉上的 뜻이 담긴 文忠公의 諡號를 받았으며 安東의 屏山書院을 비롯하여 虎溪書院, 軍威의 南溪書院, 尙州의 道南書院, 龍宮의 三江書院, 義城의 氷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秋淵 禹性傳

중종 36년인 1542년 서울에서 출생한 禹性傳의 자는 景善이고 호는 秋淵이며 본관이 丹陽이니 여말의 碩學 易東 禹倬선생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도산으로 내려가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은 그는 이 지방 출신 문인인 鶴峯 金誠一, 鶴川 李逢春, 芝軒 鄭士誠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학문에 있어서는 易象과 예학에 관해서 조예가 깊었다.

선조 즉위 초기에 문과에 급제하여 弘文館, 司諫院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다음 선조 15년(1582) 應敎가 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에는 成均館 大司成에 올랐다.

성격이 독존적이어서 眼高一世라는 평을 받았던 추연은 선조 20년을 전후하여 동서분당이 이루어질 때에는 金孝元 柳西厓 등과 함께 동인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90노모의 만류를 무릅쓰고 의병을 일으켜 서해안 江華로 가서 의병장 金千鎰과 함께 왜적을 대항하여 항전하다가 다음해 富平 근방에서 병사하니 향년이 52세였다.

癸甲日錄, 喪禮問答 등의 저서와 퇴계선생 언행록을 후세에 남긴 그는 사후 文康公의 시호를 받았다.

추연이 남긴 선생 언행록 중 대표적인 몇 토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性傳이 花山(安東의 舊名)에 오래 있었는데 그 城中 사람들을 만나 보면,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퇴계선생을 일컬어 문안할 뿐아니라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 받드는 생각을 가졌었다.

촌사람으로서 비록 선생의 문하에 출입이 없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또한 사모할 줄 알아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혹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퇴계선생이 알까 두려워하였으니 그의 교화가 남에게 이르름이 이러했다.<禹性傳>

선생의 학문은 대개 주자로서 근본을 삼았으니 공리에도 그 뜻을 빼앗기지 않았고 이단에도 그 소견이 현혹되지 않았다. 널리 알면서도 잡되지 않고, 간략히 잡아도 고루하지 않았다. 학문을 의논할 때는 반드시 성현을 근본하면서 자기의 얻은 바의 진실을 참고하고 남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사람의 윤리를 주로 하면서 理를 밝히는 공부를 첫째로 쳤으며, 자기 자신을 正으로써 지키면서도 구차스레 남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예법을 의논하면 옛것을 끌어 오면서도 당시의 제도를 빼지 않았었다.

자기 몸 닦기를 급히 하면서도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남을 따르기에 날래어서 자기의 모자람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 대하기를 和로서 하니 사람들이 절로 공경하였고, 아랫사람 대접하기를 너그러움으로서 하니 아랫사람이 절로 조심하였다. 한가지 절개와 한가지 善으로서 이름을 이루려 하지 않아도 배운 바 지킨 바의 올바름은 동방에서 구해 보아도 그와 겨룰 이가 없을 것이다.

乙丑年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性傳이 溪南書齋에 있을 때였다.

선생은 항상 東齋에 계셨는데, 밤이 깊어서야 자리에 드시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의관을 가다듬고 서재에 나오셨다. 이렇게 하기를 날마다 변함

이 없었다.<禹性傳>

壺峯 宋言愼

선조 때의 문신인 宋言愼의 자는 寡尤이고 호는 壺峯이며 본관이 礪山이니 府使를 지낸 宋崱의 아들이다.

증종 36년(1542)에 나서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성리학에 달통했던 호봉은 10세 소년 시절에 이미 권신으로 행세하던 요승 普雨를 조정에서 몰아내라고 상소문을 지어 올리리 만큼 정의심이 강했으며 초년에는 柳眉庵 許草堂 盧蘇齋 등 여러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30대 이후부터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심오한 학문을 닦았다.

26세 때인 명종 22년(1567) 사마시에 합격하고 선조 10년 丁丑(1577) 문과에 급제 후 弘文館 正字와 修撰, 司諫院 正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선조 17년(1583)에는 영남지방 어사로 발탁되어 경상도 일원을 순방하던 중 옛 스승을 추모하여 도산에 들리기도 했다.

이때 선생의 자제 兪正公의 여막에 들러 문상하고 상경하여 그해 두 형을 잃고 혼자 거상하고 있는 東巖公의 참상을 임금에게 復命하여 뒷날 동암공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후 홍문관 校理, 사헌부 持平과 執義, 사간원 大司諫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북방지역의 행정을 주관하여 선조의 신망을 받았다.

환로에 나선 이후에도 불교를 배척하여 요승 보우를 파직 처단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許筠을 처벌하도록 상소하는 한편 도교를 숭상하는 郭再祐를 처벌하도록 여러차례 상소문을 올린 호봉은 임란이 평정된 후 이조판서에 올랐다.

그러나 광해군 즉위 초기에 일어난 사회에 몰려 파직되어 고향에 돌아 학문에 정진했다.

학문이 뛰어나 聖學指南 등의 저서를 남긴 바 있으며 광해군 4년

(1612) 서거하니 향년이 71세였다.

사후 原從功臣 一等에 훈록되고 榮襄公의 시호가 내렸다.

丹厓 李敬中

선조 때의 문신인 李敬中의 字는 公直이고 호는 丹厓이며 본관이 全州이니 임란 때 호조판서를 역임한 完昌府院君 李誠中의 아우이다.

중종 36년(1542년·壬寅) 서울에서 출생한 단애는 아우인 西川 李養中과 함께 당시 전국적인 대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던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도를 받았으며 사마시를 거쳐 문과에 오른 후에는 예문관, 홍문관, 사간원의 여러 관직을 거쳐 선조 22년에는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이때 전주 출신으로 진안 竹島에서 모반을 주동하여 을축옥사가 일어나게 했던 鄭汝立 사건을 막아 내는데 공을 세웠으며 이때의 공적으로 사후 동문인 柳西厓의 천거로 이조판서의 증직과 文敬公의 시호가 내렸다.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있는 후 당쟁을 주동한 대북파의 우두머리 鄭仁弘이 모함하려 하였을 때에도 유서애의 변호로 화를 면할 정도로 서애 선생과 친교가 두터웠으며 坡谷을 위시한 이들 삼형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면서 영남 도산의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고 모두가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에 진출하고 형제가 시호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아우인 西川 李養中도 도산에서 훈자를 받은 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으며 형인 枋곡은 사후 영의정의 증직과 忠簡公의 시호를 받았다.

松澗 李庭檜

공의 字는 景直이고 호는 松澗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松安君의 8대손이고, 善山都護府使를 지낸 李禎公의 嗣孫이다.

중종 36년(1542) 安東 周村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는 조부인 慶流亭 訓導公 演에게서 글 공부를 하다가 소년시절부터 再從曾祖인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도를 받은 송간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후에도 학문에 정진하였다.

학행이 뛰어나 30세 이후 柳西厓 鄭藥圃 具柏潭 등 동료 문인들의 천거로 通禮院 引儀에 등용되면서 관직에 나가게 되었으며 그후 副尉를 역임하고 再知縣監으로 외직에 나아가 덕을 쌓았다.

성품이 후덕하고 인자하여 존경을 받았던 송간은 46세 때인 선조 20년 丁亥(1587)에는 參正으로 발탁되어 陣慰使를 수행하여 入京하였고 이때의 공으로 宗系錄에 光國原從功勳으로 훈록되었다.

그후 곧 귀향하여 祖先事業을 주관하면서 퇴계선생의 문집과 연보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선조 35년 임인(1602)에는 선생의 손자 동암공과 함께 先鄉인 眞寶에 寓居하면서 鳳覽書院을 창건하여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를 올렸다.

만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유서애와 鄉俗의 정립을 의논하는 등 향리에서 은거하다가 광해군 4년(1612)에 서거하니 향년이 71세였다.

祖先의 유업을 받들기 위하여 鵲山精舍 증건에 진력한 송간은 사후 松安君 신위가 봉안된 鵲山祠에 종향되었다.

鶴川 李逢春

퇴계선생 문인 3백 20여명 중에는 선생의 子孫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일가 집안 사람들이 훈자를 받았음이 문인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文科에 급제하여 盈德縣令과 新寧縣監, 醴泉郡守, 大邱府使 및 成均館 直講 등을 역임한 학천도 일가 문인 중의 한 분이다.

중종 36년 壬寅年(1542) 安東郡 一直面 松里에서 출생한 공의 지는 根晦이며 호는 鶴川이다.

어린시절에는 軍資監 直長을 역임한 조부(諱漢)한테서 수학하다가

15세 이후부터 陶山에 2 들어가 집안 촌수로 再從 증조부가 되는 퇴계 선생 문하에서 사서삼경 등에 관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여 뒷날 문과에 급제하여 국학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학친은 남매간인 鶴峯 金誠一과 같은 연배인 秋淵 禹性傳, 寒岡 鄭述, 芝軒 鄭士誠 등과 친교를 두텁게 하였으며 관계에 진출하는 것보다 학문 연구와 문예에 더 깊은 뜻을 두었던 관계로 30세 후인 선조 9년(1576)에야 주위 친지들의 권유로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던 것이다.

급제후 成均館 學諭와 學正을 거쳐 정6품 벼슬인 典籍에 올랐으며 그 후 외직에 나가 영덕현령에 부임하였으나 40세 때인 1581년(선조 14년) 부친 參議公(諱 希聖)이 별세하자 3연상을 치르기 위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환고했다.

부친상례를 치른 이후에도 신녕현감과 예천군수, 대구부사 등 외직이 제수되었으나 취임하기도 하고 취임하지 않기도 하다가 늦게야 오늘날 국립대학 교수격인 성균관 直講에 제수되어 유학을 강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내 곧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文藝와 학문 연구에 정진했다.

이에 대하여 陶山門賢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嘉靖 壬寅(1542)에 출생한 李逢春은 선생의 族曾孫으로 어릴때부터 성품이 중후하고 行身이 곧고 발라 사림의 추망을 받았으며 선생 문하에 들어온 후에는 金鶴峯·禹秋淵·鄭芝軒 등 문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논어, 맹자 등 四書 연구에 열중하였다.

그후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의 여러 관직이 맡겨졌으나 취임하기도 하고 취임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서울에 체류하면서 내직에 있을 때에도 권세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학문과 시문을 좋아하여 관직이 국자감(성균관) 直講에 그쳤다. 만년에는 후진 훈학에 힘을 기울였고 84세로 서거 후에는 龍巖祠에 배향되었다.

이와 같이 관직을 멀리하고 학문 연구와 시문에 뜻을 둔 것은 퇴계 선생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보다 4년 연상

인 처남 金鶴峯이 通信副使로 일본을 다녀온 후 동서당쟁에 몰려 임진왜란 전후 큰 곤욕을 치르는데 적지않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문을 즐겨한데 대하여는 鶴川文集에 여러 작품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산서당에서 수학할 때 퇴계선생이 지은 陶曲(陶山記와 陶山雜詠)을 가져간 적이 있는데 당시 외지에 나가있던 선생이 手柬을 친히 보내 도곡을 절대로 전과하지 말도록 당부한데서도 여러 문인 중 시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인조 2년인 1625년(乙丑年) 6월 14일 향리에서 84세를 일기로 서거한 후 향리의 龍巖祠에 추향되었으며 관직을 멀리하고, 학문 연구에 큰 뜻을 두었던 학친의 遺訓은 자제인 石南公(諱 敬遵)을 비롯하여 開谷, 懶龔, 景玉齋, 勿庵, 近仁堂, 栢峯, 后山 등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다.

顧庵 丁胤禧

선조 때의 문신인 丁胤禧의 자는 景錫이고 호는 顧庵이며 본관이 羅州이니 左贊成을 지낸 丁應斗의 아들이다.

중종 36년(1542) 강원도 原州에서 출생한 고암은 어릴적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20세 무렵에 司馬兩試에 합격한 후 문과 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천성이 검소하고 학문을 좋아하였고 특히 경전에 통달하였던 그는 문과에 장원으로 뽑힌 후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외직에 나가 여러 고을의 부사와 목사를 지냈으며 마지막에 가선 관찰사에 올랐다.

그러나 신병을 이유로 더 이상의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賁趾 南致利

南致利의 자는 義仲이고, 호는 賁趾이며 본관이 英陽이다.

중종 38년 癸卯(1543)에 安東府內 法藏洞에서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부친 漁隱公에게 수학하였고 소년시절에는 惟一齋 金彥璣에게 수업을 받았던 그는 21세 때부터 琴惺齋와 具柏潭을 따라서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심오한 학문을 수업하게 되었으며 이때 선생은 제자인 金惟一齋, 琴惺齋 등을 좇아 도산에 온 분지를 맞이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獎學을 허락했다고 한다.

이후부터 거의 매일 도산을 왕래하면서 心經, 啓蒙傳疑, 太極圖說 등에 관한 책을 읽고 훈학을 받아 당대 뛰어난 젊은 선비로 명망을 받아 <退溪의 顔子>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명성은 1570년(庚午) 선생이 역책했을 때 27세의 젊은 나이로 수 많은 고관 석학의 문인들을 제치고 오늘날 같으면 정부장으로 치루어진 선생 예장시에 相禮로 추대되어 治葬을 주재하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는 곧 나이는 젊지만 학문과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30세 때인 선조 6년(1572)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는 응하지 않고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 퇴계선생의 유저인 <理學通錄>과 <啓蒙傳疑>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여 간행하는데 힘썼으며 이러한 학행은 36세 때인 선조 12년 조정에서 뛰어난 선비 9인을 천거할 때 刻苦志學, 安貧樂道, 淸修高節의 수범자로 높이 평가되어 鄭寒岡과 함께 수위로 뽑히게 했다.

이와같이 조야로부터 뛰어난 인물로 선망을 받았으나 선조 14년(1580) 향년 38세로 요절함에 따라 더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시문이 뛰어나 言行雜錄 등의 저술을 남긴 분지는 서거후 魯林書院에 제향되었다.

일생동안 퇴계선생의 학문을 따르고 받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선생 서거후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옛 스승의 역책을 슬퍼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 선생은 기운이 光岳의 靈氣를 모았고 바탕이 金玉처럼 순수하다. 천년의 실마리를 이어 동방의 학문을 얻었도다. 앉은 자리에는 봄 바람이 불고 가슴 속에는 가을달이 비치도다.

일찍이 고향으로 물러가니 마음은 道와 함께 있었도다. 仁은 반드시 福을 얻나니 오랜 수명을 누리었도다. 무엇으로 세상을 마쳤다고 할까. 법을 넘지 않는데 그치었도다.

寒岡 鄭述

鄭述의 자는 道可이고 호는 寒岡이며 본관이 淸州이니 文翼公 鄭柏谷의 아우이다.

중종 37년인 嘉靖 癸卯(1543) 星州에서 출생하여 7세 전후에 이미 대학과 논어에 통달하여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9세에 부친상을 당하자 성인처럼 執喪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한강은 12세 때에 공자의 화상을 그려서 벽위에 걸어두고 瞻拜할 정도로 일찍부터 志氣가 뛰어났다.

그후 인근의 德溪 吳健선생에게 훈학을 받아 주역 등 四書에 통달하였으며 20세가 넘은 뒤에야 퇴계선생과 남명선생 문하에 드나들면서 심경 등 경전을 배워 학자로서 대성하게 되었다.

21세 때인 명종 18년(1563) 향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그후 과거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다가 37세 때인 선조 13년(1580) 학행으로 천거되어 昌寧縣監에 제수되면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뒤이어 知禮·同福縣監, 사헌부 持平, 공조·호조정랑, 古阜·威安·通川·寧越郡守, 江陵·洪川·安東府使, 승정원 副承旨와 右承旨, 형조참의, 忠州·海州·光州牧使, 江原·忠淸·慶尙都事, 刑曹·工曹參判 등을 차례로 역임한 후 광해군 즉위 초인 1609년 사헌부 大司憲에 발탁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통천군수로 재임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무공을 세우기도 한 한강은 대사헌이 되었을 때 鄭仁弘 등의 작당으로 임해군의 옥사가 일어나자 삼사가 모두 일어나 처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사헌부 책임자인 그 자신만이 이에 관련된 모두를 용서하라는 상소를 여러차례

올린 후 관직에서 물러나 성주로 귀향했다.

광해군 5년(1613) 癸丑獄事가 일어나자 永昌大君을 구제하려고 다시 상소를 하기도 했으며 관직에 나서기에 앞서 일찍이 성주 蒼坪山 기슭에 세웠던 寒岡精舍 곁에 檜淵書堂을 새로 지어 百梅園이라 명명하고 이곳에서 許穆, 張顯光 등 많은 문인들을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냈다.

만년에 蘆谷精舍·泗陽精舍 등을 건립하여 유유자적하면서 시문을 즐기던 한강은 경학을 비롯하여 算數·兵學·醫藥·禮學·地理 등에 능통하여 40여권의 저서를 남겼으니 朱子書節要綱目, 心經發揮, 景賢續集, 古今人物志, 醫眼集方, 關東志, 冠儀 등이 그 대표적인 저서이다.

학행이 뛰어나 조정에서 뽑은 재야 9인 중 제1위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서게 되었던 한강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사림의 존경을 받았으며 광해군 13년(1620) 향리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78세였다. 사후 처음에는 이조판서의 증직을 받았으나 뒤에 영의정이 추증되고 文穆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그리고 성주의 회연서원과 川谷書院을 비롯하여 대구의 研經書院, 昌原의 檜原書院, 成川의 鶴翎書院, 昌寧의 冠山書院, 忠州의 雲谷書院, 沃川의 三陽書院, 玄風의 道東書院, 咸安의 道林書院, 漆谷의 泗陽書院, 通川의 景德祠宇 등에 제향되었다.

芝山 曹好益

문신이면서도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운 曹好益의 자는 士友이고, 호는 芝山이며 본관이 昌寧이니 청백리 曹致虞의 증손이다.

인종 원년(1545) 永川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향리에서 글 공부를 지극히 하여 8세에 이미 文義에 능통했던 그는 17세 되는 해부터 친형인 光益을 따라 도산에 들어가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아 학문이 뛰어났다.

近思錄 등을 읽으면서 朱子學에 대한 공부를 남달리하였던 지산은 16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2세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섰다

가 일찍이 요절한 광익과는 달리 과거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선조 9년(1576) 학행을 인정받아 경상도 都事 崔滉으로부터 軍籍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업무 중 과실이 일어나 평안도 江東으로 유배되었으며 이후 1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지산은 永川을 떠날 때 西征賦와 記行文을 지어 남겼다.

유배생활 중 江東 高芝山 밑 居所에 <遂志齋>라 간판을 걸고 인근 지방의 선비들을 가르쳐 크게 문명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1592년 임란이 일어나 서북지방으로 몽진하던 임금에게 柳西厓가 그의 억울한 사정을 직간하여 선조의 특명으로 석방되어 禁府都事에 발탁되면서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으며 17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끝마치게 되었다.

이때 강동을 떠나 中和지방에서 임금을 배알하고, 軍兵 召募官의 직책을 겸해 맡은 지산은 成川지방으로 달려가서 尹瑾 등 제자들을 중심으로 5백여명의 의병을 모병하여 스스로 의병장으로 나서서 中和 祥原 근방에 침입한 왜적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다.

이에 그를 사면하여 종군하게 한 영의정 柳西厓는 크게 감탄하여 “曁某는 유생이라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지 않았을 터이나 오직 忠義로써 士卒의 마음을 격려하므로 전투에 克捷한 것이다.”고 칭찬 하였으며, 이때의 戰功으로 선조 27년(1594) 文官으로 승진되어 成川府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후 定州牧使로 전임되었다가 신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永川으로 귀향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유배지인 강동으로 다시 이사하여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동문인 栢谷 鄭崑壽의 추천으로 다시 安州牧使에 등용되었다가 임란이 평정된 후인 선조 36년(1603) 관직에서 물러나 永川 芝山村에 정착하게 되었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一等 훈록을 받고 학문에 힘을 기울여 心經考異 家禮攷證 周易釋解 易象推說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광해군 원년(1609) 향년 65세로 서거하니 이조판서의 증직과 文簡公의 시호가 내려 졌다.

그리고 永川 道峯書院과 江東 淸溪書院, 成川 鶴翎書院에 향사되었다.

芝軒 鄭士誠

鄭士誠의 자는 子明이고 호는 芝軒이며 본관은 淸州이다.

1545년(인종 원년·乙巳) 安東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공부를 즐겨하였고 17세 소년시절부터 도산에 들어가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았다. 24세 때인 선조 원년(156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문과 시험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는 일찍이 퇴계 문하에 들어가 배움을 청하였을 때 친히 字를 자명이라고 지어 주고, 또 箴銘을 써 주면서 ‘<儒家의 의미>가 스스로 다르니 문예를 공부하는 것은 儒가 아니오, 科第를 취하는 것도 儒가 아니니라’ 말씀한 퇴계선생의 충고를 따랐기 때문이다.

도산에서 공부할 때 연상인 金鶴峯 柳西厓 李鶴川 禹秋淵 등과 특히 가까운 친교를 맺었던 지헌은 학문에 열중하다가 43세 때인 선조 20년(1587) 학행으로 천거되어 集慶殿 參奉에 등용되면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그후 慶州에 參奉으로 재임 중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동래와 부산을 함락시키고 경주로 쳐들어올 무렵 上官인 洪汝栗이 태조영정을 땅에 묻으려 하자, 臣子된 도리로 차마 묻을 수 없으니 자신이 서울까지 奉送하겠다고 자청하여 堤川까지 봉안하였으나 임금이 서북으로 피난하고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남하하여 陶山書齋에 태조영정을 봉안하였다.

이 사실이 경상도 監司 韓孝純을 통하여 조정에 알려지자 正六品職에 승진되어 지방 縣監에 등용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의병대장 郭再祐가 진을 치고 있던 火旺山城으로 들어가 왜적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왜란이 평정된 후에는 고향에 돌아가 芝山精舍를 짓고 후진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으나 병이 위중하자 여러 자제들을 모아놓고 “내가 李先生(퇴계)에게 사제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 비록 죽더라도 선생의 忌日에는 육식을 하지 말고 잔치를 금하여서 내가 경모하던 정성을 저버리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李大山이 지은 행장에 적혀 있다.

1607년(선조 40년) 서거하니 향년이 63세였고 사후 安東 鶴巖祠에 향사되었다. 이처럼 선생을 추앙한 지현은 학문에 힘써 易解放證, 啓蒙 質疑書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독서와 教人에 관한 선생의 言行錄을 남겼다.

標軒 朴民獻

선조 때의 文臣인 朴民獻의 字는 希正이고, 호는 標軒 또는 正菴이며 본관은 咸陽이다.

명종 원년인 1546년(嘉靖 丙午)에 출생하여 일찍이 花潭 徐敬德 문하에서 공부를 하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이 뛰어났던 윤현은 선조 초기 司馬試를 거쳐 文科에 급제하였다.

문과에 오른 후 홍문관 正字와 修撰, 사간원 正言, 사헌부 持平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尙州牧使 등 외직을 거쳐서 사헌부 大司憲을 역임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咸興府使를 역임하고 뒤이어 함경도 관찰사 겸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면서 전란을 극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후 강원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전란이 평정된 후 同知中樞府使를 지냈다.

문장이 뛰어나고 시문을 잘 하였으며 광해군 8년(1616)에 서거하니 향년이 71세였다.

夢村 金晬

선조 때의 문신인 金晬의 자는 子鼎이고 호는 夢村이며 본관이 安東

이다.

명종 2년 丁未(1547) 서울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도산에 내려와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한 몽촌은 才質이 뛰어나 일찍이 사마시에 합격한 후 26세 때인 선조 6년(1573)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발탁되면서 환로에 나서게 되었다.

그후 홍문관 修撰, 사간원 正言과 司諫, 홍문관 直提學, 호조참의, 승정원 承旨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임진왜란 때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招諭使 金鶴峯과 의병대장 郭再祐의 항전을 뒷받침했으나 경상도 전역이 왜군에 함락되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다음해(선조 26년 癸巳)에 判度支使로 다시 관직에 등용되어 10만 명나라 원군의 왜적 격퇴작전을 지원하면서 都摠管을 역임하였으며 임란이 끝난 후에는 戶曹判書에 올랐다가 만년에는 判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이내 사임하였다.

十九史略을 개수하여 注를 달기도 한 몽촌은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광해군 7년(1615)에 서거하니 향년이 69세였다.

청렴결백하여 청백리록에 올랐고 사후 昭懿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선생 易簣時 24세의 젊은 선비였지만 선생의 서거를 지극히 애도하여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남겼다.

祭文

산림에 해가 길어 학문을 강한 공이 깊도다. 왼쪽은 그림이요, 오른쪽은 箴인데 오직 날로 바라고 바랐도다.

敬을 지키고 이치를 연구하니, 두 가지에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았도다.

정하게 생각하고 힘써 행하기를 해가 다하도록 마지 아니하였도다.

학문의 지경이 이미 깊으니, 밝고 선 곳에 우뚝 높아서 푸른 하늘의 맑음이요, 태산의 喬嶽이었다.

거룩한 시대의 참 선비요, 온 백성의 선각자로서 布帛 같은 글과 菽粟 같은 글씨를 일삼으니 또한 晉魏를 뛰어 넘었도다.

아아 선생은 세상에 드물게 빼어나서 깊이 기르고 두텁게 쌓아 펴 놓으니 크게 이루었도다. 소문을 듣고 義를 사모하여 찾는 사람이 멀리서 오니, 대접하기는 和로써 하고 가르침에는 게으리지 않아서, 이끌고 타 이르고, 가르쳐서 먼저 근본을 세우고 차례가 있어 순수히 나아가니 어둡고 어리석음을 열어 주었도다.

맑고 깊으며 크고 넓으니 사람을 대함이 끝이 없었도다.

操省堂 金澤龍

명종 2년(1547년·嘉靖 丁未) 禮安에서 출생한 金澤龍의 자는 施普이고 호는 操省堂 또는 臥雲子이며 본관은 예안이다.

어려서는 月川 趙穆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15세 이후부터 조월천을 따라 퇴계선생에게 薰炙를 받았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후 성균관에 유학하였으며 학행에 의한 추천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던 그는 40세가 넘은 뒤에 문과에 올라 奉敎文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伴僮이 되어 명나라 援軍 유격장 買祥을 평안도 義州까지 배송하면서 무공을 쌓아 壬辰錄 靖難功 一等과 宣武原從功 二等에 훈록되었다.

임란이 평정된 후 사간원 獻納을 지낸 조성당은 퇴계선생에게서 배운 心經을 평생동안 귀중하게 활용했다고 하며 선생 易箆 후 꿈에 선생을 배알하니 평상시에 서로 강론함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夢裡拜先生, 雲臺秋氣清……>로 시작되는 추모시를 지어 남기기도 했다.

사후 禮安 寒泉祠에 제향되었다.

漁隱 李容

명종 초기인 嘉靖 丁未(1547) 安東府 동문밖 法興洞에서 출생한 공의 자는 士寬이고 號는 漁隱이며 본관이 鐵城(固城)이니 세종대왕 때

좌의정을 지낸 襄憲公 李原 선생의 현손이다.

어려서부터 가훈을 받아 문행이 뛰어났던 어은공은 청년시절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깊이있는 학문을 닦았으나 청백리로 이어져온 家性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거나 관직에 나가는 것을 멀리했다.

낙동강 호반에 鷗先亭을 짓고 이곳에서 소요 자적하면서 일생동안 학문에만 정진해온 학행으로 厚陵 參奉이 제수되었으며 사후에는 明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문을 즐기면서 만년을 보낸 어은은 퇴계선생 易箒 후 ‘선생의 학문은 우리 동방을 밝게 비친 성학이요, 전 사림의 사표였다’는 요지의 제문을 지어 남겼다.

龔隱 趙振

선조 때의 문신인 趙振의 자는 起伯이고 호는 龔隱이며 본관은 漢陽이다.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隴雲精舍에 머무르면서 心經과 近思錄 등을 배운 농은은 이때 艮齋 李德弘, 賁趾 南致利 등과 친교가 두터웠으며 사마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올라 환로에 나선 이후 관직이 공조 판서에까지 이르렀다.

도산에서 수학할 때 퇴계선생의 사랑을 받았던 농은은 선생 서거 후 다음과 같은 祭禮에 관한 言行錄을 남긴 바 있다.

무진년 7월에 선생은 나라에서 부르는 명을 받고, 서울로 왔다. 그때 顧菴 宋寅이 振을 찾아와 <進士 成惕이 삼대의 신주를 모시다가 뜻하지 않게 불이 나서 모두 태우고는 내게 와서, ‘신주를 고쳐쓰려면 어디서 써야 하느냐’고 묻기에 산소에 가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생각하니 산소에 가서 써야 할 이치가 없을 듯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에게 물어 보라>고 말했다가 振이 이것을 선생께 물었더니, 선생은 ‘사람이 죽으면 산이나 들에가 장사를 치르고 신주를 만들어 영혼을 모시고 돌아오는 것은 그 신이 평소에 거쳐하던 곳에

돌아와 편안히 계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갑자기 불이 나서 신주가 타버리면 그 혼은 사방에 흩어져 떠돌아 머무를 곳이 없을 것이니, 곧 전날 신주를 모셨던 곳에 빈 자리를 베풀어 위패를 고쳐 쓰고 향을 피워 제사를 드려서 그 흩어져 떠도는 신을 새 신주에 붙게 하는 것이 옳다. 전날에 이미 돌아온 혼을 어찌 다시 시체가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였다. 이제 보니 선생이 金而精에서 대답한 것과 振에게 대답한 것이 같지 않은데, 而精에서 대답한 것은 신유년이요. 振에게 대답한 것은 무진년이니 선생의 노경의 결정적 의견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趙振)

一松 沈喜壽

선조 때에 좌의정을 역임한 정치가인 沈喜壽의 자는 伯懼이고 호는 일송이며 본관이 靑松이니 진사 沈鍵의 아들이다.

명종 3년인 1548년(嘉靖 戊申) 서울에서 출생한 일송은 어릴 때 蘇齋 盧守愼의 가르침을 받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의 훈학을 받았으며, 21세 때인 선조 원년(1568) 사마시에 합격하고 선조 5년(1572) 문과에 올라 홍문관과 사간원, 사헌부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거쳐 임진왜란때에는 防禦使로 임용되어 무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가 여러 관직을 역임할 때 이미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동서분당에는 공평한 자세로 중립을 지켰으며 임란 후 大提學에 기용되어 사림의 신망을 받았고 선조 37년(1604)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그후 선조 41년 우의정에 전임되어 광해군의 폐모 복위 문제에 정론을 펴는 등 광해군 즉위 후에도 계속 정사를 이끌어 왔으나 광해군 5년(1613) 탄핵을 받은 黃愼과 鄭蘊을 구하려다가 권신인 大司諫 李爾瞻에 의해 밀려 났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屯山에 은거하여 스스로 氷雷라는 자호를 지어 부르면서 시문을 즐기다가 광해군 14년(1622) 서거하니 향년이 75세였다.

사후 文貞公의 시호를 받은 일송은 우의정에 재임 때인 광해군 2년(1609) 7월 16일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菴 趙光祖, 晦齋 李彦迪 등 先儒 4인과 스승인 이퇴계 등 다섯분을 오현으로 추존하여 문묘에 종향토록 진언하여 실현케 했다.

이 당시 영의정 李德馨과 좌의정 李恒福 등 대신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우의정 沈喜壽가 광해군에게 상신한 진언 요지는 다음과 같이 崇終獻議에 기록되어 있다.

조정의 크고 작은 議論에 어찌 흑백의 구별이 없겠사옵니까마는 다섯 현신의 從祀에 있어서야 어느 누구의 이의가 있겠사옵니까. 선조대왕은 선비를 높이고 道를 중히 여기는 정성이 극진하셔서 특히 유신들에게 명령하여 <儒先錄>을 지어서 항상 그것을 보고 살피어서 크게 칭찬을 하셨사오니 네 현신으로서는 보통 세상에서보다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李滉에 대하여는 先朝 때에 존경과 신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지금에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그 뒤에 난 학자들로서는 비록 그 실행과 학문이 얼마나 깊은가를 헤아려 알 수가 없지마는 그의 몸을 단속하고 도를 행하는 법과 글을 짓고 말을 세우는 뜻을 본다면, 그 한결같이 바른 것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현신들의 그 도덕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공으로서도 從祀의 열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야 비로소 종사될는지 알 수 없겠사옵니다.

이러한 진언이 있는 후 광해군은 “의론을 따라 시행하라.”고 하명하였고 드디어 그해 9월 4일 조정암선생을 위시한 다섯 현신은 문묘에 종사되었다.

西峒 柳根

유근의 자는 晦夫이고 호는 西峒이며 본관은 晋州이다.

명종 4년인 1549년(嘉靖 乙酉) 槐山에서 출생하여 어릴때에는 黃廷

彘에게서 수학하다가 청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24세 때인 선조 5년(1572)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에 첫발을 들여놓은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선조 20년(1587) 일본 사신 중 겐소(玄蘇)가 내한하였을 때 왕명으로 宣慰使로 차출되어 교섭에 나섰던 西峒은 문장력과 재능이 뛰어나 일본 사신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문장력의 뛰어난은 충청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가 있을 때 公州 근방의 拱北樓에 올라 지어 남겼다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도 엿볼 수 있겠다.

“소동파는 적벽에서 놀았으나 나는 지금 蒼壁에 놀고, 庾亮은 南樓에 올랐으되, 나는 여기 北樓에 올랐노라.”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吾道 兵馬副體察使로 활약하였고 이때 명나라에서 들어오는 軍糧을 검수하는 軍糧檢察使로 공을 세운 바 있다.

임란이 평정된 후 正憲大夫에 拜하고 大提學과 左贊成을 역임하였으며 전란 중 공적으로 扈聖功臣에 훈록되는 한편 晋原府院君에 봉군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때에는 政亂을 예상하여 관직을 사임한 후 槐山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인조 4년(1627)에 일어난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도중 피난지에서 서거하니 향년이 79세였다.

사후 文靖公의 시호가 내리고 槐山 花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서경은 선생 역책 후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적의를 표했다.

祭文

아아, 선생은 하늘이 낳은 큰 德이로다. 선천적으로 타고남이 이미 달랐는데 채우고 기쁨이 모자람이 없었도다. 본래 온공한 위에 공손한 뜻을 더욱 더했고, 기운은 실로 영특하고 민첩한데, 더욱 자기를 비울

줄을 알았도다. 밝힘과 정성스러움이 같이 나아가고 공경과 의리를 함께 세웠도다.

일이 있어도 바루지 않으니 소리개는 날고 고기는 뛰도다. 物에 나아가서는 끝까지 연구하니, 소의 털이요, 누에의 실이었도다. 처음과 끝이 어지럽지 않고, 크고 작으나 빠뜨리지 않았도다.

바탕은 깊고 행실은 갖추었으며, 사업은 넓고 기초는 높았도다.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니 부딪치는 바가 다 통하였도다.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고 순수하며 자세하고 치밀하되 화하고 너그러웠도다.

義를 들으면 따를 줄 알아서, 혼자 편한 데서 편해하지 않았도다. 늦어서야 내 살 곳을 비로소 얻었으니 물은 안고 돌고 산은 둘러 있었다. 스승의 법은 높고 엄하며, 신령스런 흥금은 깨끗하고 시원했도다. 시대를 걱정하는 간절한 정성과 도를 즐기는 참된 마음을 아울러 행하여 걸림이 없으며, 제각기 그 법에 그치었도다.

勿巖 金隆

일찍이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이 뛰어났던 그의 자는 道盛이요 호는 勿巖이며 본관은 咸昌이나 榮州에서 나서 성장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한 물암은 18세 때에 퇴계선생 문하에 찾아 들어 심오한 학문을 닦아 문명을 떨쳤다. 중용과 대학 논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예학과 수학에도 조예가 깊어 주위의 찬사를 받았으며 선생 서거후에는 삼년 심상을 행하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였다.

과거시험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각郡이 왜병에 의해 함락되자, 그는 母夫人喪을 당한 居喪의 몸으로 우국의 격문을 만들어 각 고을에 돌리면서 항전을 주동하였으며 이러한 忠義之行이 조정에 알려지자 다음해 선조 26년 癸巳(1593)에 학행과 덕행으로 참봉이 주어졌다.

40대 초반에 이미 三書講錄, 小學釋義, 雜著 등 저서를 저술한 바 있

는 몰암이 전란중인 선조 27년(1594) 서거하니 향년이 46세였다.

사후 그의 학행이 높이 평가되어 여러차례 증직이 내려진 뒤 承旨 벼슬이 증직되었고 榮州 三峯書院에 배향되었다.

도산에서 수학할 때 선생의 총애를 받았던 그는 太極圖說에 관해 선생과 강론한 것을 言行錄에 남겼으니 그 중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극도설의 오행은 한 陰·陽이요, 陰·陽은 한 太極이다.”의 뜻을 물었더니, 선생은 “그 말은 오행은 곧 陰·陽의 하는 노릇이요, 陰·陽은 곧 太極의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陰·陽이 바로 한 太極이라는 뜻이 아니다.”고 하였다.

“太極圖解의 天地·日月 위에 또 太極과 陽動·陰靜의 오행의 테두리를 더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선생은 “人極이 서면 太極·陰陽·五行과 天地·日月·四時·鬼神이 어기지 못하는 것이다.”하였다.(金隆)

또 묻기를 “圖解의 정밀(精)하고 거친(粗)것과 근본(本)되고 끝(末)됨은 무엇을 가지고 가름하나이까”라고 물었더니, 선생은 “精한 것과 根本됨은 太極이요, 거칠고 끝됨은 陰陽이다. 원래 이렇게 보기는 하지마는, 무릇 천하의 物은 마땅히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니, 精하고 거친 것과 근본이 되고 끝됨은 모두 太極의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저 것과 이것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다.”하였다.(金隆)

樂齋 徐思遠

徐思遠의 字는 行甫요 호는 樂齋이며 본관은 大邱이다.

명종 5년 庚戌(1550)에 대구 인근의 伊川에서 출생하여 향리의 서당에서 수학하다가 20세가 가까워서야 鄭寒岡을 따라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게 되었으나 이내 선생이 易箒하자 정한강 문하에서 성현의 학문을 익혀 학문이 뛰어났다.

일찍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 樂齋는 항상 “공자와 맹자를 배우고자 하면 마땅히 程子和 朱子로써 표준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朱子書와 退溪集을 즐겨 읽었으며 또 “주자는 孔孟後 일인자요, 퇴계선생은 우리 동방의 朱夫子이다.”라고 우리러 추앙하였다.

30대 이후에는 퇴계선생을 추앙한 나머지 동지들과 함께 청량산에 들어가 퇴계선생이 왕래하던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성현의 글을 읽고 닦았으며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에 응하지 않았으나 학행으로 천거되어 환로에 나가게되어 淸安縣監을 거쳐 이조정랑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伊川으로 귀향하여 玩樂精舍를 짓고 학칙을 제정하여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힘 썼다.

청안현감 재임중일 때에는 郡民 중 得罪하였거나 遊離된 사람들을 선도하여 안착시키는 한편 향교를 수리하여 성현을 받들고 학문을 진흥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악재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慕堂 孫處訥, 林下 鄭師哲, 臺巖 李軾 등과 더불어 팔공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향리에서 학문과 養士에 정진하다가 광해군 7년 乙卯(1615)에 서거하니 향년이 66세였으며 사후 大邱 伊江書院에 입향되었다.

拙齋 申湜

선조 때의 문신인 申湜의 자는 叔正이요, 호는 拙齋이며 본관은 高靈이다.

명종 6년(1551년·嘉靖 辛亥) 淸州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퇴계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예학에 밝았으며 문과에 급제한 후 湖堂에 올랐다가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삼사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도, 학문에 힘쓰고 문예를 진흥시키는데 힘썼다. 특히 외직에 나아가 강원도 관찰사에 재임중일 때인 광해군 2년(1610년·庚戌)에는 春川에 文

巖書院을 창건하여 학문을 진흥시키는 한편 퇴계선생의 위패를 봉안하여 매년 향사를 올리도록 했다.

그후 내직에 들어가 사헌부 大司憲에 등용된 졸재는 효행이 뛰어나 조정으로부터 旋閫되었으며 만년에는 고향에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여 疑禮攷證, 家禮諺解 등의 저서를 지어 남겼다.

사후 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淸州 雙泉書院에 제향되었다.

竹窓 尹噉

선조 때의 문신인 尹噉의 자는 汝昇이요 호는 竹窓이며 본관은 南原이다.

명종 6년 신해(1551)에 출생하여 일찍이 奇高峯을 따라 수학하다가 퇴계선생 문하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닦았으며 이때 동문인 秋淵 禹性傳과 月川 趙穆 등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예학과 경전에 뛰어났던 죽창은 사마시를 거쳐서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가게 되었으며 홍문관과 경연관에 재임 중 강학할 때에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논어와 소학 가례에 대한 조예가 뛰어남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유재란때 원군으로 來朝한 劉都督의 接伴官으로 활약한 바 있고 靖亂 후 관동지방 등 여러 고을의 부사를 역임한 다음 홍문관 副提學과 공조참판을 거쳐서 공조판서에 올랐다.

당대의 명사인 白沙 漢陰 五峯 西峒 등과 道義 교류를 가졌으며 광해군 4년(1612)에 서거하니 향년이 62세였다.

五峯 李好閔

선조 때의 문신이요, 문장가인 李好閔의 자는 孝彦이고 호는 五峯이며 본관이 延安이니 戶曹判書를 지낸 延安君 李淑琦의 증손이다.

명종 8년(1553)에 출생하여 소년시절에는 퇴계선생의 훈학을 받다가 선생 易簣후 眉巖 柳希春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사마시를 거쳐서 선조

초기 문과에 급제하여 湖堂과 홍문관, 사간원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서 大提學에 올랐다가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에는 扈從官으로 북방으로 몽진하는 임금을 수행하여 의주까지 따라갔던 그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遼陽에 주둔하고 있는 明將 李如松 막하로 들어가 원군을 이끌어 오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문장력이 뛰어났던 관계로 이 당시 명나라에 보내는 서간문은 거의 五峯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때 명나라 원군을 청해오는데 세운 공으로 扈聖功臣에 추록되고 延陵府院君의 봉군을 받았으며 靖亂 후 대제학 등 높은 관직을 제수받게 되었다.

만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선대의 고향인 경상도 知禮(金泉 근방)에 은거하다가 인조 11년(1634) 서거하니 향년이 82세였다.

사후 文僖公의 시호를 받았으며 知禮 道東鄉祠와 南溪祠에 제향되었다.

그의 생존시에 건립된 道東鄉祠는 증조인 延安君 靖襄公을 제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사후 오봉 자신도 후손들에 의해 입향되었다.

樂琴軒 李庭栢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으로 큰 공을 세운 공의 字는 汝直이고 호는 樂琴軒이며 본관이 眞誠이니 慶流亭 訓導公 演의 손자이고 縣監 庭檜의 아우이다.

명종 8년 癸丑(1553) 安東 周村에서 출생한 공은 천성이 어질고 강인하여 5,6세에 이미 성인의 儀表와 같다고 칭찬을 받았으며 일찍이 퇴계선생이 인사를 받은 후 “이 아이는 勤重하므로 반드시 대성할 것이다.”고 하면서 글씨를 써 보라고 이르니 <忠孝> 두자를 써 올려 선생을 감탄하게 하였다.

11세 때에 부친 縣監公(諱 希顏)이 서거하자 3연상을 마친 후 곧 도산으로 들어가 再從 증조인 퇴계선생의 훈학을 받아 학문이 뛰어났던

樂琴軒은 이때 金鶴峯 南賁趾 權松巖 등 여러 문인들과 理學通錄을 강론하고 易東書院에서 열린 시회에 참가하여 학문의 폭을 크게 넓혔다.

선생 易簞 후에도 도산서당에 들어가 학문에 정진한 공은 36세 때인 선조 21년(1588)에야 사마시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고향에 머물러 있다가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에 추대되었으며 이때 공은 琴易堂 裴龍吉 등 副將들과 함께 1천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醴泉 龍宮으로 진격하여 왜적을 격퇴하는 무공을 세웠고 이듬해에는 다시 密陽과 凝川 지방으로 전전하면서 왜적을 격파했다.

이 당시 樂琴軒의 활약상에 대하여 명나라 遊擊將 吳惟忠은 그의 壬亂行程記에서 <李庭栢은 시골 선비로서 의병을 일으켜 큰 功을 세운 答력이 큰 사람이라> 격찬하였고 임란 중 領議政으로 전란을 극복한 柳西厓도 <李庭栢은 투지가 강하고 答력이 크기가 宋之胡 澹菴과 같다>고 칭찬하였다.

임란이 평정된 후 무공과 학행에 의해 慶基殿 參奉이 주어졌으나 “국란에 임해 큰 공도 세우지 못하고 관직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사후에라도 관직을 쓰지 말라.”고 극구 사양하였으며 선조 33년(1600) 서거하니 향년이 48세였다.

사후 사림의 공론에 의해 周村에 流巖祠가 건립되었다가 그후 流巖書院으로 확장 중건되었으며 여기에 제향되고 있다.

松溪 李亨男

공의 자는 嘉仲이고 호는 松溪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仁同縣監을 지낸 遇陽의 현손이다.

명종 11년 丙辰(1556)에 安東 周村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再從祖인 퇴계선생 문하에 들어가 훈도를 받은 공은 33세 때인 선조 21년 戊子(1588)에 司馬兩試에 합격하였으나 4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문과에 응시할 공부를 포기하고 의병 대열에 참가하였다.

선조 25년(1592) 왜적의 침입으로 온 나라 안이 전운에 휘말려 들게 되자 공은 母夫人의 허락을 받은 다음 분연히 일어나 순국하기를 맹세하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하였으며 이때 의병장으로 龍宮 쪽에서 활약한 樂琴軒 李庭栢이 집안 촌수로 從侄이었기 때문에 동부지역인 臨河縣 쪽으로 달려가 인근의 의병을 규합하여 큰 공을 세웠다.

항전에 앞서 각처에서 모여든 의병들에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찌 감히 犬羊을 거느리고 하늘 아래 산단 말이나.”고 역설하여 의분심을 우리나라에 하였다고 嶺南人物考에 기록되어 있다.

정유재란 때에도 다시 의병을 일으켜 안동지방까지 남하한 명나라 원군들을 지원하자 명군 從士官 陳天龍 朱孔儒 등이 공의 집으로 찾아와 사의를 표하고 선물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지 않고 사양하자 명나라 군사들은 <朗朋契友>라고 크게 칭송하면서 돌아 갔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그후 임란 때의 공으로 참봉을 제수 받은 송계는 광해군이 즉위한 뒤 북인들이 국사를 마음대로 흔들어서 덕치와 윤리가 땅에 떨어지자 문을 닫고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인조 4년(1627) 향년 72세로 서거한 후 松安君의 廟宇인 鵲山祠에 종향되었다.

東巖 李詠道

공의 자는 聖與이고 호는 東巖이며 본관이 眞城이니 文純公 퇴계선생의 손자요 僉正公 篤의 셋째 아들이다.

명종 14년 己未(1559)에 陶山 上溪에서 출생하여 어릴적부터 퇴계선생의 훈자를 받아 8,9세에 이미 중용을 읽었으며 선생의 총애를 받아 “우리집을 길이 이어갈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다.”라고 늘 기대와 칭찬을 받았던 동암은 12세 때에 퇴계선생이 下世한 후에는 스스로 면학에 힘써 학문이 뛰어났으나 25세 때인 선조 16년(1583) 부친 침정공이 서거함에 3년 동안 거상하느라 도산을 떠나지 못하였다.

더욱이나 僉正公이 서거한 다음해 6월 둘째형 將仕公(純道)이 31세로 요절하고 뒤이어 8월에는 맏형 蒙齋公이 서거함에 따라 홀로 廬幕을 지키면서 조객을 접대하고 집안 일을 돌보게 되었으나 한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때 壺峯 宋言愼이 敬差官(御使)으로 영남 지방을 순방하는 길에 도산에 들러 문상하고 올라가 임금께 복명하기를 “영남 지방에 다른 사고는 없으나 유신 이황의 아들 孺이 죽으매 그의 두 아들이 모두 喪身으로 卒喪하지 못하고 죽으니 오직 셋째 아들만이 홀로 남아 여막을 지키고 있사운데 그 광경이 처량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사옵습니다.”하니 임금이 듣고 탄식하면서 “탈상한 후에 곧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3연상이 끝나자 선조 18년(1585) 이조에서 왕에게 상주하여 軍資監 奉事를 제수하고 이어서 集慶殿 參奉과 昭格署 參奉으로 등용했다.

그후 34세 때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從事官과 軍糧都摠을 역임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무공을 세웠으며 다음해 1593년(선조 26) 충청도 連原察訪으로 등용되었다가 공석중인 忠州牧使를 겸임하여 치적을 쌓았고 선조 29년(1596) 翊衛司 翊贊과 備邊祠郎廳이 주어졌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39세 때인 선조 30년(1597) 戶曹佐郎에 등용되었으며 이때 원군으로 내한한 명나라 장군 楊鎬가 호조에 군량 조달을 의뢰하게 됨에 비변사의 천거로 동암이 책임자로 파견되어 大任을 수행하였다.

뒤이어 安集使를 비롯하여 災傷敬差官, 玄風縣監, 金堤郡守, 永川郡守, 靑松府使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청송부사 재임 중에는 鄭寒岡이 安東府使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선비들을 陶山書院에 모아 啓蒙傳疑와 朱子書節要를 강론하고 학문 진흥에 힘쓰게 했다.

그후 광해군 7년 乙卯(1615)에 이르러 大妃를 폐하는 등 조정의 정치와 예절이 퇴락하는 것을 보고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인조반정 이후 다시 관계에 나가서 益山郡守와 原州牧使를 역임하였으며 그후 軍資監

正이 제수되었으나 사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인조 15년(1637) 서거하니 향년이 79세였다.

사후 宣武原從二等功勳錄에 훈록되고 左承旨와 吏曹參判의 증직이 내려졌다.